

#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 노 동



## 연구진

연구책임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연구보조

- 박으뜸 /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 요약문

## ■ 서론

###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대학은 인재양성과 지식창출의 요람으로 지역 발전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어 대학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대학에 대한 지원이 국가사무에 국한된다는 한정된 의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서 공생관계로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소, 지역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전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대학과의 상생을 주요 발전방향으로 상정하고 있음
  -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해 지역대학 교육 및 교육 여건의 개선, 우수학생 우치 지원 및 졸업생 고용기회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계 확장 등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 및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대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지역대학, 지자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대학, 지역사회,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설정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대학교육의 상대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과제,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
  - 대학교육 관련 정책 조사를 위한 문헌조사, 기초 현황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검토, 관련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 자료, 대전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수행

## ■ 지역과 대학협력에 관한 논의 및 사례 검토

### □ 지역과 대학협력에 관한 논의 검토

○ 대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봄

- ①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②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 등에 관한 연구
- ③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을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정도로 분석한 연구
- ④ 대학의 연구기능이 지역사회(민간기업)에 미친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⑤ 대학의 입지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 ⑥ 대학의 교육 기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 지역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자, 지역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의 장이며, 다양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공간임

○ 지역대학은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 연구, 정보제공, 사업기획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지역 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역대학의 효과는 크게 ①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② 인적자원의 양성 및 공급, ③ 평생교육기회의 제공, ④ 지역문제의 진단 및 처방으로 살펴볼 수 있음

○ 결국 지역의 발전에 있어 지역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오늘날 지역사회와 지역대학간의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 및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대학 시설 개방,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개편, 사회로 대학공간의 확장 등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지역 인재 개발 시스템 구축도 나타나고 있음

## □ 지역과 대학협력에 관한 국외 사례검토

- 일본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지방 인재 유출과 지역 사회 침체 등의 문제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간의 다양한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 2013년부터 문부과학성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Center of Community(COC)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COC 사업은 지역 문제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대학, 중소기업, NPO 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도쿄도의 경우 지역사회, 지역대학, 기업의 연계를 위한 ‘ECO-TOP 프로그램’, ‘도쿄도 지적재산활용 제품화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교토시는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위해 ‘대학·컨소시엄 교토’와 함께 ‘대학·마을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토대학 근처에 사이언스 파크를 설립하여 지적 클러스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요코하마시는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를 설립한데 이어 시의 정책국 내에 ‘대학조정과’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연계·협력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사회에서 대학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산업 혁신, 지역 소득 증대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간의 다양한 연계·협력이 나타나고 있음
  - 하버드대학은 보스턴 지역의 금융재정, 의료, 대학 교육과 컨설팅 등이 주요 산업 클러스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교육기능, 서비스 전달 기능, 연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은 85년도 설립한 비영리 자립조직 USCD CONNECT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지역대학, 지자체, 산업체 등이 효율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유럽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과 지역 사회의 경쟁력 제고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간의 다양한 연계·협력이 나타나고 있음
  -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폴리스는 울루시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네트워크 체계 구성으로 IT산업과 의료산업 중심지로 성장함

-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대학, 정부기관, 대기업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스톡홀름 시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정책과 홍보를 바탕으로 세계 2위 수준의 IT클러스터로 발전하였음

## □ 지역과 대학협력에 관한 국내 사례검토

- 2016년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14개 시·도의 협의 하에 “대학-산업-인재가 상생하는 창조지역 구축”을 목적으로 제 1차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음
  - 각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본 계획을 설정하였음
  - 기본 계획에서 지역 대학의 특성화, 지역의 글로커화, 지역과 대학의 연계화가 주요 전략으로 설정됨
- 서울시는 지역대학을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 대표적인 협력사례로는 ‘KU개척마을 파이빌( $\pi$ -Ville)’ 과 서대문구 재생 사업이 있음
  - 서울시는 고려대학교 인근 지역을 캠퍼스 타운으로 형성하였으며, 고려대학교에서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파이빌을 설립함. 캠퍼스 타운은 생활을 ‘캠퍼스 안’에서 ‘지역 사회’로 확장시켜줄 수 있으며, 지역 재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그리고 파이빌과 같은 공간은 지역사회와 지역 대학, 대학생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
  - 서대문구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등 인근대학과 지역 연계수업을 실시하여 지역 재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대구시는 2015년 지역대학 협력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음
- 인천시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대학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인천 ODA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가장 성공적인 ODA 모델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향후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에 있음
  - 인천대학교는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ODA 청년인턴, ODA 교육, ODA 홍보 사업 등을 실시함. 그리고 인천시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천 ODA 포럼을 개최하여 인천의 ODA사업 관련한 소통의 장을 형성함



## ■ 지역대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실태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구조개혁 압력, 지역 인재의 유출 및 지역 대학 위상 약화, 청년 취업난 속 취업 미스매치 등과 같은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나타나고 있음
- 중앙정부의 대학 지원정책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MB정부에 걸쳐 변화되었음. MB정부 이후 “대학 · 연구기관 역량 강화”, “기초원천연구 진흥”,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 유치”가 3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됨
- 2016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정책은 크게 ①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② 전문대학 육성사업, ③ 학자금·장학금 지원사업, ④ 학술 연구지원 사업, ⑤ 산학협력 지원 사업, ⑥ 취업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대학평가지표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학의 자율성 저하와 함께 지역사회의 상황과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 대전 지역대학의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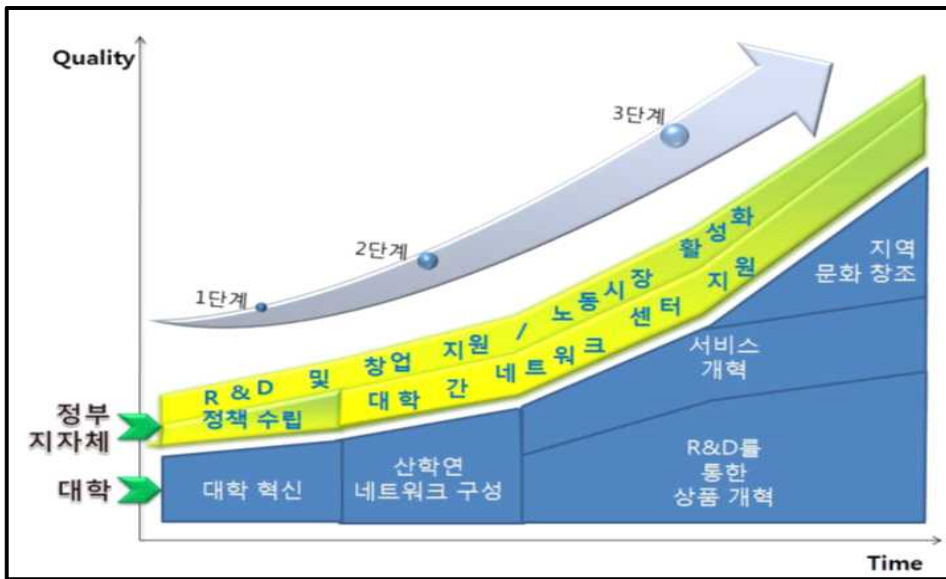
- 대전 내에는 전문 대학원 대학 2개교, 일반 4년제 대학 12개교, 사이버 대학 1개교, 방송통신대학 1개교, 전문대학 5개교 총 21개의 대학교(원)이 설립되어 있음

- 인재확보의 측면에서 보면 대전의 대학은 다른 광역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과 충원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도탈락율의 경우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양호하나, 광역시 중에서는 3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대전 내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여건은 전임교원 현황, 대학생 교육지원 현황, 대학의 연구 여건 및 연구 성과로 살펴볼 수 있음
  - 전임교원의 경우 일반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나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였으나, 전문대학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열악한 모습을 보였음
  - 교육지원 현황에 있어 일반대학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장학금 수혜액이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비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장학금 수혜에 있어서는 높게 나타남. 특히 교육지원에 있어 대전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공되는 장학금 수혜액이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많이 낮았다는 점은 주의할 점임
  - 연구 여건 및 연구성과 측면에서 대전 지역 일반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전문대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 실적에 있어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 대전 내 일반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수혜 건수나 수혜액에 있어 높게 나타났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액의 비중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지원 사업 수혜 건수나 수혜액이 울산 다음으로 낮았음
  
- 대학의 특성화에 있어 대전 지역 대학은 기초과학, 건설교통, 보건의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자원봉사에 있어 대전 대학은 교과목 개설은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이수율은 92%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며, 교과목 외 봉사프로그램 또한 프로그램 당 참여인원 수 164명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교과목 외 봉사프로그램으로는 주로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봉사, 환경 정화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인재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7대광역시와 전국 평균에 비교하여 취업률이 양호하며, 취업률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다만 대전시 지역 인재의 유출은 심한 편이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의 대학협력 지원 현황

- 대전시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대학 협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지역내외의 여러 여건을 기반으로 하여,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이들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이러한 우수 인력을 최대한 지역의 발전에 활용
- 대전 내 대학 혁신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학협력 및 발전방안으로 제시됨



- 대전시의 다양한 대학협력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대학과 행정기관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보완해야할 문제점이 존재함

## ■ 대학 정책지원 요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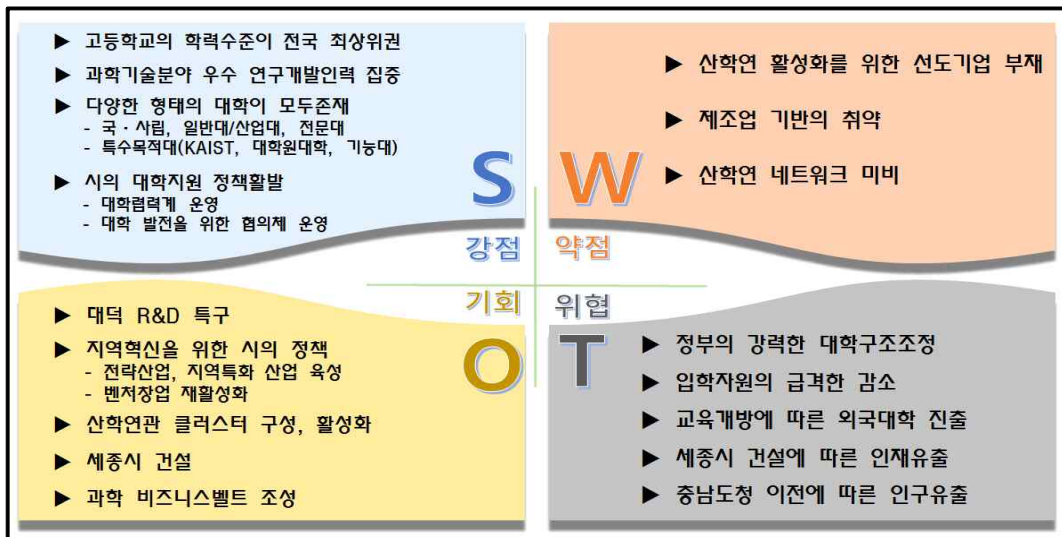
### □ 생활실태와 지원 요구 설문 분석

- 설문조사 결과 대전시민들은 대전을 대학생이 살기 적합한 도시로 평가하였음. 그러나 현재 대전 지역대학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응답의 경우 인재육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교육/연구 여건과 같은 긍정적인 상황들(3.06점)보다는 인재 유출, 대학 경쟁력 하락, 열악한 시설/설비 현황 등과 같은 부정적 상황(3.23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았음
- 지역대학의 역할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 배출(37.8%),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29.2%), 지역발전 비전의 제시(21.3%) 순으로 나타났음
-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중 지방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24.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교육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확대(20.3%),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16.5%)이 뒤를 이었음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90.2%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단지 1.9%만이 필요성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90.2%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단지 1.9%만이 필요성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음
- 지역대학과 지역주민 간의 이상적 협력관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38.1%),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 체육행사(21.9%), 지역주민에 대한 대학시설의 개방(16.8%)이 상위항목으로 선택됨
-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하기 가장 큰 이유로 좋은 일자리 부족(47.0%)이 선택되었으며, 졸업생들의 취업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현장 실습 및 취업 기회제공(47.3%)이 선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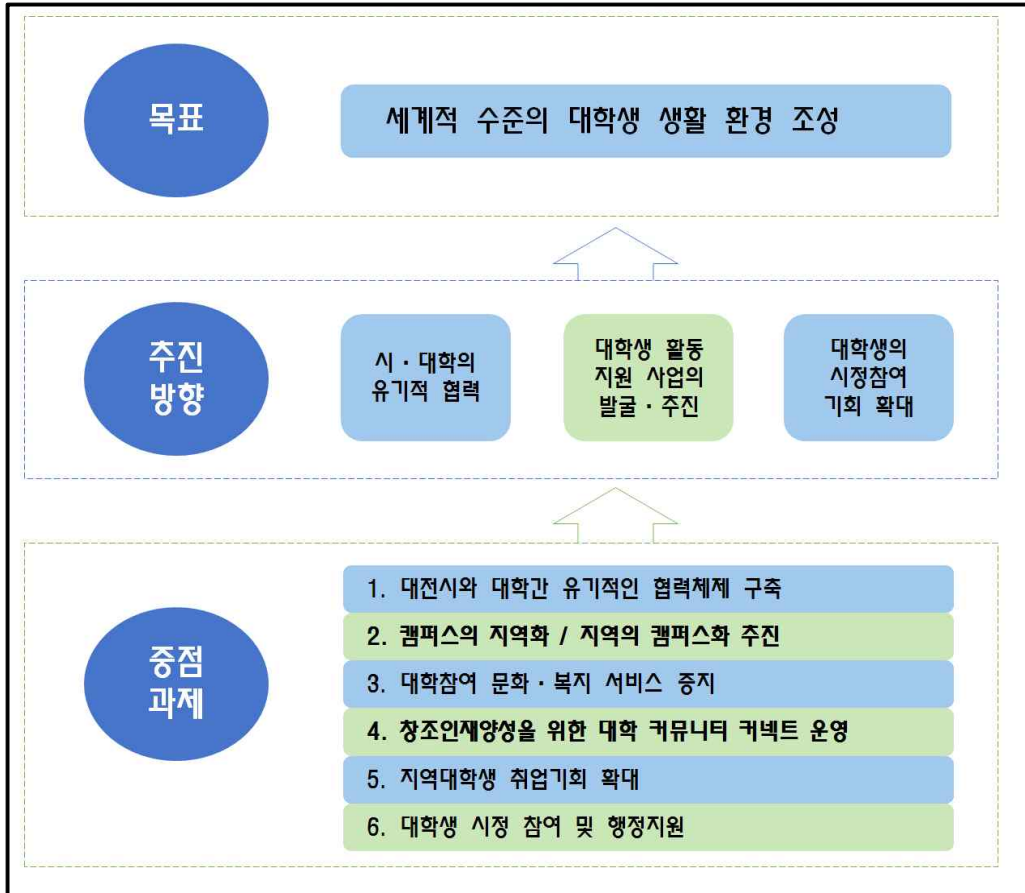
- 지역 대학 및 대학생 지원에 있어 대전시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으로는 지역 대학생 취업 기회 확대(29.3%), 시와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20.0%), 대학생 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14.1%) 순으로 나타났음
- 지역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숙사 건립 지원(47.6%)이었으며, 그 밖에 대학생 전세자금 특별융자(16.5%), 소형주택 공급확대(14.0%), 공공임대 확대(11.7%) 등이 응답되었음
- 2016년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12개의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적인 인지율은 27.4%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인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지역인재 취업·창업 지원 확대 사업(41.0%)이었으며 인지율이 가장 낮은 사업은 지방대학의 새로운 학습 자원 발굴 사업(17.5%)으로 나타남. 지원 사업의 필요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76.3%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취업·창업 지원 확대 사업(4.27점)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났음

## ■ 대학 연계·협력을 위한 지원 방안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의 SWOT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음



○ 대학협력의 목표 및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 목 차 -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6
제2장 지역과 대학협력방안에 관한 논의 검토 .....	11
제1절 개념 및 기존논의 검토 .....	11
제2절 연구방향 정립을 위한 개념 검토 .....	18
제3절 지역과 대학협력 국내외 사례검토 .....	26
제3장 지역대학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53
제1절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사업 평가 .....	53
제2절 대전지역대학의 현황 및 특성 .....	66
제3절 대전광역시의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 .....	86
제4장 대학생 정책지원 요구 분석 .....	91
제1절 조사개요 .....	91
제2절 대전의 대학입지 여건 및 정책지원 평가 .....	95
제3절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역할 인식 .....	98
제4절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지원 인식 .....	10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3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113
제2절 정책제언 .....	120
■ 참고문헌 .....	133
■ 부록: 설문지 .....	135

## - 표 목차 -

〈표 II-1〉 지역대학의 기본적 기능.....	21
〈표 II-2〉 2016년 하반기 신촌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대학-지역연계 수업 공모 결과	43
〈표 III-1〉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비교(‘11년 4년제).....	54
〈표 III-2〉 5.31 교육개혁 이후 역대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 정책 .....	57
〈표 III-3〉 대전의 대학교(원) 현황.....	66
〈표 III-4〉 2016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 입학 신입생 경쟁률 현황.....	67
〈표 III-5〉 2016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 입학 신입생 충원율 현황.....	68
〈표 III-6〉 2016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 중도탈락 학생현황.....	69
〈표 III-7〉 2016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70
〈표 III-8〉 2016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71
〈표 III-9〉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72
〈표 III-10〉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생 장학금 수혜현황.....	73
〈표 III-11〉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74
〈표 III-12〉 2015년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	75
〈표 III-13〉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지방자치단체 연구비 지원 현황.....	76
〈표 III-14〉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77
〈표 III-15〉 2015년 전국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일반대학)	78
〈표 III-16〉 2015년 전국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전문대학)	79
〈표 III-17〉 2015년 전국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자체특성화학과 현황.....	80
〈표 III-18〉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사회봉사교과목현황.....	81
〈표 III-19〉 2015년 전국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교과목외 사회봉사현황.....	82
〈표 III-20〉 대전 지역 대학의 봉사프로그램 세부내용.....	83
〈표 IV-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2
〈표 IV-2〉 설문내용.....	94
〈표 IV-3〉 타도시 대비 대전의 대학생 생활 적합성.....	95
〈표 IV-4〉 지역대학상황의 동의정도.....	96
〈표 IV-5〉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이 수행해야할 역할.....	98
〈표 IV-6〉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99
〈표 IV-7〉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 필요성.....	100
〈표 IV-8〉 지역대학과 지역주민 간의 이상적 협력 관계.....	101
〈표 IV-9〉 지역대학 졸업생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	102
〈표 IV-10〉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의 지역대학 졸업생 취업 제고를 위한 역할.....	103



<표 IV-11> 특별히 대전시가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	104
<표 IV-12> 지역 대학 및 대학생 지원을 위해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둘 영역(다중응답)	105
<표 IV-13>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106
<표 IV-14> 2016년 대전시 대학지원사업 인지여부	107
<표 IV-15> 2016년 대전시 대학지원사업의 필요성	109

## - 그림 목차 -

[그림 II-1] 지역개발과 교육의 순환적 의존 관계	20
[그림 II-2] ECO-TOP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구성도	28
[그림 II-3] 지적재산 활용 제품화 지원사업의 개요	29
[그림 II-4] 교토시의 대학·마을 연계사업	30
[그림 II-5] 요코하마시 '대학과 지역이 연결되는 거리'	31
[그림 II-6] USCD CONNECT와 일반산학협력기관의 차이	34
[그림 II-7] USCD CONNECT와 일반산학협력기관의 차이	35
[그림 II-8] 일렉트룸을 중심으로한 산학연 협력체계	38
[그림 II-9] 고려대학교 '파이빌( $\pi$ -Ville)'의 전경	40
[그림 II-10] 신촌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42
[그림 II-11] 신촌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	42
[그림 II-12] 인천의 ODA 협력 모델	46
[그림 III-1] 학령인구 감소	54
[그림 III-2] 중앙정부 고등교육 지원정책 현황	63
[그림 III-3] 대전시 대학 교육의 비전	86
[그림 III-4] 단계적 대학협력 및 발전방안	87
[그림 III-5] 대학협력 지원사업의 보완	88
[그림 IV-1] 응답자의 성별	91
[그림 IV-2] 응답자의 연령대	91
[그림 IV-3] 응답자의 거주지	91
[그림 IV-4] 응답자의 거주기간	91
[그림 IV-5] 타도시 대비 대전의 대학생 생활 적합성	95
[그림 IV-6] 지역대학상황의 동의정도(빈도)	97
[그림 IV-7] 지역대학상황의 동의정도(평균점수)	97

[그림 IV-8]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이 수행해야할 역할.....	98
[그림 IV-9]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99
[그림 IV-10]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 필요성.....	100
[그림 IV-11] 지역대학과 지역주민 간의 이상적 협력 관계.....	101
[그림 IV-12] 지역대학 졸업생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	102
[그림 IV-13]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의 지역대학 졸업생 취업 제고를 위한 역할..	103
[그림 IV-14] 특별히 대전시가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	104
[그림 IV-15] 지역 대학 및 대학생 지원을 위해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둘 영역(다중응답)	105
[그림 IV-16]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106
[그림 IV-17] 2016년 대전시 대학지원사업 인지여부.....	108
[그림 IV-18] 2016년 대전시 대학지원사업의 필요성.....	110
[그림 V-1]대전시 인재관리 SWOT 분석.....	113
[그림 V-2] 대학협력의 목표 및 추진방향.....	120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제 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대학은 인재양성과 지식창출의 요람으로 지역 발전과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어 대학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다.

그간 대학에 대한 지원이 국가사무에 국한된다는 한정된 의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서 공생관계로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학지원 정책은 대학이 지역 여건과 연계한 교육체제와 산학협력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의 산업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필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또한 대전시 교육 현실과 대전 발전방향을 비교해 볼 때, 지역민들 사이에 지역사회의 대학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발전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지역대학 신입생들의 입학 경쟁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저조하고, 지역대학의 졸업생들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역대학과의 상생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지역대학이 오늘날과 같이 위기 상황을 맞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학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시설 및 주거환경 등 삶의 모든 측면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다 대학까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학문의 질을 높이려 하거나, 취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측면에서나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학은 지역대학보

다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동안 지역사회차원에서 지역의 대학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의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에 배출하고, 지역 발전에 힘을 기울이도록 지방정부가 유도하여 지방대학의 발전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는 산학연관 체제가 구축될 필요성을 지적하는 논의가 일반화되어 있음에 비하여 현실에서는 이러한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상당수의 지역대학이 학과의 신설 등 양적 팽창에 주력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이 외형만 갖추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반대로 지역대학을 발전시켜 지역 사회를 선도할 혁신주체로 육성한다는 점을 간과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역대학이 맞고 있는 위기에 대한 보다 총합적인 지원 및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교육 및 교육여건의 개선만큼이나 우수학생 유치지원 및 졸업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대학과 지자체 및 지역경제 관련 단체와 연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을 살려내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가는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역대학이 대전광역시의 경제·문화 및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역대학 육성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지역화·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인재육성 정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별 인력수급 및 경제발전의 부조화·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인재 개발정책을 추진할 때 개별 지역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구체적 정책 집행시 관련 지역주체 및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지식기반의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육성 없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역의 발전 없이 국가의 발전 또한 있을 수 없으므로, 지역대학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지역 및 국가발전의 필수요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 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대학교육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대학교육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역사회의 대학교육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부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대전시 대학의 현재 위치와 여건을 검토 해 보도록 한다. 또한 교육 수요자인 대학생,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이 어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는 대학에 어떠한 지원과 연계를 해야 하는 지를 수요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 연계 및 협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서 대학교육의 상대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과제,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코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지역교육 발전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의 기본적인 지원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교육 관련 정책 조사를 위한 문헌조사, 기초 현황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검토, 관련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 자료, 대전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개념을 검토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의 이념과 기능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검토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류 등 최근의 변화 추세를 기술하도록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대학자원의 활용, 혁신자원으로써 대학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다음 3장에서는 지역대학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을 집중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중앙정부의 시책 및 그동안의 대학지원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대학협력 시책 검토 및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 장에서는 대전시 소재 대학의 현 실태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하여 어떠한 연계 사업이나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4장에서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대학과의 연계, 협력 상생에 대한 의견 및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요구를 중심으로 의견을 물어 본 후 이를 분석하도록 한다. 우선 대전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학생의 대전광역시 정주의식 및 만족도 내용을 서술토록 하겠으며, 대전광역시의 대학정책지원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중점 과제에 대한 우선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기술토록 한다.

제 5장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지역대학의 효과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토록 한다. 앞선 실태 및 설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학협력” 정책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토록 하겠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내용 및 문헌분석으로 추진 정책 및 사업 내용에 대하여 연차별로 분석한다. 또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토록 한다. 또한 설문조사와 내용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분야별 전략과제 발굴시 반영토록 한다. 전략과제는 장·단기 전략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자문을 진행토록 한다.

또한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학문적 접근보다는 활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제 2 장

---

### 지역과 대학협력에 관한 논의 및 사례 검토

.....  
제1절 개념 및 기존논의 검토

제2절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제3절 지역과 대학협력 국내외 사례검토

.....  
제4절 개념 및 사례검토 시사점



## 제2장 지역과 대학협력방안에 관한 논의 검토

### 제1절 개념 및 기존논의 검토

#### 1. 용어의 정의

##### 1) 지역(사회), 지역대학, 지방정부

본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역사회, 지역대학, 지방정부의 용어 및 개념은 ‘지방’, ‘지역’이라는 의미적 차이로 인해 혼동될 수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도록 한다.

국어사전상의 ‘지방’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지방(地方)은 ① 어느 한 방면의 땅, ② 한 나라의 수도나 대도시 이외의 고장을 지칭한다.

지역(사회)은 ‘각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외부 환경’을 의미하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 해당된다.

지방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의미한다(사전 상 ②의 의미를 가진다)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존재하는 제도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작게는 시, 군, 구에서 넓게는 시, 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사전 상 ①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지역대학이란 대전시라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으로 범위를 좁혀 정의하고, 지방정부는 대전시라는 공공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 2) 연계와 협력

연계와 협력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의 지역 연계는 대학의 지역 협력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정의한다.

### 3) 산학협력

산학협력은 대학교육과 산업 현장간의 괴리를 줄이고, 산업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대학과 산업현장 간 협력을 통해 실업, 인력난, 기술개발 부족 등을 해결하려는 체제를 의미한다.

### 4) 클러스터

최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클러스터는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관,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구 역할을 하는 대학과 연구소, 생산을 하는 기업, 각종 지원을 담당하는 컨설팅 기업 등이 한 군데에 모여 정보 지식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기술, 지식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5) 유형화

어떤 현상의 하위원소들이 서로 비슷하고 공통되는 성질과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공통된 성질을 가진 하위원소끼리 분류하여 그 특성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공통된 특성을 가질 때 이를 묶어 하나로 유형화할 것이다.

## 2. 관련논의 검토

### 1) 일반적 논의 사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여러 주체 중에서 축소하여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하여 연구된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부 선행연구로 아래와 같은 유사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방대학과 지방정부간의 협력방안](운영체, 200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충남대학과 충청남도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발전의 ‘혁신 클러스터’로서 대학은 첫째, 재교육 및 평생교육 센터로의 역할, 둘째,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로의 역할, 셋째,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교과내용과 대학의 특성화이며 충청남도의 역할은 첫째, 행정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산·학·연·관 클러스터의 구성 및 운영, 셋째, 지역인재의 활용에 대한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다음은 [대학과 지역발전] (박영한 외, 2005)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1C 지식사회에서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부상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지역발전과 연관시켜 개념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대학 연구가 활발하고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선진제국의 연구동향과 대학에 관한 연구중점의 변화를 개관하였다. 대학의 위상변화로 교육, 연구 중심에서 공공에 대한 봉사, 즉 사회봉사도 대학의 중요한 기능에 대한 인식의 이론적 탐색을 제시하였으며, 대학의 기능과 지역의 결합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개념과 대학 및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동향으로 지역의 교육요소, 도시계획 및 도시발전 요소, 지역의 혁신요소, 지역의 경제요소로서의 대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동향, 관점 등을 정리하였다.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과 과제] (정재욱, 2004)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 대학의 과제와 역할 증대를 제시하였다. 과제로는 수도권외 집중화로 열악한 지방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설명하고 문제점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방대학과 관련한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기술정책의 집중성이 혼란, 실적과 사업주체가 불명확으로 운영을 둘러싼 갈등발생으로 비효율적인 요소의 증대와 기타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산업과 연관성 부족으로 중복 분산투자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역설하였으며 대학의 역할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학의 기능 중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프로그램, 시설개발, 사회봉사 등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 연구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들이며, 어떤 면에서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입지해 있어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캠퍼스 확장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 등의 맥락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기능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연구 중에 김지은(2010)의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사례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재생에 대한 대안적 접근방식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아웃리치 파트너십 프로그램(Community Outreach Partnerships Center, COPC)을 미국의 도시재생에 대한 변화하는 패러다임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일리노이 주립대학 시카고 캠퍼스의 지역협력프로그램(UICNI: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Neighborhood Initiative)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을 도모한 프로그램은 COPC가 유일한 사례이고 이 프로그램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로 상향식 접근에 의한 대학과 지역사회 간 협력관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학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민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발굴, 제안, 계획하는 지역발전 관계”로 나타난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역협력프로그램(UICNI)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UICNI Community Impact Report)를 분석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주민 수는 2004년 240,238명에서 2008년에는 593,162명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그 숫자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7년에는 약 818,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 연구결과로부터 한국형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과 이를 통한 지역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7년에 류연택·정희선(2007)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 시각은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봉사자로서 갖는 기능을 토대로 한 접근방식으로 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설개방, 재학생 자원봉사 등과 같은 대학의 사회봉사 역할(안영진, 2007; 한상훈, 2001)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류진석(2007)의 연구는 지역복지 및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지역대학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이 Amenity 또는 Service delivery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

### **3)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 등에 관한 연구**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체가 계획의 주체가 되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이나 서비스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드물다.

일본의 대학 입지정책에 관한 사례 등을 통해서 입지정책 실행 과정 중에 또는 그 후의 단계에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호주체가 되어 직접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적절한 사례 정도가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 손승호(2007)의 연구는 부분적으로 일본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사례들을 찾아 연구하려고 하였다.

홍형득(2010)의 연구도 럿거스 대학의 과학기술지식 생산 및 흐름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면서 첨단산업단지 등 연구시설투자와 관련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다(홍형득, 2010:327).

대학의 연구시설투자로 인한 사회의 첨단산업단지 건립 등 테크노파크 조성 과정에서의 협력방식, 상호관계 등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이성근, 1996).

### **4)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을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정도로 분석한 연구**

안영진(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독일 대학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독일의 각 대중소 도시에 위치한 대학들이 그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재지에 어떠한 영향들을 끼쳤는지 주로 독일에서 산출된 통계 또는 지역생산성 관련 데이터 자료를 검토하여 경제적 영향의 정도를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의 고용인, 대학생, 관련자들의 각종 지출이 지역에 소득과 고용과 관련하여 얼마만한 파급효과를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김형주(2005)의 연구도 미국 지역대학과 기업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IT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김정민(2010)은 목포대학이 목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로 목포대학의 교수들이 지역사회의 혁신연구, 공식회의 등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적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특정 대학의 교원(교수, 학생, 교직원 등)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했는가 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한 지역대학에 그 연구의 대상이 한정되어 수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 5) 대학의 연구기능이 지역사회(민간기업)에 미친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이 분야의 연구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기중, 박병무 (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권역별 주요 우수대학에게 지원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그 일부인 산학협동 연구비 자료를 분석해서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분야 협력관계를 검토하였고, 권역별 선도산업의 상대적 부합성을 비교하여 지역적 특성마다 크게 다른 산학협력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지역의 특화 산업에 따른 지역대학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달리하여 각각의 지역사회마다 지역의 특정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이에 속하고 있다. 대전시의 지역발전정책을 정할 때 기초연구자료들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 6) 대학의 입지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이용환 외 (2008)의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인프라를 확충에 대학의 설립 또는 유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도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역에 유치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이전 등의 정책을 포함하여 이전 희망 대학 및 기존 대학들의 지원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법적 근거와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 유치 및 육성이 광역 차원의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에 왜 필요한지 등 다각도로 분석을 하였고, 일본 등 외국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가 전형적으로 대학의 입지결정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폭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례가 된다. 논의 내용 중에는 대학 유치에 필요한 대내외적 여건의 분석, 경기도에 맞는 대학유치 방식 및 지원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 7) 대학의 교육 기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문남철(2010)은 대학졸업자에 초점을 두고 대학이 지역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학위 수여에 따른 지식과 기술을 전하고,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지역대학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경제활동, 교육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역대학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소속 지역의 인적 자산이 되는 대학 졸업자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만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해결책이 깊이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제2절 연구방향 정립을 위한 개념 검토

### 1. 지역대학의 의의

지역사회에서 대학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대학의 역할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 대학의 의미는 대학의 존재의의를 밝히는 문제이다. 지역대학의 존재가 지역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대학은 다양한 학문과 전공이 공존하는 하나의 소우주이다. 소우주 속에서 다양한 전공교수들과 학생들에 의하여 다양한 지식들이 자유롭게 비판되고 검증된다. 따라서 대학의 존재의의는 여러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에서 대학의 존재의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의 대학은 고등교육이라는 고급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국가가 그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지금까지 엘리트교육체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소수의 지적 능력과 재원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였다. 따라서 대학 교육은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는 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대학에 접근하여 이를 발판으로 사회적 신분상승에 보다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대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지식산업체로서 의의를 갖는다. 21세기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지식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이 존재하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을 위해서 최대의 축복이다. 21세기 글로벌시대, 정보화시대는 지식과 기술경쟁의 시대이다. 그리고 미래의 지식과 기술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고기능화 된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대학이야말로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가 된다. 이와 함께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은 대학자체의 소득증대 기능이다.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들 인적자원들은 최고의 과학과 기술을 지닌 인력들이므로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더욱이 지식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이 될 것이므로 대학이야말로 미래의 최첨단산업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인 집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식사회에서 지식인은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파워센터이기도 한다. 앞으로 지식사회에서 대학의 참여공간은 무한히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학의 목소리는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양심의 소리로 호소력을 갖게 된다. 대학의 본질은 실험정신과 비판정신에 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참여공간이 확대되면 실험정신과 비판정신이 지역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이는 바로 지역사회를 이성의 통제 하에 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성은 항상 진리와 정의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지역사회를 정의와 합의의 공동체로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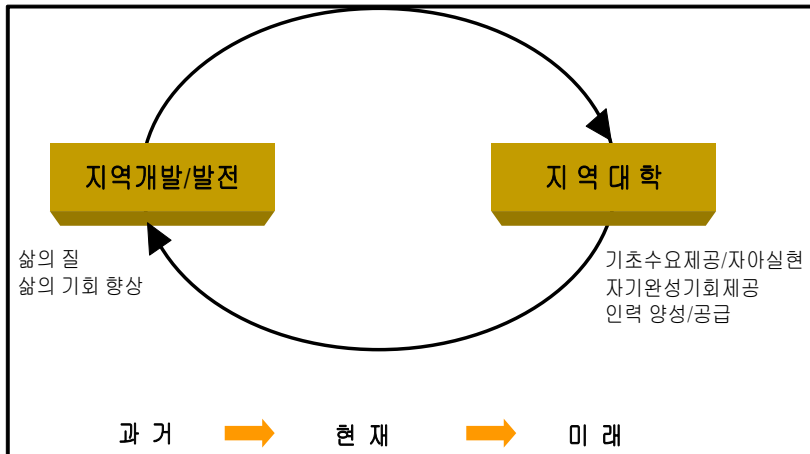
넷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의 훈련장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지역대학에는 지역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대학의 모든 교육활동과 자치활동들은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의 의사결정구조, 각종의 선거행위, 학생들의 자치활동 등은 바로 지방정부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여타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교육은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은 민주주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주주의 실험은 바로 지역사회로 파급된다. 이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민주주의 생활양식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지역대학의 존재의의는 지역문화를 젊고 건강하게 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지역에서 대학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식과 기술은 타 지역 대학으로부터 빌려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문화적인 측면에서 타 지역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시대에 독특한 지역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 대학은 속성상 늘 새롭고 젊은 문화를 창조한다. 대학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사상적 다원주의에 의해 비판되고 검증되므로 질적으로 건강하고 창조적이다. 21세기는 지식의 시대, 문화의 시대이므로 대학의 존재야말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

천이다. 과거에는 종교가 문화를 창조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대학이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2.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지역개발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총체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지역개발의 목표를 이처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볼 때 지역개발과 대학교육은 그 목적과 수단의 순환적 상호의존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개발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자체가 지역개발의 한 구성부분으로 대학교육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며 개발의 주체와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 -1] 지역개발과 교육의 순환적 의존 관계

이러한 인력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은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고교 등을 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학교육은 특히 완결적인 기능이 높다고 볼 때 대학교육과 지역개발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요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대학의 사회개방,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 등은 대학과 지역개발간의 상호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지위상승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대도시 대학의 선호문제는 인구의 지방정착이나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은 외지학생의 유입에 의한 지역소득증대로 발전 지향적 수출산업이 되고, 주민의 기초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지역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의미와 역할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 3. 지역대학의 기본적 기능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본적 기능으로는 첫째, 대학은 지역민들에게 대학 시설을 개방하여 사회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 문화행사를 주관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다.

둘째, 대학은 기업체의 요청으로 위탁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고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경영전략을 컨설팅 한다든지 경영상담을 행할 수 있으며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로, 정부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 기능을 대신하여 직원을 장기간 위탁교육을 한다든가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와 행정정보에 자료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 -1> 지역대학의 기본적 기능**

구분	대지역민 편의 제공	대기업 편의·협력	지방정부 협력
교육	- 공개강좌 - 사회인 학교수용 - 시설 개방	- 수탁학생 - 강사파견 - 기업내 교육수탁	- 직원연수 - 인력공급
연구	- 지역과 공동연구 - 지역문제 연구	- 공동연구 - 수탁연구 - 벤처	- 지역개발의 조사연구
정보제공	- 교육정보의 데이터뱅크 - 학습상담	- 산업정보 데이터뱅크 - 기술 및 경영상담	- 지역정보와 행정 - 정보의 데이터 뱅크
사업기획	- 지역사업기획 지원 - 지역네트워킹 지원	- 경영전략 컨설팅	- 시책업무 지원 - 각종 컨벤션 지원

## 4.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역대학의 효과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러한 다양한 효과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대학이 지닌 ① 인적자원공급, ② 교육기회공급, ③ 사회적서비스, ④ 지역문제의 진단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대학은 대학이 지니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지식과 정보기술을 제공하거나, 대학의 여러 시설들을 지역에 개방하고 있다.

대학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대학은 축적된 전문성과 기술·정보를 산·학·연이나 지역의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 참여, 공개강좌 등을 통하여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면, 그 정보와 기술의 샘을 보고 목마른 기업이 찾아오고 그 기업들에서 창출된 이익이 다시 지역과 대학으로 흘러 들어오는 순환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들 수 있다. 각종 전시회·연주회·발표회의 지역순회개최, 각종 공개강좌, 도서관 개방, 지역정보관리·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여도 역시 점차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농촌봉사활동 외에도 고아원·양로원 등의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 야간학교 교사 등의 봉사활동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

### 2) 인적자원의 양성·공급

인적자원이란 특정한 사회구성원의 지식, 기능 기타 모든 능력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이 바로 인적자원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공급은 첫째,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공헌하며, 기술의 발전·보급으



로 지역산업의 기반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물량적 기여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주민의 사회·정치·의식구조를 변화시켜 공동체의식과 발전지향적 의식을 향상시키고, 사회규범을 준수케 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충원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능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기능으로서 교육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각 개인을 적절히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대학은 지역사회의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성장과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람의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을 촉진하는 사회이동 촉진기능을 가진다. 넷째, 인적자원의 양성과정에서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고용과 교직원 및 학생의 소비활동으로 지역소득증대효과를 주는데 이것은 직접소득효과, 간접소득효과, 유도소득효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소득효과는 지역주민의 고용이나, 대학의 지역입지에 따른 막대한 교육비의 지역 외로의 유출방지에서 나타난다. 간접소득효과로는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역의 새로운 주민이 되어 이들의 소비지출과정이나,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새로 지역에 투자하는 데서 나타난다. 특히 대학 주변지역에서는 이러한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도소득효과는 앞의 직접소득과 간접소득이 지역주민들의 소비과정에서 다시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인적자원의 양성과정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간의 활발한 상호교류성이라는 지역성장의 동인을 확보할 수도 있다. 지역활성화는 지역민의 연령구조와 교육정도와의 깊은 관계가 있다.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청장년층의 지역유입은 지역의 전반적인 활력성과 변화를 창조하고 변화에 능히 대응하는 기업가 정신을 부추기는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는 타 지역으로부터 학생·교직원들의 유입을 증가시켜 타 지역과의 상호교류를 증대시켜 지역의 성장·발전을 부추길 수 있다. 지역도 하나의 유기체인 만큼 고립된 유기체는 무력하고 창조성이 결여되어 그 자체의 성장을 부추기는 에너지 생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 3) 평생교육기회의 제공

대학은 지역주민에게 대학진학기회를 제공함을 물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을 개발할 때 성취되어야 할 가치 중에서 핵심적인 가치는 삶의 질과 삶의 기회를 높이는 것과 자기완성·자아실현에 관한 것들인데 이중에서도 궁극적인 것은 모든 개인의 자기완성이다. 이러한 가치실현에는 교육, 특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교육은 지역의 핵심적인 기초수요의 하나이다.

지역사회가 아무리 발전된 상태라 하더라도 대학교육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수요의 하나이며 삶의 질을 구성한다. 지역의 핵심적인 기초수요인 대학교육의 기회제공이 지역별로 균등하지 못하면 인구이동을 촉진시켜 지역 간 격차를 노출시킬 수 있다. 즉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얻기 위한 인적자원이 이동함으로써 집중된 지역이든 이출지역이든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각 지역에서 고등교육기회가 어느 정도 균등화되면 인적자원의 교육수준 및 기능정도의 지역간 상이성이 어느 정도 시정되고, 따라서 균등화된 교육수준은 소득 면에서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타 지역과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게 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최근의 달라진 교육환경에서는 대학이 열린 대학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을 요구받고 있다. 대학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 4) 지역문제의 진단·처방

대학은 지역의 과제, 문제 등을 대학의 교육·연구·봉사 등에 반영시켜 교육과 지역의 가치를 형성,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학교육은 단순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고전적 통념을 넘어서서 사회자체의 존속과 개발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단순히 인력을 양성·배출하는데 머물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혁신기능을 수행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적 통

합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대학은 지역의 문제와 과제를 대학의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지역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공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5.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

### 1) 의식개혁의 주체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상호지원과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의식개혁의 문제로 지역민이나 지방정부는 장소적 의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리적 거리가 소멸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방이란 개념은 중앙과 반대되는 ‘저개발 또는 변방’의 대명사가 아니라, 자율과 창의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유산들이 잘 보존된 특색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 2)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방대학과 지방정부 및 지역기업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기업들과 지금까지보다 긴밀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은 열린 대학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대학이란 대학교육의 시·공간적 확장과 함께 기능적 확장 그리고 장소적 확장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열린 대학의 대학교육은 ①정규의 대학교육을 학외자에게 개방하는 시·공간적 확장, ②대학이 지닌 교육자원을 학외자의 요구에 적합하게 재편성해서 개방하는 기능적 확장, ③대학의 공간을 개방하는 것과 대학 이외의 사회로 대학공간을 확장하는 장소적 확장으로 되어야 한다.

### 3) 지역인재 개발시스템 구축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많은 지방대학에서 이 같은 인재개발 시스템이 개발되지도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인재들이 지방대학에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지방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인재들을 다양한 네트워크와 함께 창의적 사고를 통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 제3절 지역과 대학협력 국내외 사례검토

지역 발전과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 대학의 역할이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늘날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역과 지역 대학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양성, 지역의 사회·문화 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대학과의 다양한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 중 일본, 미국, 유럽과 서울, 대구, 인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1. 지역과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국외사례

#### 1) 일본

초기의 일본 대학들은 사회의 보호와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며, 지역 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이명훈, 2011). 그러나 일본 사회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지방인재 유출과 지역 사회 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과 지역대학 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1세기의 일본은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역 대학 간의 연계·협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였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과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였다. 그리고 2013년 부터는 문부과학성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Center of Community(COC)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OC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을 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채택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대상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 사회 공

현활동이다. 초기의 COC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의 연계만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현재에는 지자체, 대학, 중소기업, NPO 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지역과 지역대학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도쿄, 교토,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일본 내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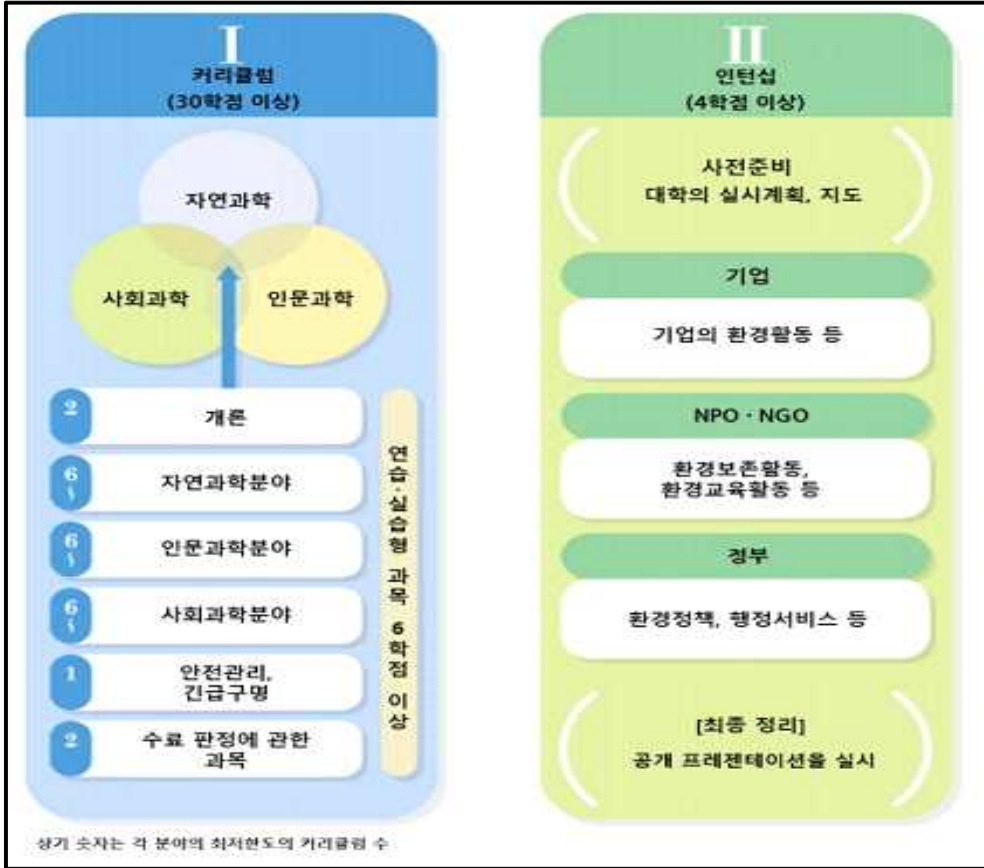
### (1) 도쿄도(東京都)의 사례<sup>1)</sup>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도쿄에는 동경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등 다양한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도쿄의 메이지 대, 니혼대 등 대학이 몰려있는 캠퍼스 타운에선 2005년부터 지역발전 평의회가 발족되어 조화로운 대학의 개혁과 지역의 발전이 실천되고 있다. 와세다 대학의 경우 사회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기업과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와세다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연계 사업으로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술·문화·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나라프로젝트’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학·수학사랑 실험 교실’ 등이 있다.

이 밖에 도쿄도는 지역사회, 지역대학, 기업의 연계를 위해 ‘ECO-TOP 프로그램’과 ‘도쿄도 지적재산활용 제품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ECO-TOP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도쿄도, 대학, 기업, NPO 등이 협력하여 자연환경 분야에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ECO-TOP 프로그램에서 지역대학은 자연환경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프로그램의 적합성은 인정 심사회에서 도쿄 도지사가 인증을 해준다. 이렇게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기업과 NPO에서 인턴십을 수료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대학, 기업, NPO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합하고, 현장 능력을 갖춘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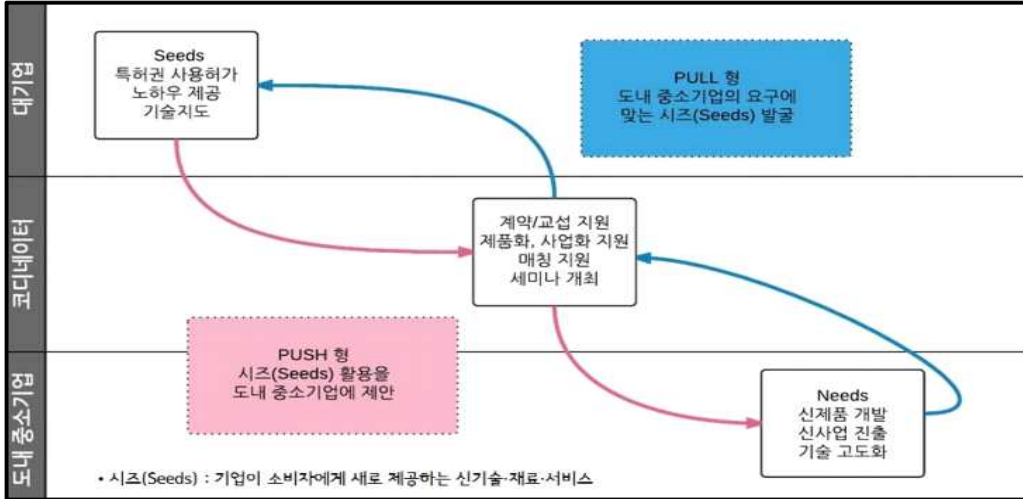
1) 세계도시동향 368, 374호와 대학교육 170호, 190호, 와세다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II -2] ECO-TOP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구성도**

자료: 서울연구원(2016), 「세계도시동향」, 제 374호.

두 번째로 ‘도쿄도 지적재산활용 제품화 지원사업’은 대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요 활용분야는 로봇, 3D프린터, CG 등과 같이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사업들이다. 지원 사업에서 도쿄도는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하여 특허를 제공하는 대학과 기업을 선별하고, 설명회를 통해 제공기업과 수여기업을 연결하여 준다. 그리고 연결된 기업 간의 특허계약, 기술이전, 사업화, 판로개척을 도쿄도 차원에서 지원해준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도쿄도에 있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연결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림 II -3] 지적재산 활용 제품화 지원사업의 개요

자료: 서울연구원(2016), 「세계도시동향」, 제 368호.

이처럼 도쿄도는 ‘지역사회 기여’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연계협력 모델과 사업을 개발/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 (2) 교토시(京都市)의 사례2)

일본의 교토지역은 고도(古都)로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벤처기업들과 다수의 대학들이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교토지역의 특성으로 교토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계·협력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활용한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과 지역 산업과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적 클러스터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으로 교토시는 2004년부터 재단법인 ‘대학·컨소시엄 교토’와 함께 ‘대학·마을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교토시에서 지역과 대학이 연계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의 선정은 교토 지역에서 열리는 활동 중 교토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지역과 대학생 그룹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

2) 세계도시동향 364, 370호와 민철구 외(2011)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졌다. 선정된 사업은 최대 280만 원을 보조받았으며, 2014년에는 15개, 2015년에는 14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의 기록을 지적재산권으로 보존하는 ‘후시미·후카쿠사 커뮤니티 아카이브’, 지역 관광 명소에 대학생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아라시야마 아트 프로젝트’, 지역 대학생들이 상가지역과 주택가의 빛을 활용하여 마을의 특색을 살리는 ‘도시 라이트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교토시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발전과 함께 지역문화를 보존해나갈 수 있다.



**[그림 II -4] 교토시의 대학마을 연계사업**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세계도시동향」, 제 364호.

두 번째로 지적 클러스터 사업을 살펴보면, 교토대학 근처에 설립된 사이언스 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 기업이 교토 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토 체제 시스템 속에서 각 주체들은 연구개발단계, 매칭마케팅 단계, 연구개발 성과 단계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분야에 있어 도쿄시는 ‘교토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창조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한 에너지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 창조전략의 목적은 연구 단계부터 사업화 추진까지 지역, 대학, 기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부터 사업화의 단계까지 연결 플랫폼을 형성하고, 연구의 실용화를 위해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단계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이처럼 교토시는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 대학, 기업이 결합한 교토 체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적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발전과 산업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 (3) 요코하마시(横浜市)의 사례3)

요코하마시는 대학이 가진 지적 자원, 인재를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대학·도시 파트너십 협의회’를 2005년에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행정, 대학, 기업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협의회에는 요코하마시의 시장 및 행정실무자, 관내 구청장들과 시 소재 30개 대학이 참여한다. 그리고 협의회는 연 1회 개최되어 각 대표자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안전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러한 협의회 이외에도 요코하마시는 2005년부터 정책국 내에 ‘대학 조정과’를 설치하여, 대학 제휴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대학이 함께하는 요코하마 대학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조정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과 대학 간 연결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이 연결되는 거리’라는 주제로 지역과 각 대학의 연결망과 대학의 지역 공헌을 보여주는 지도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림 II -5] 요코하마시 ‘대학과 지역이 연결되는 거리’

자료: 요코하마시 홈페이지(<http://www.city.yokohama.lg.jp/>)

3) 이명훈(2011)과 이태희, 박소은, 김태현(2016), 요코하마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그리고 요코하마시에서는 시청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도 연계·협력을 위한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있다. 예를 들어 요코하마 시립대학의 경우 ‘지역공헌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협력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전담조직의 설치 는 지역과 대학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 시킴과 동시에 사업의 진행에 있어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요코하마시의 주요 협력 사례로는 ‘공간·시설 자원을 활용한 협력사업’과 ‘지식·인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사업’이 있다. 우선 공간·시설 자원을 활용한 협력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요코하마시는 나미끼와 칸나이에 위성 거점을 개설하였으며, 이 거점은 지역 공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나미끼 거점은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공간이며, 칸나이 거점은 도시 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공간이다. 거점은 단순한 조사·연구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지역 주민이 제안·기획한 이벤트와 세미나가 열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들이 실시된다. 이러한 지역 거점은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의 자체적인 활동과 만남을 제공해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거점 개설이외에 대학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 대학의 연계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지식·인적 자원을 활용한 협력 사업은 평생 교육 및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제공,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강좌, 지역에 관한 연구 및 수업, 캠퍼스타운 형성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캠퍼스 형성 사업은 지역 구청이 주도하여 ‘대학이 있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 시설 등을 제공해주고, 대학생들의 행동력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요코하마시는 지역과 대학이 거버넌스 체제를 이뤄 도시 재생, 지역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연계·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협력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위해 ‘공간’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 및 사업 추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 2) 미국의 사례

미국 사회에서 대학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산업 혁신, 지역 소득 증대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은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 사회 기여 측면에서도 자원봉사활동, 문화예술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대학과 지역 사회의 발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 발전, 인력 양성, 지역 사회·문화·예술 발전 등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하버드 대학,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의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 (1)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sup>4)</sup>

하버드 대학은 매사추세츠 주정부에 속한 보스턴 지역의 5개 카운티가 연결된 보스턴 대도시권에 위치해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금융채정, 의료, 대학 교육과 컨설팅 등이 주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보스턴 지역에 대학과 소속 연구기관 건물이 산재해 있다. 하버드 대학의 보스턴 지역에 대한 기여는 크게 교육 기능, 서비스 전달 기능, 연구 기능으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교육 기능을 살펴보면, 하버드 대학은 보스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교육, 열린교육, 평생교육과 함께 환경, 컴퓨터, 바이오 분야 등에 있어 응용교육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줌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전달 기능을 살펴보면, 하버드 대학은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 등 다양한 자원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보스턴 지역 내 저소득 층이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에서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기능을 살펴보면, 하버드 대학은 각 연구소들을 통해 보스턴 지역에 위치한 기업과 비영리 연구기관들과 산업협력을 맺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이는 지역의 유용한 경제적 자원으로 축적된다. 하버드 대학과 지역 연구 기관의 연계·협력으로

---

4) 박노동(2012)를 참고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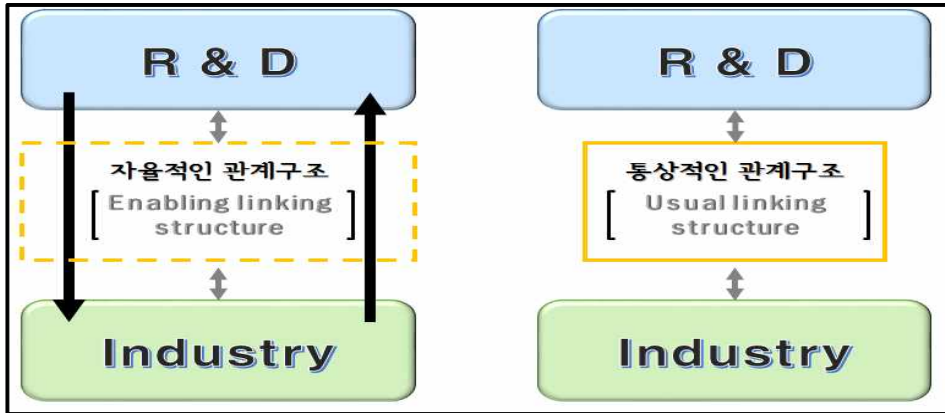
보스턴 지역은 유전자 분야, 뇌신경과학, 나노 기술 등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하버드 대학은 지역과의 다양한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 사회·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Diego: UCSD)<sup>5)</sup>**

UCSD는 첨단유망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85년도에 USCD CONNECT(이하 CONNECT)를 비영리 자립조직으로 설립하였다. CONNECT에는 생명과학분야,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과 협회 등이 멤버로 가입했으며, 이들은 자문 위원회와 T/F 등으로 운영되었다. CONNECT는 주정부와 대학의 재정지원 없이 멤버십 회비, 출연금, 기업 자문료 등으로 운영되었으며, 샌디에고 지역의 바이오, 정보통신 분야의 클러스터 형성·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CONNECT는 통상적인 산학협력기과 달리 다학과 기업 간 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협력이 이뤄지면 개입하지 않는 유연한 구조를 가졌다. 그리고 ‘Know-how’ 와 ‘Know-Who’ 를 바탕으로 연구자, 기업가, 투자자,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지자체를 “사람-기술-자금” 이라는 틀 속에서 상호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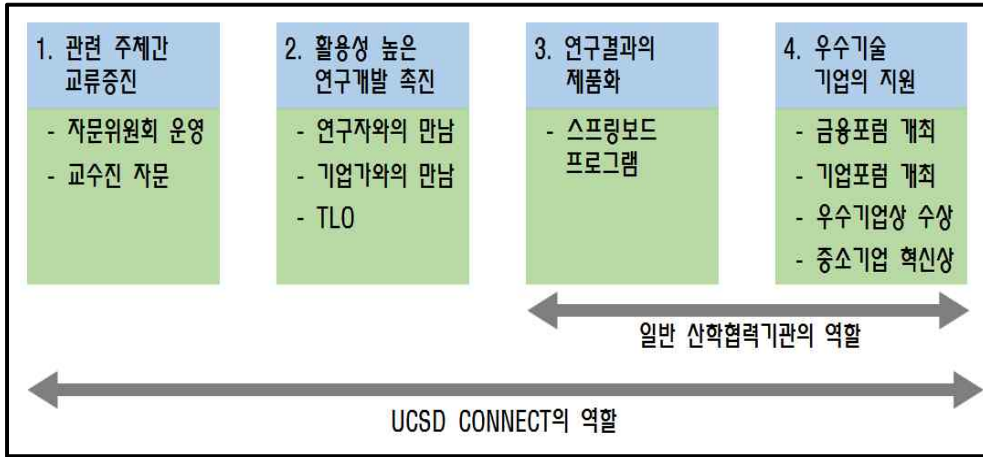


**[그림 II -6] UCSD CONNECT와 일반산학협력기관의 차이**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자료를 참고하여 제작성함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를 참고하여 작성함

그리고 CONNECT는 활용성 높은 연구 개발 촉진, 산학협력 주체 간 교류 증진, 연구 결과의 사업화 등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산업화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산학 협력기관의 경우 연구 결과의 사업화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CONNECT는 지역, 대학, 기업을 포함한 협력 주체 간 교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중개기능을 담당한다.



**[그림 II -7] USCD CONNECT와 일반산학협력기관의 차이**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우선 CONNECT의 다양한 역할 중 산학협력 주체 간 교류증진을 살펴보면, CONNECT는 연구자, 기업가, 공무원 사이의 대화를 촉진시켜, 협력 주체 간 파트너십을 증진시킨다. 관련 주체 간 교류 형성에 있어 참여 주체들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며, 참여 주체들 간의 입장 차이에서 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을 실시하고, 공동이해를 추구한다. 두 번째로 활용성이 높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CONNECT는 “연구자와의 만남” 프로그램과 “기업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구자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기업 관계자가 연구자와 2~3일 간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은 기술 사업화의 어려움을 연구자들에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그 밖에 대학주도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프링보드(Springboard)’ 프로그램과 우수기술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UCSD는 CONNECT라는 비영리 자립조직을 설립하여, 지역, 대학,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 사업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CONNECT는 2015년 창립 30주년을 맞았으며, 지역의 연계협력 발전을 위한 주요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 3) 유럽

유럽에서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연계 협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유럽에서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지역연계협력’이 나타나고 있다(변원정, 성정희, 2013). 지역연계협력은 단순한 연계협력을 넘어 지역의 이해관계, 지역에 맞는 연구 개발, 지역 구성원(기업, 연구기관, 주민)들 간의 포괄적인 연계협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연계협력은 지역의 필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로 DESD이외에 유럽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지역 경쟁력 향상, 지역 인재 양성, 혁신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지역과 대학 간의 다양한 연계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다양한 연계·협력 사례들 중 핀란드의 울루시, 스웨덴의 시스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 (1)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폴리스<sup>6)</sup>

핀란드의 울루시는 수도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울루시는 현재 IT산업과 의료산업 중심지이며, ‘울루 테크노폴리스’가 형성되어 있다. 울루 테크노폴리스는 1970~80년대를 걸쳐 지역정부의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조직되었으며, 울루시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 유한회사 Technopolis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echnopolis사는 단순히 산업단지의 관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한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제반서비스와 기업과 지역간 소통 및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Technopolis사는 연구소, 대학, 동종 기업, 공적 투자 등을 결합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

6) 이현우(2014)와 이노시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Technopolis사 이외에 울루 테크노폴리스에는 시정부, 대기업, 대학, 병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울루시와 울루지역개발청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울루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참여주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루대학의 경우 지역에 위치한 연구소와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다. 특히 울루대학 공대의 경우 고급인력 공급이외에 기업과의 직접적 교류협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울루 테크노폴리스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 중 노키아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울루에서 노키아라는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네트워크를 유지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울루 테크노폴리스는 울루시의 경쟁력 향상, 고용 창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울루테크노 폴리스의 성공요인은 울루시가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과 단순 수직적인 협조체계가 아닌 참여 구성원 간의 수평·수직적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구성 주체 간 정보, 인력의 유동성이 자유로워 서로의 강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밖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노카페’ 라는 소통의 공간 속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점이 울루대학이라는 지역대학이 존재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에 필요한 기술개발, 연구가 가능했다는 점이 있다.

## (2)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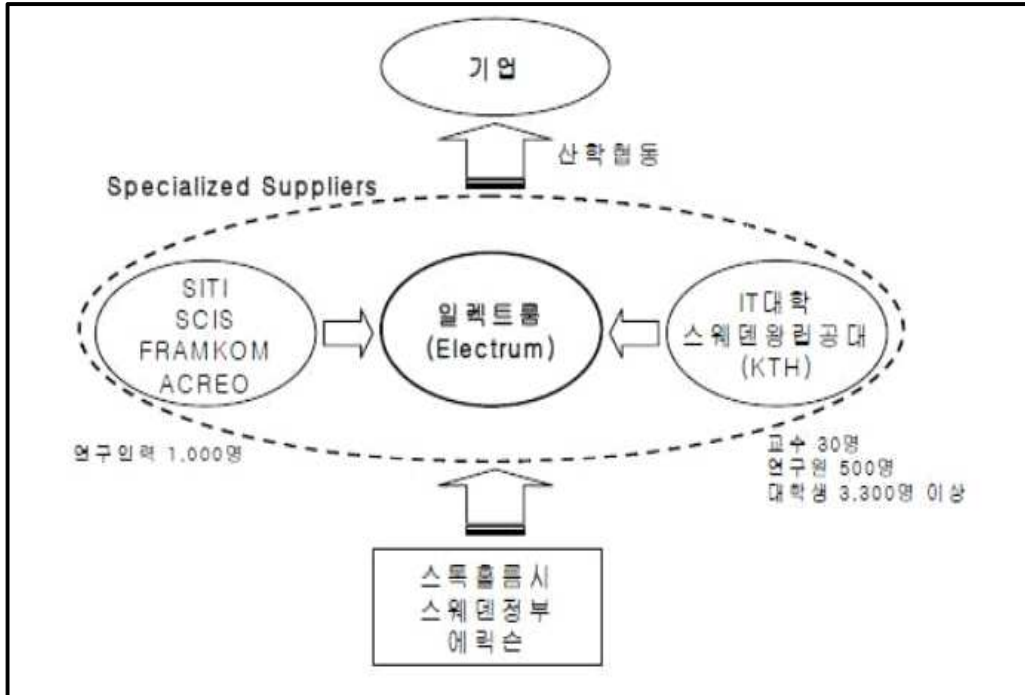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시에서 북서쪽 2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스웨덴에서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산업 지구이며, 세계에서는 실리콘 벨리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IT 클러스터이다. 이러한 시스타 지역은 1970~1980년대를 걸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시스타에는 대학, 정부기관, 대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톡홀름대학과 스웨덴 왕립공대는 공동으로 IT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

7) 이현우(2014)와 이노시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대학은 시스타 지역에서 기술 개발, 연구와 인재양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효율적인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IT 센터인 일렉트룸을 설립하였으며, 일렉트룸은 중앙·지역 정부, 대학,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창구의 기능과 창업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8] 일렉트룸을 중심으로한 산학연 협력체계**

자료: 이현우(2014). 『북유럽의 주요 ICT 혁신 클러스터 분석』

시스타의 성공요인으로는 우선 중앙·지역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했다는 점과 에릭슨이라는 기술력을 갖춘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안정적인 산업체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스톡홀름시는 단순한 지원에서 더 나아가 시스타 지역이 갖는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스톡홀름 시에 위치한 지역 대학 왕립공과대학과 스톡홀름대학은 정보통신 부분을 특성화하여 시스타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고, 기업과 연구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 2. 지역과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국내사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역과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14개 시·도의 협의 하에 “대학-산업-인재가 상생하는 창조지역구축”을 목적으로 제 1차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본 계획에서 강조되었던 점은 지역 대학의 특성화, 지역의 글로벌화, 지역과 대학의 연계화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화, 글로벌화, 연계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과 국내 사례들 중 서울, 대구,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1) 서울시 사례

서울에는 우리나라 일반대학의 22.4%(56개교), 전문대학 6.6%(11개교)가 위치해 있으며, 특히 종로구, 서대문구, 노원구, 신촌 등에 많은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이지만, 그동안 서울에서 대학이 지자체 도시계획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연계·협력의 흐름 속에서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시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지역대학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KU개척마을 파이빌( $\pi$ -Ville)’과 서울 서대문구의 이화여대 연계사업, 신촌 도시 재생 등이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1) 고려대학교 ‘KU개척마을 파이빌( $\pi$ -Ville)’ 사례<sup>8)</sup>

서울시는 고려대학교 앞에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고, 고려대학교는 ‘KU개척마을 파이빌( $\pi$ -Ville)’이라는 공간을 형성하였다. 파이빌은 새로운 혁신과 가치 실현,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파이빌은 공모전 방식으로 재능 있는 학생의 아이디어를 자체프로젝트로 구성하였으며, 자체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지역 산업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진행되

8) KU스토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었다. 그리고 파이빌은 자체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에서 나아가 초기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가 상주하여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일환으로 파이빌에서 기획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차 없는 참살이길 만들기 프로젝트’, ‘파이빌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 ‘안암동 상권에 공유 경제화 프로젝트’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는 2017년에 ‘파이빌 148’, ‘파이빌 22’ 를 추가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새롭게 건립 될 파이빌은 이름에 지역 도로 명 주소번호를 적음으로써 지역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파이빌은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작업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사회와 소통하는 네트워크 공간이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창업 지원 등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그림 II -9] 고려대학교 ‘파이빌( $\pi$ -Ville)’의 전경**

자료: KU스토리 홈페이지(<http://www.korea.ac.kr/kustory>) 검색일 2016. 10. 25

이와 같이 서울시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재생을 위해 지역 대학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캠퍼스 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캠퍼스 타운은 대학생의 생활을 ‘캠퍼스 안’에서 ‘지역 사회’로 확장시켜줄 수 있으며, 지역 재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 그리고 캠퍼스 타운 속 고려대의 파이빌과 같은 공간은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대학생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 (2) 서울 서대문구의 지역대학 연계·협력 사례<sup>9)</sup>

서울 서대문구는 대학-지역 연계 사업이 가장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 서대문구는 지역대학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대문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지역 연계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평생학습센터’, ‘신촌의 도시재생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활성화 사업’이 있다.

우선 평생학습센터를 살펴보면, 서대문구는 ‘미래형 대학연계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학습 문화 조성’과 ‘함께 살아가는 교육 복지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열린 시민대학’, ‘여성리더십아카데미’, ‘성인문해 교육지원’, ‘특성화프로그램 및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지자체 차원에서 공급해주는 것이 아닌 지역대학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대학의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 다양한 지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은 보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미래형 대학연계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대문구의 평생학습 센터는 단순히 평생학습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대학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신촌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신촌지역은 연세대, 이화 여대 등 서울의 여러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는 ‘대학 문화의 거리’이자 오랜 세월의 추억이 축적된 ‘기억이 있는 대학로’였다. 그러나 최근 신촌 지역은 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건축물이 79.4% 되는 등 지역 사회가 침체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

9)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보도자료(2014.12.27.)를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II -10] 신촌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014). “생활권단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5곳 첫 선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서대문구는 ‘열리는 신촌, 공공 대학 문화촌 만들기’ 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대학과 지역의 공유-공생 프로젝트’ 를 시작하였다. 도시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문화·주거·상업 통합재생 실현’ 이었으며, 사업은 ① 열려라 캠퍼스 축제 지원사업, ② 학생과 주민이 공생하는 신촌하우스 조성사업, ③ 젊은 에너지를 생산·공유하는 대학가 만들기, ④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공공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II -11] 신촌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014). “생활권단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5곳 첫 선정”

다양한 신촌 도시재생 사업들 중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의 연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은 ‘신촌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대학-지역연계 수업사업’이다. 대학-신촌연계 수업사업은 대학의 학기에 맞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 진행되며, 학기 내 정규강의(학점인정) 중 신촌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연계 운영하고 자 하는 관내 대학 교수들이 사업에 공모를 하면,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 지원 가능한 수업 연구·활동주제는 신촌 도시재생사업지역 문제해결, 신촌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특색 발굴 및 정체성 확립,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성 모색 등이다.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총 9개학과에 최대 250만원 씩 총 1,749만원이 지원 되었다.

**<표 II -2> 2016년 하반기 신촌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대학-지역연계 수업 공모 결과**

대학	학과	강의명	지원액
경기대	연기학과	연극교재연구: 도시이야기 퍼포먼스 개발	2,000
	애니메이션영상학과	인터랙티브 영상 II	1,830
연세대	건축공학과	건축설계 4	2,000
	언론홍보영상학부 도시공학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커뮤니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2,000 2,000
이화여대	문화예술행정	문화특구와 도시재생프로그램	2,000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광고 크리에이티브	2,000
	섬유예술전공	침단지하도시 - Neo Agora	1,830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지역문화계획 및 관리	1,830
계		9개 수업	1,749

자료: 서울 서대문구청 내부자료(2016)

그리고 서대문구는 대학-신촌연계 수업사업을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역 주민, 지역상인의 현장경험을 공유하여 ‘신촌 도시재생 활성화’ 모색할 수 있는 ‘대학-신촌 지역연계수업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타운홀미팅은 대학-신촌연계 수업사업이 단순히 캠퍼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서대문구는 지역대학을 도시개발의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여,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다.

## 2) 대구시 사례<sup>10)</sup>

2014년까지 대구시와 지역대학 간의 긴밀한 연계는 나타나지 않았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의 단순한 행사지원을 하는 수준의 지원제도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 지역 내 입학정원의 감소와, 지역사회 침체 등의 위기가 나타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연계·협력방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에 ‘대구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의 조례안은 시행계획,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지역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를 바탕으로 ‘대구시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에는 지자체,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5년 이후 대구시에서는 대학·대학생과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부족했던 대학 지원 사업을 인턴십 프로그램(국내 인턴십, 해외 인턴십)과 신용불량자 방지를 위한 금융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향후 지역대학과 지역인재를 위한 지원으로 타 지역 대학생과의 교류,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 지원, 대학생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면접 비용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사업들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아카데미(이하 인재 육성 아카데미)’ 사업이 있다. 대구시는 청년 고용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맞춤형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인재 육성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대구시는 전반적인 운영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경북대와 계명대는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역량 강화 수업을 제공해준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6년 전국 지자체일자리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

10)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그 밖에 대구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 사업 이외에 지역대학 역시도 지역사회 발전과 기여를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남대학교는 ‘북 콘서트’, ‘천마스콜레 고전 토론 캠프’ 등을 개최하였으며, 대구 대학교는 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6-3-3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계명대는 지역 초등학생에게 경제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수성대는 지역 특성화고 교사를 대상으로 국가직 무능력표준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지역대학들과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다양한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 지역의 연계·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구시는 2015년에 들어서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의 긴밀하고 다양한 연계·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계·협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협력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런 협력사업으로 지역 사회가 발전함과 동시에 지역 인재들이 육성되고 있으며, 지역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의 지자체, 지역사회, 지역대학 연계·협력의 기초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시정 내에 지자체와 지역대학 연계 협력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협의회 내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7년 새로운 연계·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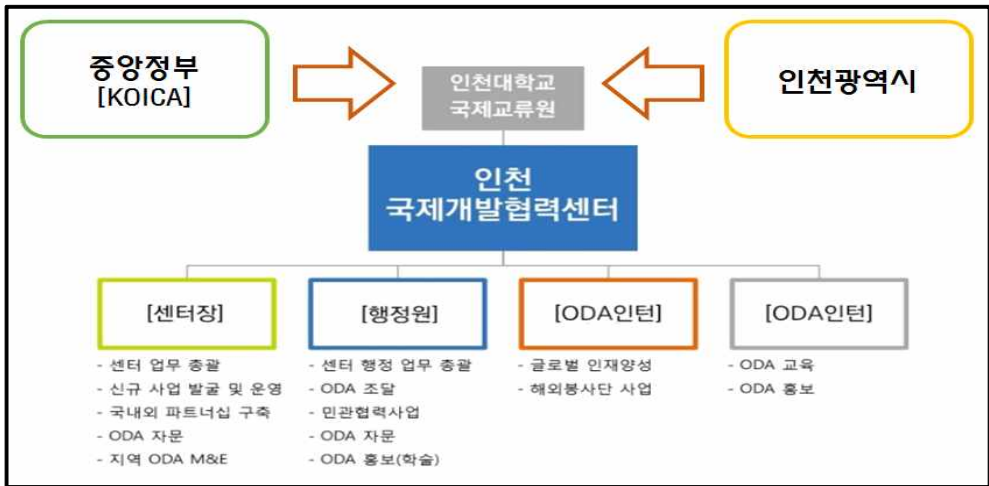
### 3) 인천시 사례11)

인천시는 지역 대학의 수는 많지 않으나,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의 다양한 연계·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다양한 협력 사례 중 ‘인천 ODA 상생 플랫폼’이 가장 대표적인 협력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선 ODA 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시는 2013년 기준으로 3.51백만불(약 4,000억원)을 ODA 예산으로 지출하는데, 이는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지출액이었다. 인천시가 성공적인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인천시는 보다 효율적인 ODA 지원과 지역 내 ‘인천 ODA 상생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대학교, 한국 국제협력단(KOICA)와 협력하여,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를 2016년 4월 1일에 설립하였다. 인천대학교는 인

11) 인천대학교,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천국제개발협력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ODA 청년인턴, ODA 교육, ODA 홍보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인천시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인천 ODA 포럼을 개최하여 인천의 ODA사업 관련한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천시와 인천대학교는 지역의 ODA 사업 개발과 추진에 있어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ODA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인천시의 성공적인 ODA 협력 사례는 전반적인 ODA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의 역할과 ODA 사업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역 대학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II - 12] 인천의 ODA 협력 모델

자료: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http://icidcc.modoo.at/>)를 참조하여 제작성함

ODA협력 사례이외에 인천시는 인천지역 교육·문화 증진 및 발전을 위해 인천 시청, 인천 교육청,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속에서 인천시는 연계·협력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대학은 대학 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지역대학은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대학 체험 창의 프로그램과 학습 멘토링을 제공해주며, 인천시와 인천 교육청은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 행사에 지역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하고 있다.



### 3.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지금까지 국내외의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의 다양한 연계·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연계·협력 사례 속에서 오늘날 대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 1) 협의회를 통한 연계·협력 체계 구성

대전시는 2016년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였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대구시처럼 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협력 사업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대전시와 지역대학 간의 다양한 협력 사업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협의회 중심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대전시는 앞서 살펴본 일본과 대구시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헌’이라는 가치 아래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대구시 또한 2015년부터 협의회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도 지자체, 지역사회, 시민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 지역사회 속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협력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협의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과 주체들 간의 연계·협력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시청 내에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배치함과 동시에 협의회 주체들 간의 원만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2) 연계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場) 마련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의 성공적인 연계 협력을 위해서는 소통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의 장은 단순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망 구축과 함께 협력의 결과물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대전시에는 지역사회와 지역 대학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과 함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망이나 홍보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대전시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요코하마시나 서울의 사례처럼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융합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코하마시는 지역대학의 다양한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대학 간의 자연스러운 연계 협력을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서울시는 캠퍼스 타운을 구성함과 동시에 파이빌이라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소통의 공간 마련은 지역 대학생의 생활을 캠퍼스에서 지역사회로 확장시켜줌과 동시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공간 마련 이외에 요코하마시의 ‘대학과 지역이 연결되는 거리’처럼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다양한 연계·협력 사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식지의 발간은 기존의 연계 사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계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

### 3) 대전형 CONNECT 설립

대전시의 대학들은 지역에 활용 가능한 우수한 기술과 지역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체계는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서 살펴본 USCD CONNET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CONNECT는 전문적으로 산학 협력 주체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활용성 높은 연구 개발을 촉진 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효율적으로 지역대학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CONNECT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연구자와의 만남”이나 “기업가와의 만남”은 연구자와 기업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연계·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

대전시가 보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 간의 연결망을 형성시켜주고,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전형 CONNECT 설립이 필요하다.

#### 4) 지역 사회와 지역대학의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제도나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외에 소프트웨어 측면인 다양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사업들은 지역 사회와 지역대학의 연계, 지역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연계·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대전도 서대문구처럼 ‘대학과 지역의 공유-공생 프로젝트’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단순히 캠퍼스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서대문구처럼 단순 수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여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대학이 서로 소통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5) 대전시 ODA 모델 확립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연계 강화

앞서 인천의 ODA 사례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성공적인 지역 ODA 모델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로 과학분야, 연구개발분야 등에 있어 다른 도시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시 자체의 ODA 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대전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국제사회 내에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ODA 사업을 전개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대전시와 지역대학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충남대학교, KAIST, 한밭 대학교의 적정기술 연구소의 인적 자원과 시설, 축적된 기술 등을 활용한 다면 대전시 역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 3 장

### 지역대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제1절 중앙정부의 대학지원실태

제2절 대전시의 대학협력 지원현황

---



## 제3장 지역대학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제1절 중앙정부의 대학지원 사업 평가

#### 1. 중앙정부가 인지한 지역대학의 당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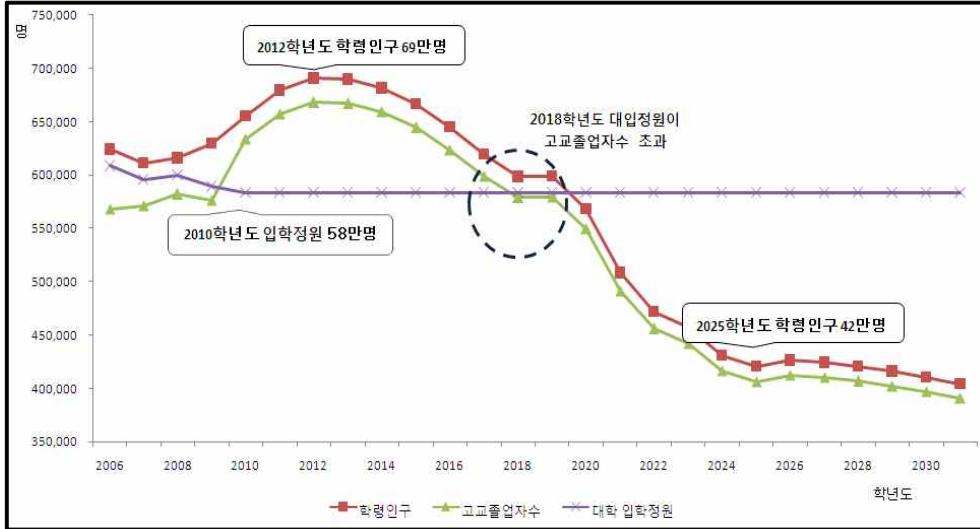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독특한 특성, 나아가 서열화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전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으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지역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구분되며, 정책별로 탄력적 적용의 대상으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지역대학의 위상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며,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1)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구조개혁 압력

대전을 비롯한 지역대학의 공통적인 문제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구조개혁 및 특성화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 등에 따라 대학설립과 정원은 증가하였으나,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일부 대학은 미충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15년 대입정원 유지 시 2018년 이후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을 포함하여 전체 대학은 대학의 정원 감축, 학과간 구조조정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 분야 중심 특성화가 긴요한 형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0년대 후반 이후 대학이 늘어나면서 '백화점식 학과 운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Ⅲ-1] 학령인구 감소

## 2) 지역 인재의 유출 및 지역대학 위상 약화

지역대학이 처한 두 번째 문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 등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고교 졸업생의 지역대학 입학이 줄어드는 현상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비례하여 지역별 고교졸업자의 수도권 대학 진학 비율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지역대학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대학과 비교 시, 교육·연구 여건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표 Ⅲ-1>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비교( '11년 4년제)

구 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교수 1인당 연구비*	교수 1인당 논문수*	기술이전 수익 평균	대학원 진학률
서울소재 대학	30.1명	99백만원	1.01	455백만원	12.6%
지역대학	38.6명	52백만원	0.77	119백만원	6.6%

\* 교수 1인당 연구비 및 논문수는 대학연구활동조사보고서('11년) 기준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서울소재 대학과 지역대학간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격차로 인하여 지역대학 졸업생에게 일종의 낙인 효과를 발생시켜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된다는 사실에 있다. 서울소재 대학 취업률(57.1%) 대비 지역대학의 취업률(53.7%)이 저조한 형편은 이를 대변해 준다.

### 3) 청년 취업난 속 취업 미스매치 여전

세 번째로 지역대학이 직면한 핵심문제 중 하나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다.

그간의 산학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력 수요와 지역대학의 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가 미흡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서 대학 졸업생들은 공기업 및 대기업 등 한정된 전문·사무직종을 선호하며, 지역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청년 취업자가 선호하는 직장은 공기업 > 대기업 > 전문기업 >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나 있다. 현실적으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난이 심화되고 있음은 주목해 볼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지역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이론 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대학 인력양성과 지역의 산업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2. 중앙정부의 대학 지원정책의 흐름

### 1) 문민정부(1993-1998)

문민정부에서는 1995년 5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을 필두로 네 차례에 걸친 고등교육 개혁방안들을 발표하였다. 즉, 1995년 5.31 교육개혁안, 1996년 2월 발표된 제2차 교육개혁안, 1996년 8월 발표된 제3차 교육개혁안, 1997년 6월 발표된 제4차 교육개혁안 등이 그것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은 고등교육에서 형평성보다는 수월성 또는 경쟁에 초점

을 두었으며, 이는 이후의 정권들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의 고등교육 개혁 정책들은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의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대학에 대한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경쟁을 통한 대학의 변화가 유도되었다.

문민정부가 지향한 고등교육 개혁정책의 목적은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이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였다. 열린 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국제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능대학 직업교육 활성화,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교육관계 법령체제 개편, 교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혁,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 고등교육 체제 개선(고등교육의 수월성과 지방화를 위한 지원),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및 대입 전형방식 등이 그것이다.

## 2) 국민의 정부(1998-2003)

국민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문민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초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획기적인 교육개혁안들이 제시되었다기 보다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들이 좀 더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 개혁방안으로는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과 「한국 교육의중장기 비전」을 들 수 있다. 「교육발전5개년계획(시안)」에서 나타난 고등교육 개혁의 목적은 “지식강국의 초석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의 육성”이다.

고등교육 개혁의 목표는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지역 우수대학 육성, 학술연구기반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 총장·교수 임용제도 개선, 학생복지 확대 및 학생활동 지원 등이다.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에 나타난 고등교육 개혁의 목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대학교육의 수월성 강화”, 즉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세계 수준의대학원과 지역 대학 육성이다. 또한 고등교육 개혁의 목표는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성과 책무성의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 시스템 개혁 등이다

〈표 Ⅲ-2〉 5.31 교육개혁 이후 역대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 정책

정부	개혁이념	개혁목적	개혁목표
문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신교육체제 구축</li> <li>- 수요자 중심 교육</li> <li>- 신자유주의(경제논리)</li> <li>- 문명사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패러다임 변화</li> <li>- 한국적 교육문제 해결</li> <li>- 교육체제 운용 효율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의 수월성 추구</li> <li>- 대학 구조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li> <li>- 대학입학제도 개선</li> <li>- 직업기술교육 혁신</li> <li>- 대학설립준칙주의</li> <li>- 학사운영 자율화</li> <li>- 평가와 연계된 대학 재정 지원</li> </ul>
국민의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 소비자 중심, 시장경제</li> <li>- 효율성 중심의 경제논리(신자유주의)</li> <li>-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교육을</li> <li>- 문민정부에서 수립된 교육개혁의 실천 및 실행(현장착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강국의 초석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li> <li>- 고등교육의 수월성과 지방화(BK21)</li> <li>- 대학입학제도 개선</li> <li>- 대학 구조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 중심대학, 지역 우수대학 육성</li> <li>- 학술연구 기반 확충과 질적 수준 제고</li> <li>-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li> <li>-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li> <li>- 총장·교수 임용제도 개선</li> <li>- 학생복지의 확대와 학생활동 지원</li> <li>- 교육여건 개선 및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체제 개혁</li> </ul>
참여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의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공동체주의 평등)</li> <li>- 연대와 협력의 가치 확대(분권과 자율)</li> <li>- 참여와 가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li> <li>-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li> <li>- 과학기술의 질적 고도화</li> <li>-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li> <li>- 문화산업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강화</li> <li>-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li> <li>- 지방대학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입학제도 개혁과 대학 교육력 제고</li> </ul>

### 3) 참여정부(2004-2008)

참여정부에서의 고등교육 개혁과 관련된 의제는 크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으로 구분된다(2003.2.21 대통령직 인수위

원회 보고,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서는 대학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육성하는 ‘권역별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기술집약단지(테크노파크), 소규모 기술혁신센터(RRC, TIC, SRC, ERC) 등 각 부처 지역기술혁신사업 확충,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지방대학 육성 기반조성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에서는 교수회 법제화와 대학 지배구조 개편,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사업, 학별 타파와 대학서열 완화사업,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개혁의 목적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며, 고등교육 개혁의 목표는 고등교육 보편화,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우수인력 양성 가시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의 기틀 마련 등이다.

#### 4) MB정부(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3대 목표로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기초원천연구 진흥”,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유치”를 제시하였다.

우선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운영의 자율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연구개발과 인재양성간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초원천연구 진흥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비 비중 25%('08)→50%('12) 확대, 우주·극지·해양 등 거대과학 투자 내실화, 원자력 등 미래에너지기술 개발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유치를 위해서는 과학영재학교 확충,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글로벌 우수 과학자 유치 및 공동연구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3. 중앙정부 고등교육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 중앙정부 고등교육 지원정책 현황<sup>12)</sup>

대학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 확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양성,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대학 재정 압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며, 대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대학교육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은 크게 ① 대학 특성화지원사업, ② 전문대학육성사업, ③ 학자금·장학금 지원 사업, ④ 학술연구 지원 사업, ⑤ 산학협력지원 사업, ⑥ 취업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 (1)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재정 여건 개선, 교육성과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크게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 Brain Korea 21 Plus(BK21)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학부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현장 중심의 학부교육 기반 창의적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과 함께 창의적인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도대학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BK21 플러스사업은 기존의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사업과 BK21사업의 한계를 극복과 함께 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경쟁력확보, 국제화, 제도개선과 함께 자율적 평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BK21 플러스 사업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13~’ 19년 추진목표로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학문분야별 핵심 고급인력 및 융복합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 양성, 국내 대학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삼고 있다.

---

12)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등교육지원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 (2) 전문대학육성사업

교육부의 전문대학육성 사업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사회·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추진 목적 하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문대학육성 사업의 구체적인 비전과 핵심과제로는 ①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② 평생직업 교육대학 육성, ③ 사회 맞춤형 학과 활성화, ④ 전문대학 국제화 역량강화가 있다.

이러한 핵심과제의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는 단계별 추진력전략을 구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선 2014년은 1단계 도입기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기반 마련, 재직자·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 직업교육대학 운영체제 개편, 일자리·현장중심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5~2016년은 2단계 발전기로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대학 강점분야 비교우위 확보, 학위·비학위과정 통합 운영으로 평생 직업교육 대학 활성화, 일자리·현장중심 NCS 기반 교육과정 활성화 등이 주요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는 3단계 확산기로 삼고 있으며, 지역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의 중심대학 역할 수행, 평생 직업교육 대학 중심의 미래형 고등직업교육체제 정착,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할 직무수행 완성도 높은 인력양성 등을 주요전략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3) 학자금·장학금 지원 사업

교육부의 학자금·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단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사업, 국가장학금 사업, 국가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각각의 사업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자금 대출사업에는 대출 후 이자 부담 없이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제도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발행하는 재원을 대출하여 갚는 일반상환학자금제도가 있다. 두 번째로 국가장학금 사업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하는 I 유형과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과 지방인재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로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교내 근로와 교외근로로 나뉘어 있다. 최근에는 전공연계 및 공익적 근로 체험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교외근로 비율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중기청, 교육청, 지자체 등 다양한 근로지를 발굴해나가고 있다. 네 번째로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에서는 4개의 장학 사업<sup>13)</sup>과 함께 저소득층의 해외유학 지원을 위한 드림장학금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은 창의적 지식, 국제적 네트워크, 리더십이라는 인재상을 가진 글로벌 박사 육성을 목적으로 인문사회:이공계 박사를 3:7비율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 (4) 학술연구지원 사업

학술연구지원 사업은 연구과제의 수행 및 기타 학술 연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에서는 사업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전반적인 운영이나 관리는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지원 사업은 인문사회, 이공분야, 한국학 등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연구지원과 함께 학술활동과 연구지원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학술연구기반 구축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와 비전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구 생태계 조성’과 연구성과의 사회적 공유확산을 통한 창의적 지식 창출’이다. 이러한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① 수요자맞춤형 연구지원체계구축, ② 전통문화 연구강화, ③ 학술성과의 사회적 확산, ④ 학술연구 기반 구축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16년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은 15년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6,171억 원이며, 이공 분야에 전체 예산의 55.3%, 인문사회에 36.1%, 한국학에 5.6%, 기반구축에 3.0%를 지원한다. 세부사업은 각 지원 분야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3)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실시되는 4가지 사업에는 대통령과학장학금사업, 국가장학금(이공계)사업,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사업,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사업이 있으며, 여기서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사업은 ‘인문 100년 장학금’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 (5) 산학협력지원 사업

산학협력지원 사업은 대학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학협력지원의 기본적인 목표는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과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창출된 지식과 기술의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이다.

산학협력지원 사업은 크게 ‘기술 사업화 및 창업’ 과 ‘산학연계 및 인력양성’ 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술 사업화 및 창업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기술지주회사<sup>14)</sup>의 설립지원,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학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기업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업과 사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산학연계 및 인력양성에서는 산학협력 가족회사 설립,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설립, 현장실습 지원, 산학연계 교육과정 실시, 학교기업 설립 등의 영역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기업과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및 산업 발전에 따른 미래형 인재 육성 체계가 산학협력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구축될 수 있다.

## (6) 취업지원사업

앞서 살펴본 지원 정책들이 주로 교육부 주도로 이뤄졌다면, 취업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 간의 연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대학 내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취업지원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과 같은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기관에서는 취업이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대학생들의 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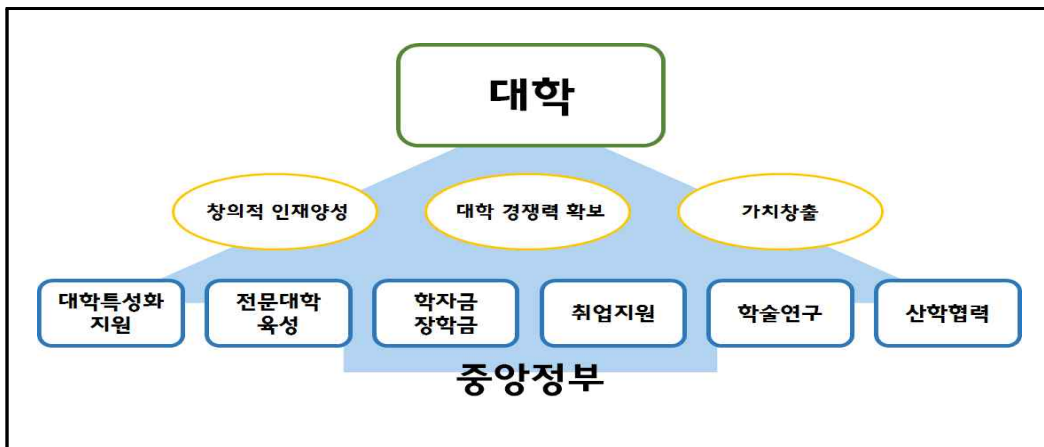
---

14)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독자적인 신규회사의 설립, 외부기업과의 합작(조인트벤처)설립, 기존기업의 지분인수 등의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주식회사)을 의미한다.



에 맞는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적성 또는 직업 가치관 검사를 제공해준다. 현재 전국 277개 대학에 취업기관이 설치되어있으며, 대전지역에는 9개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대학졸업예정자와 미취업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다. 취업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사업주 단체가 아카데미 교육생들에게 실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직접 제공해주는 연수과정과 청년들이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여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직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 번째 취업지원 사업으로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취업관련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여 빈곤층의 취업을 돕는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이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는 만18세~만64세의 빈곤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I 과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II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립국제교육원, KOICA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연계사업으로 운영되는 K-move 사업이 있다. K-move 사업은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취업할 때 갖춰야 할 태도나 자세, 해당 국가의 문화,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스킬 등과 같은 내용의 멘토링을 제공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정보의 고등교육지원 정책은 다음의 [그림 III-2]과 같다.



[그림 III-2] 중앙정부 고등교육 지원정책 현황

## 2) 중앙정부 고등교육 지원정책의 문제점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① 대학의 자율성 저하, ② 지역사회와의 연계 결여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 (1) 대학 자율성의 저하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은 ‘대학평가지표’에 따라 차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대학들의 구조조정은 필요한 실정이나, 대부분의 구조조정이 대학의 상황과 실정을 고려한 자율적인 개혁이 아닌, 중앙정부가 맞춰 놓은 평가표에 맞춰 실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학의 자율성 저하와 대학의 획일화, 공공성의 훼손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지방대학 개혁안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대학들은 정부가 정해 놓은 평가표에 맞춰 정원감축, 학과 통폐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지역사회의 요구나 교육의 질 향상과 상관없는 ‘돈이 되는 사업’ 들이 대학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방대학의 혁신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향식 혁신이 아닌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른 하향식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방 대학의 혁신은 사회 전반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성은 무시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 (2) 지역사회와의 연계 결여

오늘날 지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재생과 지역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학의 다양한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학

지원과 대학 개혁은 지역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효율성을 고려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대학 사업들은 실제로 지역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학 지원 사업들(대학 특성화 지원, 전문대학 육성, 취업지원, 학술연구)은 ‘지역의 문제 해결’ 보다는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문제로 대학의 개혁과 새로운 가치 창출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산학협력지원사업을 지역연계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학협력지원사업은 산업체의 필요성에 따른 기술을 대학이 개발하여 협력하는 사업이므로 주요 고려 대상은 ‘공공성’ 보다는 ‘사업성’이다. 그리고 주로 산업체와 대학을 연결 시켜주기 때문에 실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나타나는 지역 대학의 다양한 사업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기여 결여가 나타나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는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중앙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된 지원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중앙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재생, 지역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역대학 지원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단순히 지자체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상향식으로 지원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 지역사회, 지역대학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대학의 실정과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 제2절 대전 지역대학의 현황 및 특성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올바른 연계·협력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대전 지역 대학의 일반적인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 속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은 지역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성과의 창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대전 지역 대학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광역시 간의 비교를 통해 대전지역 대학이 놓여있는 환경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수행할 것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대전 내 지역 대학의 대학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대전에는 21개의 대학교(원)이 설립되어 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 대학원 대학 2개교, 일반 4년제 대학 12개교, 사이버 대학 1개교, 방송통신대학 1개교, 전문 대학 5개교가 있으며, 설립구분 별로는 특별법인 2개교, 국립대학 3개교, 사립대학 16개교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원대학교는 광역시 간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방송통신대학교는 지역 통계가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Ⅲ-3> 대전의 대학교(원) 현황**

구분	학교유형	학교이름	구분	학교유형	학교이름
특별	전문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UST)	사립	일반대학	건양대학교(대전)
사립	전문대학원	건신대학원대학교	사립	일반대학	대전신학대학교
특별	일반대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사립	일반대학	침례신학대학교
국립	일반대학	충남대학교	사립	사이버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국립	일반대학	한밭대학교	국립	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전)
사립	일반대학	한남대학교	사립	전문대학(3년)	우송정보대학
사립	일반대학	우송대학교	사립	전문대학(2년)	대덕대학교
사립	일반대학	배재대학교	사립	전문대학(2년)	대전과학기술대학교(DST)
사립	일반대학	목원대학교	사립	전문대학(2년)	대전보건대학교
사립	일반대학	대전대학교	사립	기능대학	한국폴리텍(KOPO) IV
사립	일반대학	을지대학교	총 21개교		

자료: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검색일 2016. 10. 4 )

## 1. 지역대학의 인재 확보

대전 지역 대학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재확보가 중요하다. 대전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신입생 경쟁률이나 충원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에서 공시된 2016년 대학 입학 신입생 경쟁률을 살펴보면, 대전 내 일반대학의 경쟁률은 6.2:1로 광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았으며, 전국 평균인 7.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6.4:1로 울산과 광주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광역시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 대학의 낮은 경쟁률은 신입생 충원율의 저하로 이어져 대전 지역 일반 대학에서 90% 이상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 대학은 84.6%로 전국 평균 87.6%와 광역시 평균 87.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90% 이상 충원율이 100%로 나타났다.

**<표 III-4> 2016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 입학 신입생 경쟁률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내 모집인원(A)	정원 내 지원자(B)	경쟁률(B/A)
전국	일반대학	418,635	3,041,083	7.3
	전문대학	185,693	1,500,176	8.1
광역시	일반대학	242,001	1,754,760	7.3
	전문대학	71,443	648,788	9.1
<b>대전</b>	<b>일반대학</b>	<b>19,280</b>	<b>119,895</b>	<b>6.2</b>
	<b>전문대학</b>	<b>8,698</b>	<b>55,808</b>	<b>6.4</b>
서울	일반대학	156,273	1,151,000	7.4
	전문대학	16,927	228,786	13.5
부산	일반대학	32,396	215,471	6.7
	전문대학	13,711	112,073	8.2
대구	일반대학	9,961	86,799	8.7
	전문대학	15,714	110,315	7.0
인천	일반대학	6,917	80,781	11.7
	전문대학	7,082	86,699	12.2
광주	일반대학	14,053	78,785	5.6
	전문대학	6,474	39,716	6.1
울산	일반대학	3,121	22,029	7.1
	전문대학	2,837	15,391	5.4
세종	일반대학	354,106	2,436,261	6.9
	전문대학	1,219	1,219	1.0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4)

〈표 Ⅲ-5〉 2016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 입학 신입생 충원을 현황

단위: 개교, %

구분		종합		90%이상		70%~90%미만		70% 미만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전국	일반대학	249	100.0	218	87.6	14	5.6	17	6.8
	전문대학	166	100.0	158	95.2	4	2.4	4	2.4
광역시	일반대학	109	100.0	95	87.2	8	7.3	6	5.5
	전문대학	50	100.0	50	100.0	0	0.0	0	0.0
대전	일반대학	13	100.0	11	84.6	1	7.7	1	7.7
	전문대학	5	100.0	5	100.0	0	0.0	0	0.0
서울	일반대학	56	100.0	46	82.1	6	10.7	4	7.1
	전문대학	11	100.0	11	100.0	0	0.0	0	0.0
부산	일반대학	17	100.0	16	94.1	0	0.0	1	5.9
	전문대학	10	100.0	10	100.0	0	0.0	0	0.0
대구	일반대학	4	100.0	4	100.0	0	0.0	0	0.0
	전문대학	10	100.0	10	100.0	0	0.0	0	0.0
인천	일반대학	6	100.0	6	100.0	0	0.0	0	0.0
	전문대학	4	100.0	4	100.0	0	0.0	0	0.0
광주	일반대학	11	100.0	10	90.9	1	9.1	0	0.0
	전문대학	7	100.0	7	100.0	0	0.0	0	0.0
울산	일반대학	2	100.0	2	100.0	0	0.0	0	0.0
	전문대학	3	100.0	3	100.0	0	0.0	0	0.0
세종	일반대학	3	100.0	2	66.7	0	0.0	1	3.3
	전문대학	1	100.0	1	100.0	0	0.0	0	0.0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4)

대전 지역 일반 대학의 중도탈락율은 4.7%로 전국 평균 7.5%와 광역시 평균 9.4%보다는 낮았으나, 7대 광역시 중 서울과 광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7.9%로 전국과 광역시 평균보다 높았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광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현재 대전 지역 대학은 다른 광역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과 충원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도탈락율의 경우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양호하나, 광역시 중에서는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오늘날 지역 대학들의 인재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표 Ⅲ-6〉 2016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 중도탈락 학생현황

단위: 명

구분		재적학생(A)	중도탈락 학생(B)	중도탈락률(B/A×100)
전국	일반대학	2,489,640	186,240	7.5
	전문대학	749,062	56,834	7.6
광역시	일반대학	1,381,956	129,730	9.4
	전문대학	278,407	21,212	7.6
대전	일반대학	<b>123,014</b>	<b>5,754</b>	<b>4.7</b>
	전문대학	<b>31,868</b>	<b>2,518</b>	<b>7.9</b>
서울	일반대학	814,849	105,590	13.0
	전문대학	62,801	4,684	7.5
부산	일반대학	214,911	9,753	4.5
	전문대학	57,028	5,412	9.5
대구	일반대학	68,789	2,185	3.2
	전문대학	57,558	3,727	6.5
인천	일반대학	47,679	1,292	2.7
	전문대학	27,495	1,762	6.4
광주	일반대학	88,862	4,320	4.9
	전문대학	28,635	2,306	8.1
울산	일반대학	23,852	836	3.5
	전문대학	13,022	803	6.2
세종	일반대학	19,707	633	3.2
	전문대학	5,195	419	8.1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4)

## 2. 지역대학의 교육과 연구여건

지역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은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함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여기서는 대전 지역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가늠해보고, 대학 자체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와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과 같은 일반적인 지표와 함께, 지역 특성화학과 현황, 재정지원 사업 수혜 현황과 같은 세부적인 지표들도 살펴볼 것이다.

### 1) 전임교원 현황

대전 지역 일반대학의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7.3명으로 전국 평

군 27.4명과 광역시 평균 28.5명보다 양호하였으나,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인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36.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III-7> 2016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학생정원(A)		전임교원 현황(B)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A/B)	
		편제정원	재학생		편제정원기준	재학생기준
전국	일반대학	2,061,843	2,033,711	74,105	27.8	27.4
	전문대학	441,735	471,567	13,546	32.6	34.8
광역시	일반대학	1,189,254	1,154,550	40,575	29.3	28.5
	전문대학	164,185	177,088	4,961	33.1	35.7
대전	일반대학	<b>105,614</b>	<b>111,571</b>	<b>4,089</b>	<b>25.8</b>	<b>27.3</b>
	전문대학	<b>19,990</b>	<b>20,809</b>	<b>568</b>	<b>35.2</b>	<b>36.6</b>
서울	일반대학	723,460	661,169	21,458	33.7	30.8
	전문대학	39,908	43,258	1,188	33.6	36.4
부산	일반대학	161,763	173,796	6,667	24.3	26.1
	전문대학	30,899	32,099	902	34.3	35.6
대구	일반대학	57,959	62,930	2,321	25.0	27.1
	전문대학	33,768	37,183	1,048	32.2	35.5
인천	일반대학	39,725	42,175	1,504	26.4	28.0
	전문대학	15,695	17,391	494	31.8	35.2
광주	일반대학	80,548	82,553	3,168	25.4	26.1
	전문대학	16,051	18,113	515	31.2	35.2
울산	일반대학	20,185	20,356	1,368	14.8	14.9
	전문대학	7,874	8,235	246	32.0	33.5
세종	일반대학	13,761	14,717	508	27.1	29.0
	전문대학	3,226	3,445	102	31.6	33.8

주: 사이버 대학교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높게 나와 사이버 대학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분석에서는 제외함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6)

대전 지역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살펴보면 재학생 기준 76.5%로 광역시 평균 74.7%보다 높았으나 전국 평균 77.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광주, 부산 다음으로 높았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이 57.0%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Ⅲ-8〉 2016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단위: 명, %

구분		교육법정 정원(A)		전임교원 현황(B)	전임교원확보율(B/A×100)	
		편제정원기준	재학생 기준		편제정원기준	재학생기준
전국	일반대학	96,837	95,825	74,105	76.5	77.3
	전문대학	20,983	22,425	13,546	64.6	60.4
광역시	일반대학	55,611	54,337	40,575	73.0	74.7
	전문대학	7,802	8,419	4,961	63.6	58.9
대전	일반대학	<b>5,080</b>	<b>5,344</b>	<b>4,089</b>	<b>80.5</b>	<b>76.5</b>
	전문대학	<b>955</b>	<b>996</b>	<b>568</b>	<b>59.5</b>	<b>57.0</b>
서울	일반대학	33,042	30,535	21,458	64.9	70.3
	전문대학	1,877	2,038	1,188	63.3	58.3
부산	일반대학	7,751	8,274	6,667	86.0	80.6
	전문대학	1,451	1,505	902	62.2	59.9
대구	일반대학	2,857	3,088	2,321	81.2	75.2
	전문대학	1,616	1,777	1,048	64.9	59.0
인천	일반대학	1,840	1,970	1,504	81.7	76.3
	전문대학	741	819	494	66.7	60.3
광주	일반대학	4,012	4,109	3,168	79.0	77.1
	전문대학	777	880	515	66.3	58.5
울산	일반대학	1,029	1,017	1,368	132.9	134.5
	전문대학	385	404	246	63.9	60.9
세종	일반대학	632	677	508	80.4	75.0
	전문대학	155	165	102	65.8	61.8

주: 사이버대학 제외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6)

지금까지 대전 지역대학의 전임교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전의 경우 일반대학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나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였으나, 전문대학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열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2) 대학생 교육지원 현황

교육지원은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대전의 경우 연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장학금 수혜실적, 지방자치단체 장학금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지원 현황을 나타내주는 지표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1,16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 1,234만원, 광역시 평균 1,212만원보다 다소 낮았으며,

광역시 중 부산을 제외한 모든 곳이 대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887만원으로 전국 평균 944만원과 광역시 평균 907만원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광역시 중 광주만 대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Ⅲ-9>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천원

구분		총 교육비(A)	재학생 수(B)	학생 1인당 교육비(A/B)
전국	일반대학	24,840,004	2,012,312	12,344
	전문대학	4,626,636	489,998	9,442
광역시	일반대학	14,238,600	1,174,411	12,124
	전문대학	1,674,946	184,667	9,070
대전	일반대학	<b>1,144,178</b>	<b>98,601</b>	<b>11,604</b>
	전문대학	<b>185,743</b>	<b>20,930</b>	<b>8,874</b>
서울	일반대학	8,663,267	726,631	11,923
	전문대학	400,353	44,034	9,092
부산	일반대학	1,951,930	169,548	11,513
	전문대학	304,878	33,284	9,160
대구	일반대학	822,719	58,986	13,948
	전문대학	378,124	41,609	9,088
인천	일반대학	388,461	26,462	14,680
	전문대학	166,042	17,772	9,343
광주	일반대학	977,651	79,189	12,346
	전문대학	161,198	18,566	8,682
울산	일반대학	290,394	14,994	19,367
	전문대학	78,608	8,472	9,279
세종	일반대학	3,966	122	32,507
	전문대학	37,597	3,458	10,873

주 1: 특수법인 대학은 자체 교육비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어, 다른 일반대학과 편차가 심한관계로 분석에서는 제외함

주 2: 통계자료가 소재지에 분교로 있는 대학은 본교에 편입하여 구해졌기 때문에, 해당 표는 지역에 본교로 있는 대학으로만 작성됨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6)

대전의 연간 대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은 281만원으로 전국 평균 285만원, 광역시 평균 286만원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광역시 중 대전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금액의 차이가 대부분 10만원 안팎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333만원으로 일반대학 281만원보다 높았으며, 전국 평균 321만원, 광역시 평균 324만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 대구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Ⅲ-10〉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대학생 장학금 수혜현황

단위: 명, 백만원, 천원

구분		재학생(A)	교내외 장학금 총액(B)	학생 1인당 장학금(B/A)
전국	일반대학	1,684,890	4,817,296	2,859
	전문대학	475,184	1,526,438	3,212
광역시	일반대학	8,553,076	24,487,485	2,863
	전문대학	178,679	578,864	3,240
대전	일반대학	<b>1,488,956</b>	<b>4,195,847</b>	<b>2,818</b>
	전문대학	<b>20,199</b>	<b>67,376</b>	<b>3,336</b>
서울	일반대학	1,659,068	4,731,724	2,852
	전문대학	42,729	138,776	3,248
부산	일반대학	1,520,363	4,325,876	2,845
	전문대학	31,883	103,310	3,240
대구	일반대학	1,558,275	4,429,456	2,843
	전문대학	40,398	135,248	3,348
인천	일반대학	958,636	2,935,776	3,062
	전문대학	17,279	59,132	3,422
광주	일반대학	1,352,133	3,817,964	2,824
	전문대학	17,992	54,009	3,002
울산	일반대학	15,645	50,841	3,250
	전문대학	8,199	21,013	2,563
세종	일반대학	13,168	47,719	3,624
	전문대학	3,357	11,502	3,426

주: 장학금 수혜 대상인 재학생만 포함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6)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대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내 일반대학은 평균 2,509원으로 전국 평균 8,419원, 광역시 평균 5,540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광역시 중 대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장학금 수혜현황에서도 대전 내 일반대학이 가장 낮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의 경우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4,496원으로 전국 평균 6,903원보다는 낮았으나, 광역시 평균 3,086원보다는 높았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11〉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단위: 명, 천원, 원

구분		재학생(A)	지방자치단체 장학금(B)	학생 1인당 장학금(B/A)
전국	일반대학	1,605,836	13,519,999	8,419
	전문대학	429,410	2,964,057	6,903
광역시	일반대학	884,458	4,899,774	5,540
	전문대학	155,633	480,290	3,086
대전	일반대학	<b>84,313</b>	<b>211,569</b>	<b>2,509</b>
	전문대학	<b>20,199</b>	<b>90,808</b>	<b>4,496</b>
서울	일반대학	507,267	1,856,948	3,661
	전문대학	41,135	49,449	1,202
부산	일반대학	144,336	2,013,249	13,948
	전문대학	30,134	90,936	3,018
대구	일반대학	47,137	142,037	3,013
	전문대학	33,750	106,328	3,150
인천	일반대학	29,802	140,574	4,717
	전문대학	17,279	28,281	1,637
광주	일반대학	55,958	436,811	7,806
	전문대학	4,937	10,834	2,194
울산	일반대학	15,645	98,586	6,301
	전문대학	8,199	103,654	12,642
세종	일반대학	13,168	93,401	7,093
	전문대학	3,357	9,668	2,880

주: 지원대상학교만 포함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6)

이처럼 대전 지역대학은 교육지원 측면에 있어 연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의 경우 대학 유형에 상관없이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장학금 수혜실적의 경우 일반대학은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전문대학은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수혜현황에 있어 대전 지역 전문대학은 양호한 편이나, 일반대학은 다른 광역시나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많이 나타나났다는 점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 3) 대학의 연구 여건 및 연구 성과

대전 지역 일반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지원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전문대학의 1인당 연구비 지원은 미흡한 편이었다. 그리고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모두 다소 낮게 나타났다.

대전 지역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1억 3,44만원으로 전국 평균 7,454만원, 광역시 평균 9,472만원보다 높았으며, 광역시 중 울산과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 166만원으로 전국 평균 325만원, 광역시 평균 352만원 보다 약 2배정도 낮았으며, 광역시 중 광주, 부산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Ⅲ-12> 2015년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교내(A)	교외(B)	전체(A+B)
전국	일반대학	5,683(7.6)	68,862(92.4)	74,545(100.0)
	전문대학	273(8.4)	2,978(91.6)	3,252(100.0)
광역시	일반대학	7,671(8.1)	87,049(91.9)	94,720(100.0)
	전문대학	452(12.8)	3,076(87.2)	3,528(100.0)
대전	일반대학	<b>8,954(8.7)</b>	<b>94,494(91.3)</b>	<b>103,448(100.0)</b>
	전문대학	<b>257(15.4)</b>	<b>1,407(84.6)</b>	<b>1,664(100.0)</b>
서울	일반대학	8,253(7.4)	103,392(92.6)	111,646(100.0)
	전문대학	1,155(18.6)	5,071(81.5)	6,225(100.0)
부산	일반대학	3,864(8.7)	40,593(91.3)	44,458(100.0)
	전문대학	84(6.4)	1,236(93.6)	1,321(100.0)
대구	일반대학	7,416(8.7)	78,046(91.3)	85,463(100.0)
	전문대학	276(13.1)	1,834(86.9)	2,110(100.0)
인천	일반대학	6,380(9.2)	62,601(90.8)	68,981(100.0)
	전문대학	345(5.1)	6,475(94.9)	6,820(100.0)
광주	일반대학	8,322(11.1)	66,804(88.9)	75,126(100.0)
	전문대학	211(21.2)	784(78.8)	995(100.0)
울산	일반대학	13,476(10.1)	119,584(89.9)	133,060(100.0)
	전문대학	343(4.4)	7,471(95.6)	7,814(100.0)
세종	일반대학	6,202(11.5)	47,647(88.5)	53,849(100.0)
	전문대학	0(0.0)	0(0.0)	0(0.0)

주1: 1인당 연구비 = 연구비/전임교원 수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6)

지자체 연구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지역 일반 대학의 교외 연구비 중 지자체 지원 비중은 2.8%로 광역시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259만원으로 전국 평균과 광역시 평균보다 높았으며, 광역시 중 광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 전국과 광역시 평균보다 낮았으며, 광역시 중 광주, 부산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Ⅲ-13〉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지방자치단체 연구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자체 연구비지원	비율(%)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전국	일반대학	174,641,960	3.4	2,338
	전문대학	4,864,123	12.0	357
광역시	일반대학	75,751,157	2.1	1,822
	전문대학	2,156,272	14.0	432
대전	일반대학	<b>10,628,648</b>	<b>2.8</b>	<b>2,590</b>
	전문대학	<b>84,700</b>	<b>10.5</b>	<b>148</b>
서울	일반대학	37,184,310	1.7	1,698
	전문대학	1,383,942	22.9	1,163
부산	일반대학	7,406,172	2.8	1,106
	전문대학	74,362	6.7	82
대구	일반대학	5,818,659	3.3	2,506
	전문대학	262,529	13.3	244
인천	일반대학	1,232,075	1.3	819
	전문대학	124,720	3.9	252
광주	일반대학	11,933,560	5.8	3,767
	전문대학	0	0.0	0
울산	일반대학	1,312,891	0.8	958
	전문대학	226,019	12.3	919
세종	일반대학	234,842	1.0	462
	전문대학	0	0	0

주1: 비율은 교외에서 지원받는 연구비 중 지자체 연구비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주2: 1인당 연구비 = 연구비/전임교원 수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6)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을 통해 대전 지역 대학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일반 대학의 경우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은 0.44편으로 전국 평균 0.53편, 광역시 평균 0.54편보다 적었으며,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외 게재 논문은 0.41편으로 전국 평균 0.39편보다는 많았으나, 광역시 평균 0.48편보다 적었으며, 광역시 중 부산과 광주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국내 논문이 0.11편으로 전국 0.12편, 광역시 0.14편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국외 게재 논문 실적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광역시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4>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단위: 편

구분		국내	국외
전국	일반대학	0.53	0.39
	전문대학	0.12	0.0146
광역시	일반대학	0.54	0.48
	전문대학	0.14	0.0177
대전	<b>일반대학</b>	<b>0.44</b>	<b>0.41</b>
	<b>전문대학</b>	<b>0.11</b>	<b>0.0151</b>
서울	일반대학	0.55	0.57
	전문대학	0.24	0.0247
부산	일반대학	0.59	0.27
	전문대학	0.08	0.0099
대구	일반대학	0.63	0.45
	전문대학	0.11	0.0213
인천	일반대학	0.64	0.42
	전문대학	0.13	0.0046
광주	일반대학	0.54	0.35
	전문대학	0.14	0.0147
울산	일반대학	0.21	0.67
	전문대학	0.15	0.0343
세종	일반대학	0.45	0.28
	전문대학	0.01	0.0016

주1: 국내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 포함)에 게재된 논문임

주2: 국외는 SCI급, SCOPUS와 같은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임

주3: 1인당 논문게재실적 = 논게제실적/전임교원 수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6)

지금까지 연구지원과 연구 성과의 측면에서 대전 지역대학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전 지역 일반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전문대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지자체 연구비 지원의 경우 앞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대전의 장학금 지원과 대조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여기서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 성과의 측면에서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 실적에 있어 대전 지역 대학은 다소 적게 나타난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 3. 재정지원사업 및 대학 특성화 현황

재정지원사업은 대학 교육역량강화, 특성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 사업으로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은 대학의 경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대전 지역 일반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을 살펴보면 총 2,908건을 지원받았으며, 지원액은 3,901억 원 이었다. 광역시 중 지원 건수가 대전보다 많은 지역은 서울과 부산이었으며, 지원액은 서울을 제외하면 대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대전의 전체 사업 지원액 중 지자체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서울의 2.4%보다는 높았으나, 다른 광역시가 5~10%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Ⅲ-15> 2015년 전국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일반대학)**

단위: 건, 억 원

구분		정부	지자체	종합
전국	수혜건	40,815(88.9)	5,098(11.1)	45,913(100)
	지원액	47,812(94.1)	3,016(5.9)	50,828(100)
광역시	수혜건	26,973(93.2)	1,983(6.8)	28,956(100.0)
	지원액	31,790(96.0)	1,337(4.0)	33,130(100.0)
대전	수혜건	2,725(93.7)	183(6.3)	2,908(100.0)
	지원액	3,714(95.2)	186(4.8)	3,901(100.0)
서울	수혜건	16,427(96.6)	570(3.4)	16,997(100.0)
	지원액	19,551(97.6)	471(2.4)	20,023(100.0)
부산	수혜건	2,836(88.5)	367(11.5)	3,203(100.0)
	지원액	2,986(94.0)	190(6.0)	3,176(100.0)
대구	수혜건	1,700(83.2)	343(16.8)	2,043(100.0)
	지원액	1,941(90.3)	209(9.7)	2,150(100.0)
인천	수혜건	974(82.7)	204(17.3)	1,178(100.0)
	지원액	837(90.7)	86(9.3)	923(100.0)
광주	수혜건	1,443(85.9)	237(14.1)	1,680(100.0)
	지원액	1,746(92.4)	144(7.6)	1,890(100.0)
울산	수혜건	868(91.7)	79(8.3)	947(100.0)
	지원액	1,015(95.1)	51(4.8)	1,067(100.0)
세종	수혜건	255(92.1)	22(7.9)	277(100.0)
	지원액	244(97.2)	7(2.8)	251(100.0)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4)



대전 지역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을 살펴보면 총 48건을 지원받았으며, 지원액은 119억 원 이었다. 지원건수와 지원액에 있어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은 전문대학이 3개교인데 반해, 대전은 5개교로 약 2배가량 더 많으나, 지원건수나 지원액에 있어 비슷한 규모였다. 전체 지원 사업 금액 중 지자체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 또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III-16> 2015년 전국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전문대학)**

단위: 건, 억 원

구분		정부	지자체	종합
전국	수혜건	1,318(56.6)	1,010(43.4)	2,328(100.0)
	지원액	3,832(86.3)	610(13.7)	4,442(100.0)
광역시	수혜건	464(65.6)	243(34.4)	707(100.0)
	지원액	1,318(90.7)	133(9.2)	1,453(100.0)
대전	수혜건	36(75.0)	12(25)	48(100.0)
	지원액	114(95.8)	5(4.2)	119(100.0)
서울	수혜건	110(77.5)	32(22.5)	142(100.0)
	지원액	163(88.1)	21(11.4)	185(100.0)
부산	수혜건	63(50.4)	62(49.6)	125(100.0)
	지원액	266(89.9)	30(10.1)	296(100.0)
대구	수혜건	109(62.3)	66(37.7)	175(100.0)
	지원액	343(88.2)	46(11.8)	389(100.0)
인천	수혜건	70(69.3)	31(30.7)	101(100.0)
	지원액	160(91.4)	14(8.0)	175(100.0)
광주	수혜건	47(68.1)	22(31.9)	69(100.0)
	지원액	173(96.6)	6(3.4)	179(100.0)
울산	수혜건	29(61.7)	18(38.3)	47(100.0)
	지원액	99(90.0)	11(10.0)	110(100.0)
세종	수혜건	9(60.0)	6(40.0)	15(100.0)
	지원액	54(98.2)	1(1.8)	55(100.0)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4)

재정지원사업 이외에 오늘날 대학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성화학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대전 지역 대학은 기초과학, 건설교통 분야 특성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에서 자체 특성화학과로 개설된 기초과학 분야는 총 48개로 전체의 23.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국 11.7%, 광역시 16.9%보다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대전에서 건설교통분야는 20개가 특성화학과학과로 개설되었으며, 전체의 9.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광역시 평균 3.2%보다 매우 높은 수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은 보건의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자체특성화학과학과 개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공공서비스, 문화예술체육, 특화교육시스템에 있어서는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Ⅲ-17> 2015년 전국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자체특성화학과학 현황**

단위: 건

구분	전국	광역시	대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건설 교통	206 (4.2)	65 (3.2)	<b>20</b> <b>(9.9)</b>	26 (3.2)	8 (1.9)	4 (2.0)	2 (2.2)	5 (1.9)	0 (0.0)	3 (6.0)
공공 서비스	459 (9.3)	144 (7.2)	<b>8</b> <b>(4.0)</b>	58 (7.2)	37 (8.9)	20 (9.8)	9 (10.1)	12 (4.5)	0 (0.0)	0 (0.0)
기계	306 (6.2)	107 (5.3)	<b>11</b> <b>(5.4)</b>	27 (3.3)	36 (8.7)	11 (5.4)	5 (5.6)	17 (6.4)	0 (0.0)	1 (2.0)
기초 과학	582 (11.7)	339 (16.9)	<b>48</b> <b>(23.8)</b>	221 (27.4)	32 (7.7)	9 (4.4)	13 (14.6)	16 (6.0)	0 (0.0)	5 (10.0)
농림수산 식품	220 (4.4)	64 (3.2)	<b>10</b> <b>(5.0)</b>	11 (1.4)	25 (6.0)	4 (2.0)	2 (2.2)	12 (4.5)	0 (0.0)	1 (2.0)
문화예술 체육	869 (17.5)	351 (17.5)	<b>21</b> <b>(10.4)</b>	139 (17.2)	78 (18.8)	57 (27.9)	15 (16.9)	41 (15.4)	0 (0.0)	25 (50.0)
보건의료	497 (10.0)	173 (8.6)	<b>25</b> <b>(12.4)</b>	32 (4.0)	51 (12.3)	16 (7.8)	6 (6.7)	35 (13.2)	8 (42.1)	1 (2.0)
사업지원	319 (6.4)	165 (8.2)	<b>12</b> <b>(5.9)</b>	53 (6.6)	56 (13.5)	21 (10.3)	11 (12.4)	12 (4.5)	0 (0.0)	5 (10.0)
생명과학	109 (2.2)	46 (2.3)	<b>5</b> <b>(2.5)</b>	20 (2.5)	9 (2.2)	4 (2.0)	2 (2.2)	6 (2.3)	0 (0.0)	1 (2.0)
전기전자	188 (3.8)	71 (3.5)	<b>10</b> <b>(5.0)</b>	28 (3.5)	13 (3.1)	10 (4.9)	5 (5.6)	5 (1.9)	0 (0.0)	3 (6.0)
정보통신	290 (5.8)	121 (6.0)	<b>14</b> <b>(6.9)</b>	52 (6.5)	30 (7.2)	10 (4.9)	2 (2.2)	13 (4.9)	0 (0.0)	3 (6.0)
화공	55 (1.1)	25 (1.2)	<b>1</b> <b>(0.5)</b>	10 (1.2)	4 (1.0)	0 (0.0)	6 (6.7)	4 (1.5)	0 (0.0)	1 (2.0)
환경	75 (1.5)	25 (1.2)	<b>3</b> <b>(1.5)</b>	9 (1.1)	4 (1.0)	2 (1.0)	6 (6.7)	1 (0.4)	0 (0.0)	1 (2.0)
특화교육 시스템	783 (15.8)	305 (15.2)	<b>14</b> <b>(6.9)</b>	120 (14.9)	32 (7.7)	36 (17.6)	5 (5.6)	87 (32.7)	11 (57.9)	0 (0.0)
계	4,958 (100.0)	2,001 (100.0)	<b>202</b> <b>(100.0)</b>	806 (100.0)	415 (100.0)	204 (100.0)	89 (100.0)	266 (100.0)	19 (100.0)	50 (100.0)

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대학의 특성화 목적에 맞게 재분류한 특성화 분류체계임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4)

#### 4. 자원봉사현황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는 ‘지역사회 기여’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주로 교과목 내 자원봉사와 교과목 외 자위봉사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대전 지역의 사회봉사교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지역의 일반 대학은 학교당 약 3.6개, 전문대학은 2.7개를 개설하였다. 일반 대학의 경우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적은 편이며, 전문대학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학교당 개설교과목이 적은 대신 일반대학의 봉사교과목 이수율은 92.2%로 전국 평균 66.0%와 광역시 평균 75.3%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표 Ⅲ-18> 2015년 7대광역시 및 세종시 사회봉사교과목현황**

단위: 개교, 과목, 명, %

구분		대학 봉사교과목 개설현황				봉사교과목 이수율		
		학교 수	봉사교과목 개설학교수	개설 과목수	학교당 개설과목수	수강 학생수	이수 학생수	이수율
전국	일반대학	212	186	993	5.3	237,941	157,118	66.0
	전문대학	149	101	265	2.6	72,086	51,195	71.0
광역시	일반대학	87	77	503	6.5	151,471	114,116	75.3
	전문대학	45	35	89	2.5	29,320	19,001	64.8
대전	일반대학	12	9	32	3.6	6,408	5,911	92.2
	전문대학	5	3	8	2.7	2,906	2,038	70.1
서울	일반대학	42	38	296	7.8	114,703	84,128	73.3
	전문대학	10	8	22	2.8	6,272	4,107	65.5
부산	일반대학	13	13	81	6.2	17,891	14,223	79.5
	전문대학	10	5	10	2.0	3,918	1,725	44.0
대구	일반대학	4	2	5	2.5	1,590	1,444	90.8
	전문대학	8	7	15	2.1	8,860	6,041	68.2
인천	일반대학	4	4	27	6.8	1,329	1,198	90.1
	전문대학	3	3	6	2.0	3,950	2,633	66.7
광주	일반대학	11	10	60	6.0	8,179	5,843	71.4
	전문대학	7	7	20	2.9	2,184	1,391	63.7
울산	일반대학	2	1	2	2.0	1,091	1,091	100.0
	전문대학	2	2	8	4.0	1,230	1,066	86.7
세종	일반대학	3	1	12	12.0	280	278	99.3
	전문대학	1	1	2	2.0	229	137	59.8

주1: 사이버대학교 및 폐교 대학 제외

주2: 학교당 개설과목 수: 개설과목수/봉사교과목 개설학교 수, 이수율: 이수학생수/수강학생수 × 100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6)

두 번째로 대전지역의 사회봉사교과목의 사회봉사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지역 일반대학 11개교에서 83개의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13,637명이 참여하였다. 학교당 개설 프로그램 수 7.5개로 전국 평균 12.0개와 광역시 평균 13.0개보다 적었으며, 광역시 중 울산과 인천 다음으로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당 참여인원수는 164.3명으로 전국 평균 106.2명과 광역시 평균 98.7 명보다 많았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였다.

**<표 Ⅲ-19> 2015년 전국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교과목의 사회봉사현황**

단위: 개교, 과목, 명

구분		학교수	봉사프로그램 개설학교수	봉사 프로그램수	학교당 개설 프로그램수	참여 인원	프로그램 당 참여인원수
전국	일반대학	212	166	1993	12.0	211,754	106.2
	전문대학	149	94	686	7.3	56,386	82.2
광역 시	일반대학	87	71	925	13.0	91,279	98.7
	전문대학	45	25	213	8.5	14,199	66.7
대전	<b>일반대학</b>	<b>12</b>	<b>11</b>	<b>83</b>	<b>7.5</b>	<b>13,637</b>	<b>164.3</b>
	<b>전문대학</b>	<b>5</b>	<b>2</b>	<b>9</b>	<b>4.5</b>	<b>455</b>	<b>50.6</b>
서울	일반대학	42	32	488	15.3	42,593	87.3
	전문대학	10	7	28	4.0	1,475	52.7
부산	일반대학	13	9	158	17.6	16,975	107.4
	전문대학	10	5	78	15.6	2,737	35.1
대구	일반대학	4	3	37	12.3	3,003	81.2
	전문대학	8	4	54	13.5	5,185	96.0
인천	일반대학	4	5	34	6.8	1,599	47.0
	전문대학	3	2	6	3.0	678	113.0
광주	일반대학	11	9	112	12.4	10,046	89.7
	전문대학	7	3	9	3.0	642	71.3
울산	일반대학	2	2	13	6.5	3,426	263.5
	전문대학	2	2	29	14.5	3,027	104.4
세종	일반대학	3	2	49	24.5	7,180	146.5
	전문대학	1	1	33	33.0	451	13.7

주1: 사이버대학교 및 폐교 대학 제외

주2: 학교당 개설프로그램 수: 봉사프로그램 수/봉사프로그램 개설학교수

주3: 프로그램 당 참여인원수: 참여인원/봉사 프로그램 수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11)

대전지역 대학에서 교과목 외 봉사프로그램은 주로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봉사, 환경 정화 등이 있으며, 봉사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00>과 같다.

**<표 Ⅲ-20> 대전 지역 대학의 봉사프로그램 세부내용**

학교이름	내용		
KAIST	소외지역방문리더십 아카데미, 한국장학재단 지식 멘토링 캠프, KAIST 멘터와 함께하는 도전! 골든벨,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해외봉사, 신입생 꽃동네 봉사·연수, 리더십 마일리지제 등		
충남대	하·동계 해외봉사, 백마봉사단(교내 정화, 지역 취약계층 지원 봉사, 벽화 봉사, 지역 정화 활동 등), 농촌봉사활동, 동아리봉사활동(지역아동 보호, 학습 지원, 장애인 지원봉사 등)		
한밭대	해외봉사 활동, 농촌봉사활동, 지식봉사활동(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아동 교육활동), 학생봉사단(환경정화, 장애인 도우미, 김장담그기) 등		
한남대	한남 사회봉사단(사회복지시설, 지역행사 지원 봉사 등), 농촌봉사활동, 해외봉사활동 등		
일반 대학	우송대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 노인요양원 방문, 사랑의 연탄나누기, 환경미화, 재능기부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무료 급식 봉사활동, 지역 우범지역 순찰 활동 등	
	배재대	다문화 교육센터, 배재시민법률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 배재재능봉사단	
	목원대	전문학문연계봉사프로그램, 목원사회봉사주간(교육봉사, 환경정화, 애국봉사, 복지봉사, 헌혈 등), 소록도 봉사활동, 해외봉사프로그램, 1004 프로젝트, 농촌 봉사활동 등	
	대전대	의료봉사, 해외봉사, 농촌봉사활동, 헌혈봉사, 교육기부 등	
	을지대	농촌봉사활동	
	건양대	사랑의 나눔봉사(김장, 연탄), 사랑의 몰래 산타 대작전, 교내 환경정화, 농촌봉사활동, 벽화봉사, 나눔지기 등	
	침례신학대	with 마라톤, 교회지원전도단	
	전문 대학	우송정보대	동광초 주변 환경정리 및 하굿길 안전지도, 동구 대동천 주변 환경정리
		대덕대	연탄나눔배달봉사, 다문화체험부스 운영, 헌혈봉사, 결식학생 조식제공 봉사활동
		대전보건대	찾아가는 의료봉사, 지역 농가 돕기, 취약계층 지원봉사, 지역 사회 축제 도우미 지원봉사 등
KOPO IV		사회봉사활동	

주1: 2014년 운영된 봉사프로그램 기준

주2: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UST, 대전신학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자료: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검색일 2016. 10. 4)

이처럼 ‘지역사회 기여’의 일환은 현재 대전 지역 대학에서는 많은 자원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나가고 있다. 대전 지역 대학의 경우 사회봉사 교과목이나 교과목 외 프로그램 모두 학교당 운영되고 있는 수는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이수율이나 참여인원 수는 가장 높은 편이다. 그리고 각각의 대학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으며, 재능기부, 환경정화, 헌혈봉사 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5. 지역대학의 인재배출 현황

지역 대학의 인재배출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취업률과 진학률이다. 여기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졸업통계현황을 바탕으로 전국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졸업현황을 살펴보았다. 대전의 취업률은 68.5%로 전국 평균(67.0%)과 광역시 평균(67.4%)보다 높았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72.9%, 인천 70.3%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전의 진학률 또한 8.6%로 전국(6.7%)과 광역시 평균(8.4%)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10.7%) 다음으로 높았다.

〈표 Ⅲ-21〉 2014년 전국 7대 광역시 및 세종시 졸업현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취업대상자	취업자	진학자	취업률	진학률
전국	1,114,468	976,398	654,372	75,064	67.0	6.7
광역시	263,332	225,449	151,985	22,115	67.4	8.4
대전	28,990	24,507	16,788	2,489	68.5	8.6
서울	116,034	96,139	65,050	12,360	67.7	10.7
부산	47,112	42,001	27,945	2,756	66.5	5.8
대구	26,701	23,602	15,414	1,625	65.3	6.1
인천	15,449	13,807	9,710	987	70.3	6.4
광주	21,933	18,939	12,374	1,405	65.3	6.4
울산	7,113	6,454	4,704	493	72.9	6.9
세종	3,747	3,280	2,101	308	64.1	8.2

주1: 2014년 12월 31일 기준

주2: • 취업률 = 취업자/취업대상자\*100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100

주3: 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인정자+ 외국인유학생)

주4: • 취업자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 진학자 = 대학원 진학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10. 11)

대전 지역대학의 최근 취업률 및 진학률을 살펴보면, 취업률은 2011년이 68.4%로 가장 낮았으며, 2013년이 69.3%로 제일 높았으나 평균적으로 68% 수준의 취업률을 보였다. 진학률도 최근 4년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8% 수준의 진학률을 보였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최근 4년 간 대전의 취업률이나 진학률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2> 대전 지역대학의 취업률 및 진학률(2011~2014)**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취업률	68.4	68.6	69.3	68.5
진학률	8.2	8.1	8.4	8.6

주1: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

주2: 2010년부터는 건강보험 DB연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로 바뀌어, 이전 자료와 기준이 달라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워 2010년 이전 취업률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10. 11)

대전의 취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지역 인재 유출 또한 높게 나타났다. 대전 지역 대학생들이 졸업 후 학교 소재지에 취업하는 비율은 47.9%로 전국 평균 50.5%와 광역시 평균 64.5%보다 낮았으며, 전국에서는 인천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활용된 자료가 2009년 자료이므로 오늘날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재육성정책을 고려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Ⅲ-23> 2009년<sup>15)</sup> 전국 7대 광역시 지역대학 인재유출 현황**

단위: 명, %

구분	취업자수	출신지역 취업자 수	출신지역 취업률	타 지역 취업률
전국	169,277	85,530	50.5	49.5
광역시	77,841	50,237	64.5	35.5
대전	7,945	3,804	47.9	52.1
서울	36,292	27,366	75.4	24.6
부산	16,868	10,294	61.0	39.0
대구	5,145	2,683	52.1	47.9
인천	2,774	790	28.5	71.5
광주	7,166	4,131	57.6	42.4
울산	1,651	1,169	70.8	29.2

주1: 2009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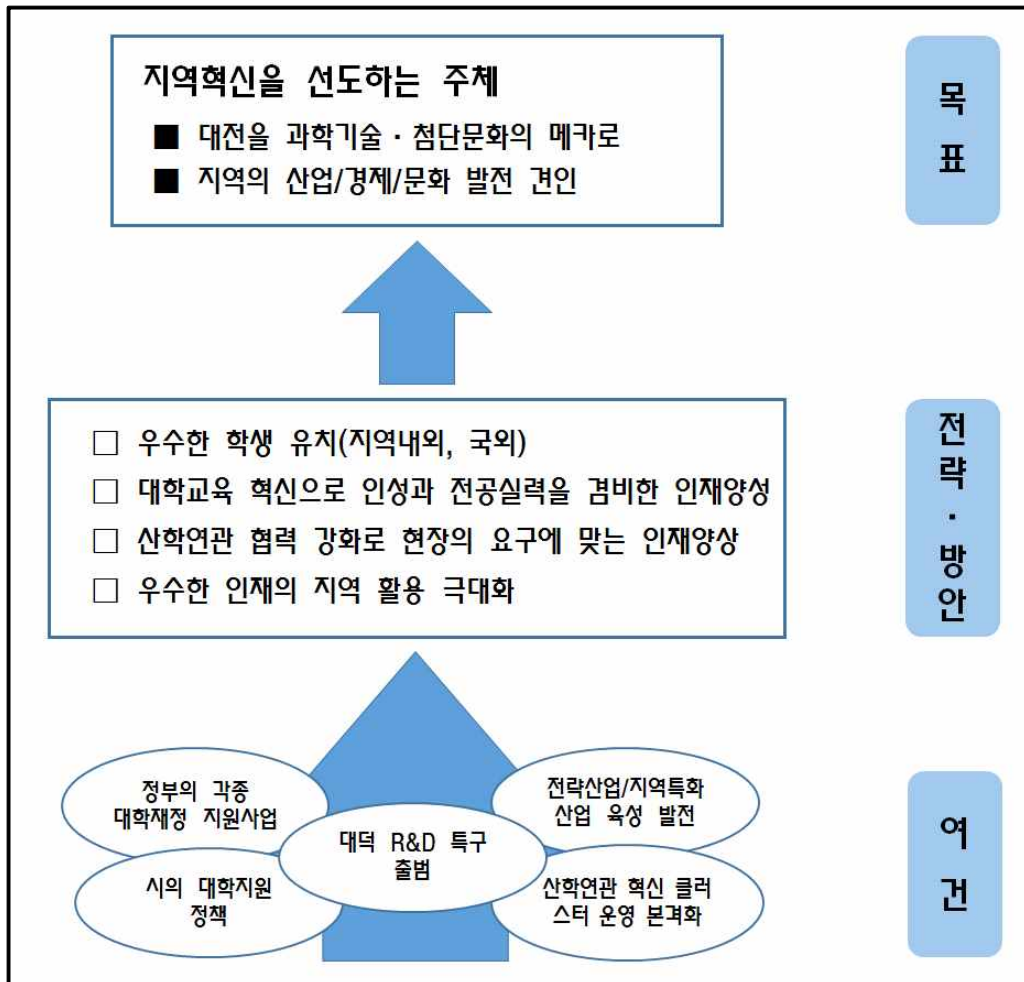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16. 10. 11)

15) 교육통계가 2010년부터 건강보험 DB연계 조사로 바뀌면서 2009년 이후 출신학교 소재지와 취업근무지별 취업자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음. 2009년 이후 각 지자체 별로 지역인재육성정책이 다양하게 나타난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고,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제3절 대전광역시의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

#### 1. 대전시 대학협력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대전시 대학교육의 비전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목표하에 지역내외의 여러 여건을 기반으로 하여,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이들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이러한 우수 인력을 최대한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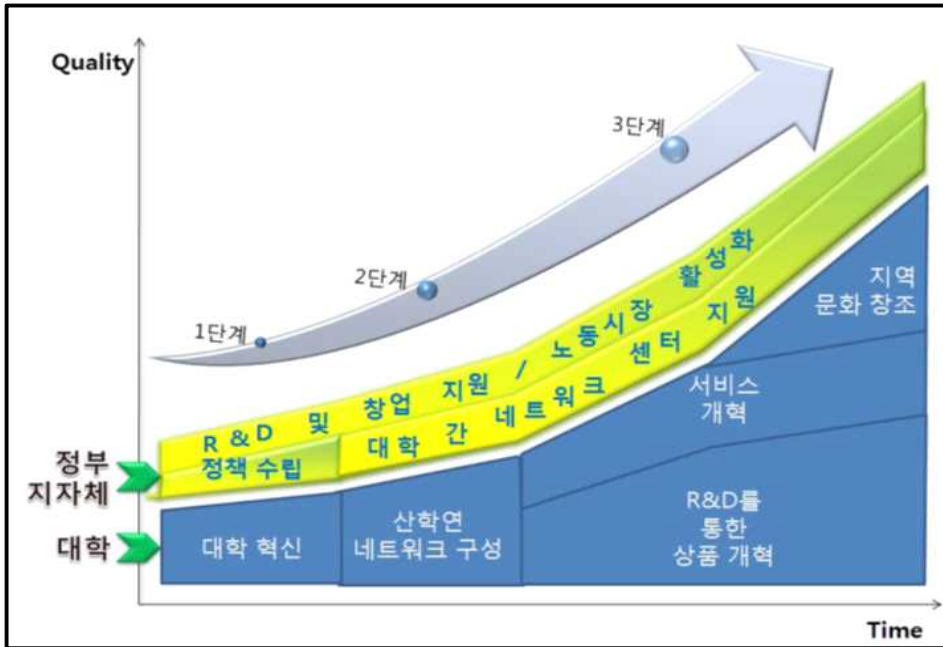


[그림 Ⅲ-3] 대전시 대학 교육의 비전



이러한 방향 설정에 따라 그동안 대전시는 대학협력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왔으며, 타시도에 앞서 대학협력계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각 기관과의 연계의 중심으로 활용해 왔다.

향후 이러한 지원과 협력사업을 통하여 대학혁신의 1차 단계에서 지역의 문화를 창조하는 혁신의 주체로 대학을 육성할 단계적 대학협력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Ⅲ-4] 단계적 대학협력 및 발전방안

## 2. 세부 추진 과제 및 사업들

이하에서는 2012년 대학협력사업으로 대학협력계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과제의 성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대전광역시는 대학협력 및 지원사업을 타시도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낳게 되었으며, 타시도에 비하여 대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Ⅲ-5] 대학협력 지원사업의 보완

## 제 4 장

---

### 대학생 정책지원 요구 분석

---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생활실태와 지원 요구 설문 분석

제3절 소결 및 정책함의

---



# 제4장 대학생 정책지원 요구 분석

## 제 1절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본 연구과제인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대전 시민의 대전의 대학입지 여건 및 정책지원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역할 인식,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 지원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대전 시민들의 지역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모델을 수립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표집방법은 비례층화표집을 채택하였다. 대전시 5개 자치구별로 층화한 후 성별/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6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8일까지 총 4일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자는 현재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시민이었다.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설문 내용을 교육 받은 조사원들이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토 후,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총 315개의 설문이 회수 되어, 연구에 사용되었다.

조사된 설문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50.2%(158명), 여성이 49.8%(157명)으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본 조사의 대상이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시민이고,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성비는 100.10으로 거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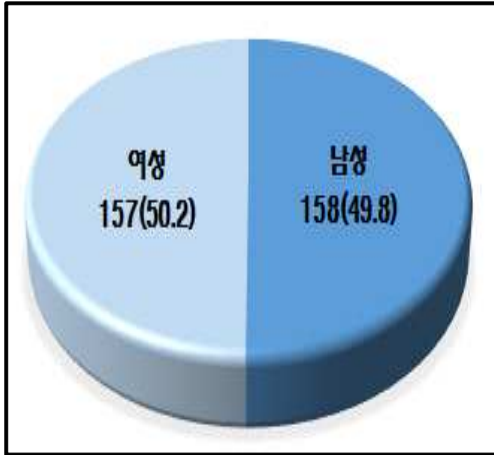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사가 타당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은 20대가 34.9%(110명)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감소하였다. 평균 연령은 36.03세 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1.88세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서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된 이유는 20대가 지역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로 해당 연구 문제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거주지는 서구가 21.0%(66명)로 가장 높았으며, 대덕구가 19.0%(6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높은 응답률이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차이가 2%(6명) 밖에 안 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비례하게 조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응답 비율이 29.5%(9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5년 미만(20.6%, 65명), 5~10년 미만(16.5%, 52명), 15~20년 미만(15.2% 48명), 10~15년 미만(10.2%, 32명)순으로 나타났으며, 1년 미만이 7.9%(2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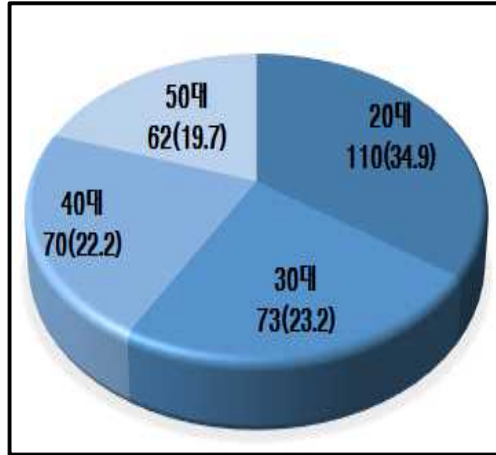
**<표 IV-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성	158	50.2
	여성	157	49.8
연령대 <sup>1)</sup>	20대	110	34.9
	30대	73	23.2
	40대	70	22.2
	50대	62	19.7
거주지	동구	62	19.7
	중구	64	20.3
	서구	66	21.0
	유성구	63	20.0
	대덕구	60	19.0
거주기간	1년 미만	25	7.9
	1년-5년 미만	65	20.6
	5년-10년 미만	52	16.5
	10년-15년 미만	32	10.2
	15-20년 미만	48	15.2
	20년 이상	93	29.5
합계		3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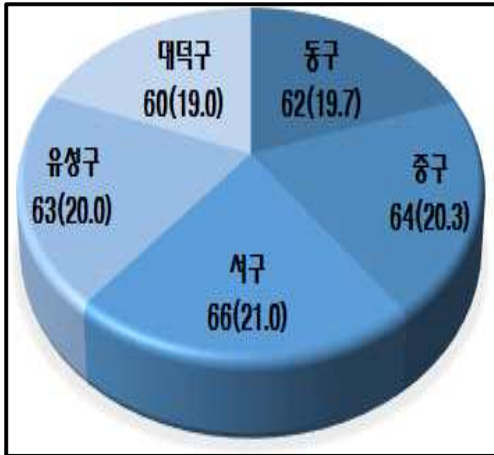
주: 평균 연령은 36.03세이며, 표준편차는 11.88세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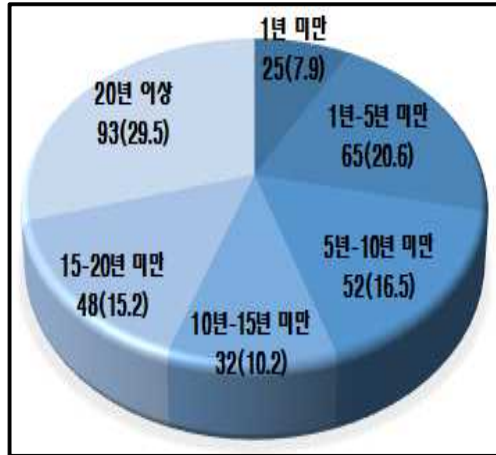
[그림 IV-1] 응답자의 성별



[그림 IV-2] 응답자의 연령대



[그림 IV-3] 응답자의 거주지



[그림 IV-4] 응답자의 거주기간

설문의 문항은 대전 시민의 대전의 대학입지 여건 및 정책지원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역할 인식,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 지원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의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2> 설문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대전외 대학입지 여건 및 정책지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외 대학생 생활 적합성</li> <li>- 지역대학 상황에 대한 동의정도</li> </ul>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역할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이 수행해야할 역할</li> <li>-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li> <li>-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 필요성</li> <li>- 지역대학과 지역주민 간의 이상적 협력 관계</li> </ul>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 지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학 졸업생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li> <li>-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의 졸업생 취업 제고를 위한 역할</li> <li>- 대전시가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노력</li> <li>- 지역 대학 지원을 위해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둘 영역</li> <li>-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li> <li>- 2016년 대전시 대학지원사업 인지여부 및 필요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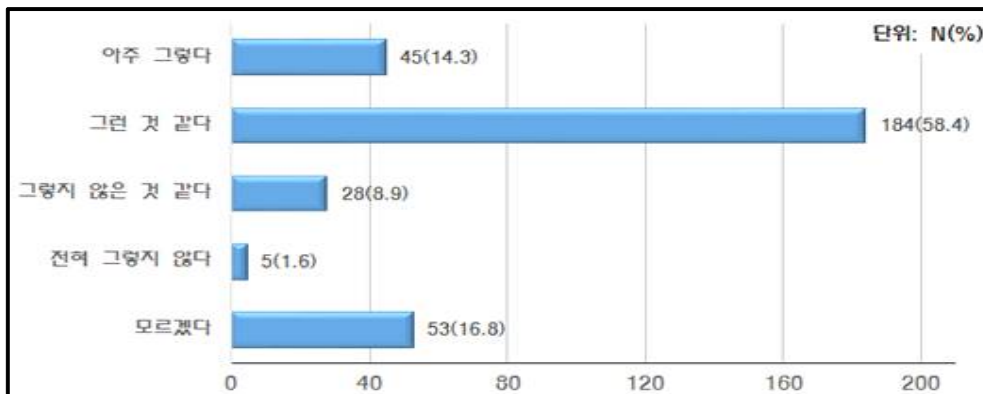
## 제 2절 대전의 대학입지 여건 및 정책지원 평가

### 1. 타 도시 대비 대전의 대학생 생활 적합성

대전이 타 도시에 비해 대학생들이 생활하기 적합한 도시라고 평가한 사람은 강한 긍정 14.3%(45명), 약한 긍정 58.4%(184명)으로 응답자의 72.7%(229명)가 대전이 대학생이 생활하기 적합한 도시라고 평가하였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강한 부정 1.6%(5명), 약한 부정 8.9%(2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0.5%(33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대전시를 대학생이 생활하기 적합한 도시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체응답자 중 16.8%(53명)은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대답을 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IV-3> 타도시 대비 대전의 대학생 생활 적합성**

구분	N	%
아주 그렇다	45	14.3
그런 것 같다	184	58.4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8	8.9
전혀 그렇지 않다	5	1.6
모르겠다	53	16.8
합계	315	100.0



**[그림 IV-5] 타도시 대비 대전의 대학생 생활 적합성**

## 2. 지역대학의 상황에 대한 동의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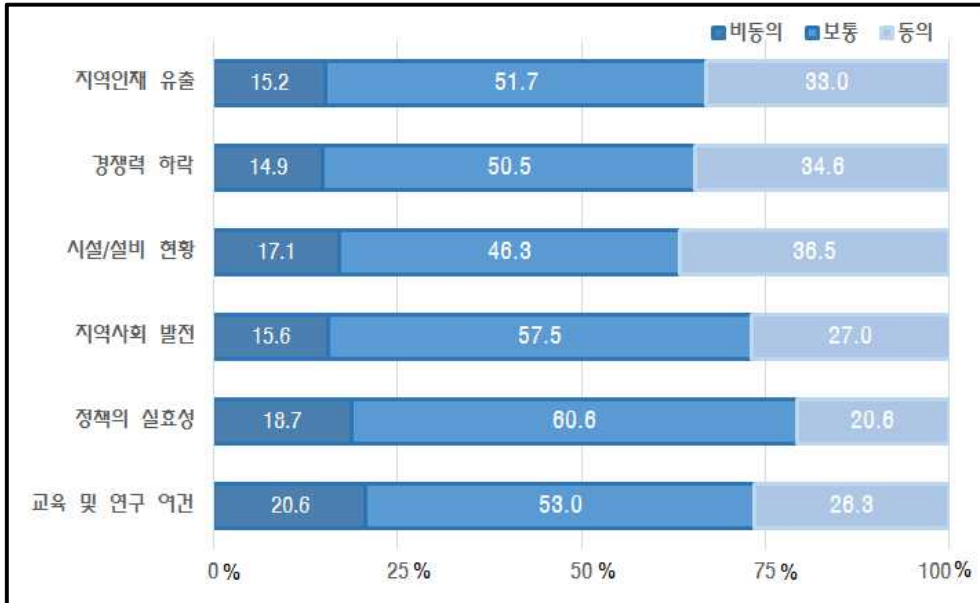
현재 대전의 지역대학의 상황에 대한 동의정도를 물어본 결과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동의보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동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인재유출, 경쟁력 하락, 열악한 시설 설비로 구성된 부정적 상황에 대한 평균 점수는 3.23점이었으며, 34.7%(328명)가 부정적 상황에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대학의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 역할, 대전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지방 대학들의 교육 여건과 같은 긍정적 상황에 대한 평균점수는 3.06점이었으며, 27.0%(233명)가 동의하였다.

부정적 상황의 경우 대전 지역 대학의 경쟁력 하락(3.24점), 수도권 대비 열악한 학생 1인 당 시설 설비 현황(3.22점), 대전 지역 인재의 타 지역 유출(3.21점)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상황은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 인재 육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3.10점)이 가장 높은 동의를 얻었으며, 대전시가 지방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3.02점)이 가장 낮은 동의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전이 대학생들이 생활하기에는 적합한 도시지만, 대학이 놓여 있는 전반적인 상황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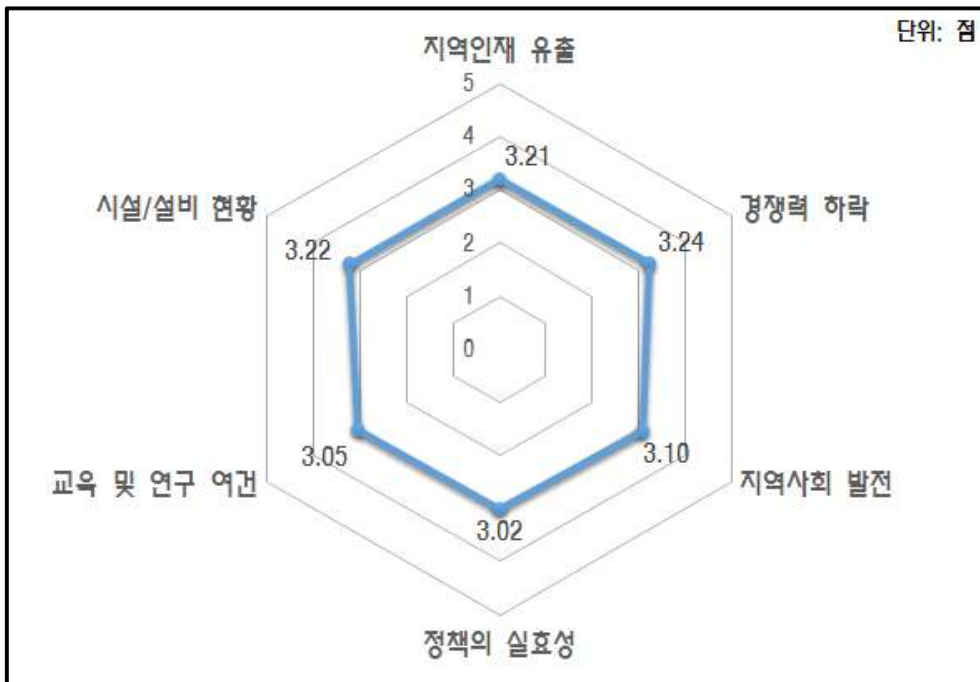
〈표 IV-4〉 지역대학상황의 동의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점수
부정적 상황	20 (2.1)	129 (13.7)	468 (49.5)	273 (28.9)	55 (5.8)	945 (100.0)	3.23
대전인재의 타 지역 유출	10 (3.2)	38 (12.1)	163 (51.7)	83 (26.3)	21 (6.7)	315 (100.0)	3.21
대학의 경쟁력하락	3 (1.0)	44 (14.0)	159 (50.5)	91 (28.9)	18 (5.7)	315 (100.0)	3.24
수도권 대비 학생 1인당 시설/설비현황	7 (2.2)	47 (14.9)	146 (46.3)	99 (31.4)	16 (5.1)	315 (100.0)	3.22
긍정적 상황	26 (2.8)	147 (15.6)	539 (57.0)	215 (22.8)	18 (1.9)	945 (100.0)	3.06
지역사회발전과 인재육성의 역할	9 (2.9)	40 (12.7)	181 (57.5)	80 (25.4)	5 (1.6)	315 (100.0)	3.10
대전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8 (2.5)	51 (16.2)	191 (60.6)	58 (18.4)	7 (2.2)	315 (100.0)	3.02
지방대학들의 교육/연구 여건	9 (2.9)	56 (17.8)	167 (53.0)	77 (24.4)	6 (1.9)	315 (100.0)	3.05

\* 평균점수: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합계



[그림 IV-6] 지역대학상황의 동의정도(빈도)



[그림 IV-7] 지역대학상황의 동의정도(평균점수)

### 제 3절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역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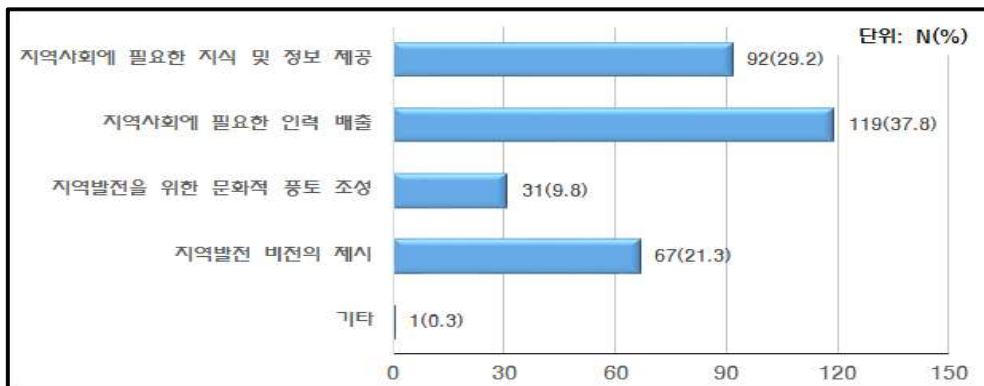
#### 1.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이 수행해야할 역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이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 배출(37.8%, 119명)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29.2%, 92명), 지역발전 비전의 제시(21.3%, 67명)로 나타났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적 풍토조성은 앞선 3문항보다는 낮은 빈도(9.8%, 31명)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긍정적인 상황에 있어 지역 대학의 지역발전과 인재 육성이 가장 큰 동의를 얻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 시민들은 현재 지역 대학이 지역발전과 인재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5〉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이 수행해야할 역할

구분	N	%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	92	29.2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 배출	119	37.8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적 풍토 조성	31	9.8
지역발전 비전의 제시	67	21.3
기타(일자리 연계)	1	0.3
무응답	5	1.6
합계	3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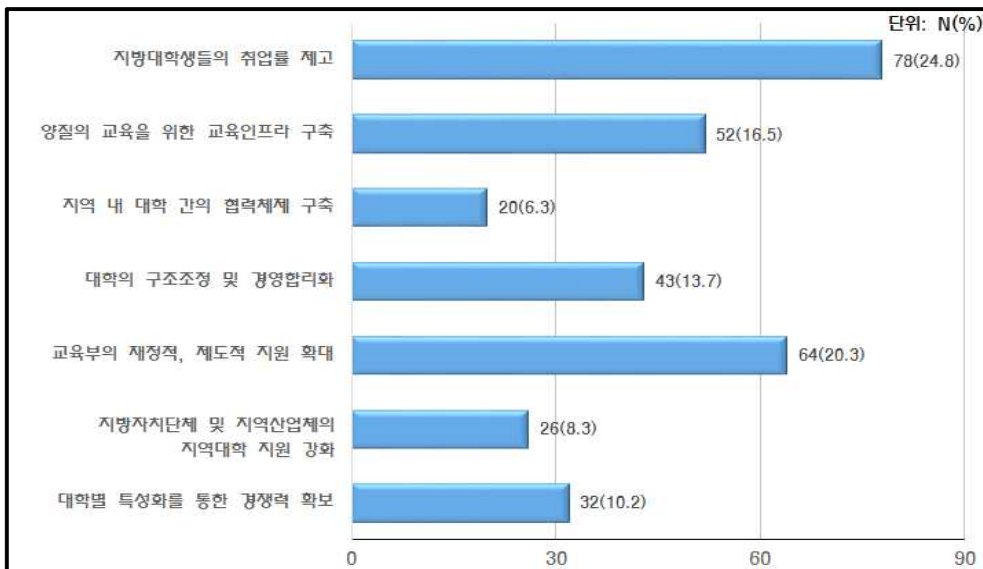
[그림 IV-8]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대학이 수행해야할 역할

## 2.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중 지방대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24.8%, 78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교육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확대(20.3%, 64명),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16.5%, 52명), 대학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13.7%, 43명),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10.2%, 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취업난이라는 청년 문제의 해결과 함께 다양한 지원과 개혁을 통한 지역 대학의 경쟁력확보를 핵심과제로 바라보았다.

〈표 IV-6〉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구분	N	%
지방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	78	24.8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52	16.5
지역 내 대학 간의 협력체제 구축	20	6.3
대학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43	13.7
교육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확대	64	20.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체의 지역대학 지원 강화	26	8.3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32	10.2
합계	315	100.0



[그림 IV-9]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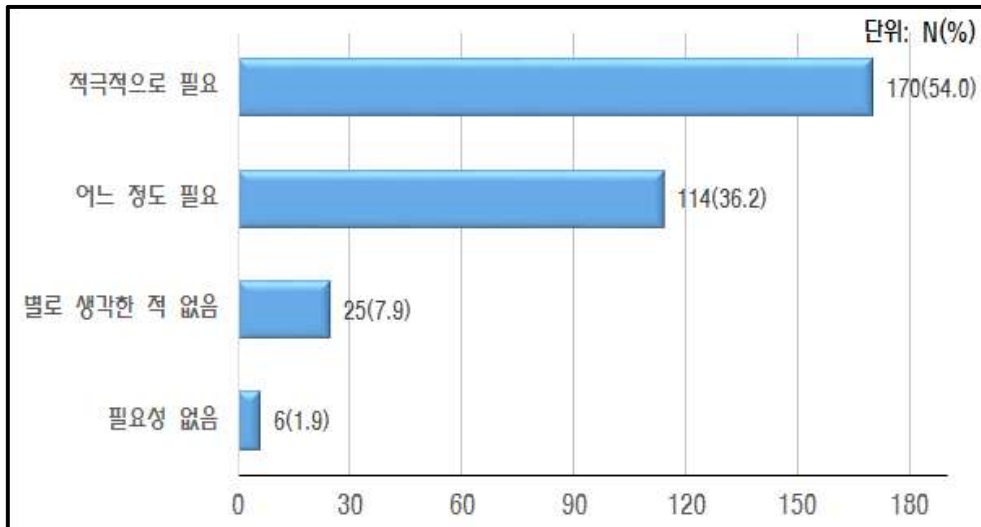
### 3.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시민 간의 협력체계에 대한 인식

#### 1)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0.2%(284명)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소극적 응답(36.2%, 114명)보다 적극적 응답(54.0%, 170명)이 더 높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의 비율은 7.9%(25명)이었으며, 단지 1.9%(6명)만이 협력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시민들은 지역과 지역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IV-7>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 필요성**

구분	N	%
적극적으로 필요	170	54.0
어느 정도 필요	114	36.2
별로 생각한 적 없음	25	7.9
필요성 없음	6	1.9
합계	3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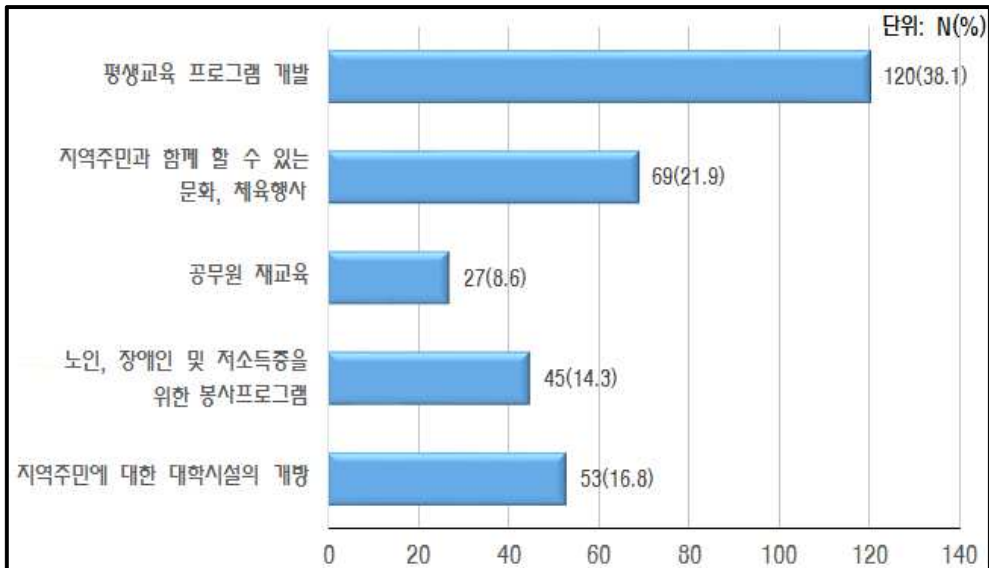
**[그림 IV-10]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 필요성**

## 2) 지역대학과 지역주민 간의 이상적 협력관계

지역대학과 지역주민 간의 이상적 협력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선택된 상위 3가지 문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38.1%, 120명),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 체육행사(21.9%, 69명), 지역주민에 대한 대학시설의 개방(16.8%, 53명)이었다. 상위 3가지 항목을 분석해 볼 때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8> 지역대학과 지역주민 간의 이상적 협력 관계**

구분	N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120	38.1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체육행사	69	21.9
공무원 재교육	27	8.6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프로그램	45	14.3
지역주민에 대한 대학시설의 개방	53	16.8
무응답	1	0.3
합계	315	100.0



**[그림 IV-11] 지역대학과 지역주민 간의 이상적 협력 관계**

## 제 4절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 지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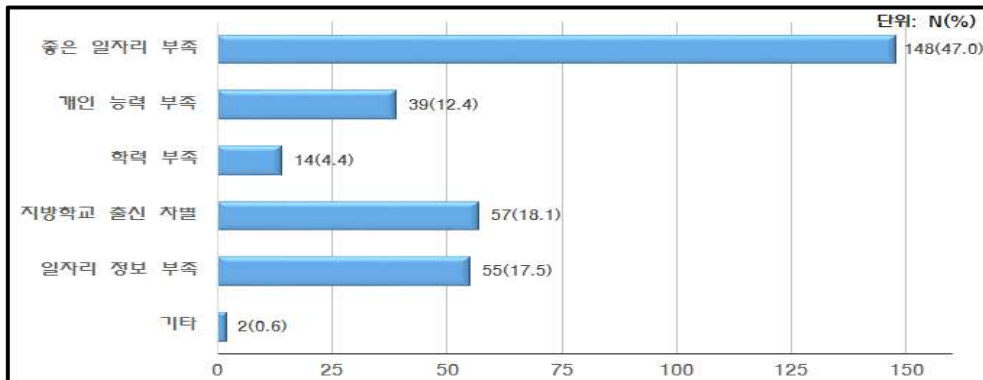
### 1.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문제에 대한 인식

#### 1) 지역대학 졸업생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하기 가장 큰 이유로 좋은 일자리 부족(47.0%, 148명)을 보았으며, 그 밖에 취업 시장에서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차별(18.1%, 57명), 일자리 정보 부족(17.5%, 55명), 개인 능력 부족(12.4%, 39명) 순으로 보았다. 학력 자체가 부족해서 취업하기 어렵다라고 본 사람은 4.4%(14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학력자체는 상향평준화되었지만 일자리 부족과 함께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지방학교에 대한 차별, 일자리 정보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 미흡, 취업에 도움 되는 능력 향상프로그램 부족이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표 IV-9〉 지역대학 졸업생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

구분	N	%
좋은 일자리 부족	148	47.0
개인 능력 부족	39	12.4
학력 부족	14	4.4
지방학교 출신 차별	57	18.1
일자리 정보 부족	55	17.5
기타(3d직중기피현상, 취업의지 부족)	2	0.6
합계	315	100.0



[그림 IV-12] 지역대학 졸업생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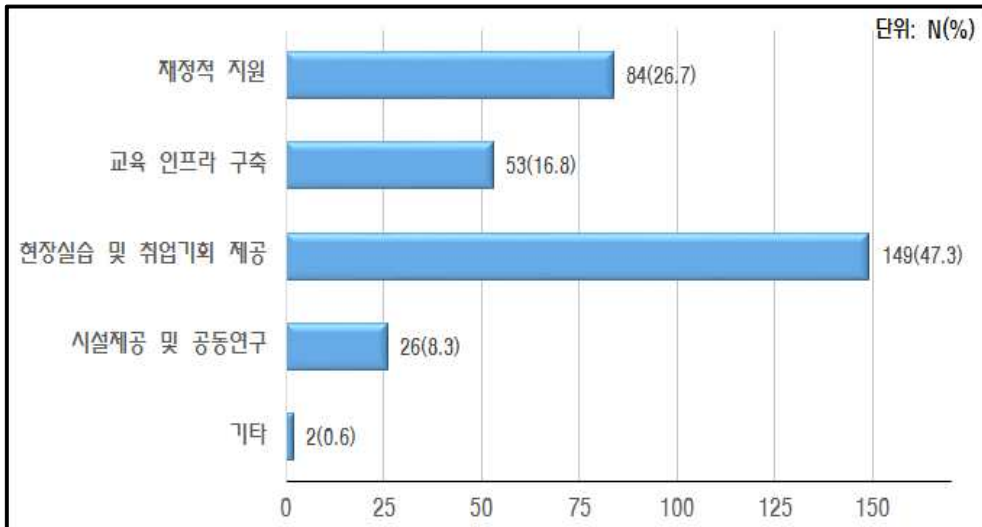


## 2)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의 지역대학 졸업생 취업 제고를 위한 역할

지역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제고를 위한 지자체 및 지역 산업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현장 실습 및 취업 기회제공(47.3%, 149명)이 선택되었으며, 그 밖에 재정적 지원(26.7%, 84명), 교육 인프라 구축(16.8%, 5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은 졸업생 취업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회 및 현장학습으로 보았으며, 이와 함께 재정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의 지역대학 졸업생 취업 제고를 위한 역할

구분	N	%
재정적 지원	84	26.7
교육 인프라 구축	53	16.8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 제공	149	47.3
시설제공 및 공동연구	26	8.3
기타(취업정보제공, 4대 보험 가입의무화)	2	0.6
무응답	1	0.3
합계	3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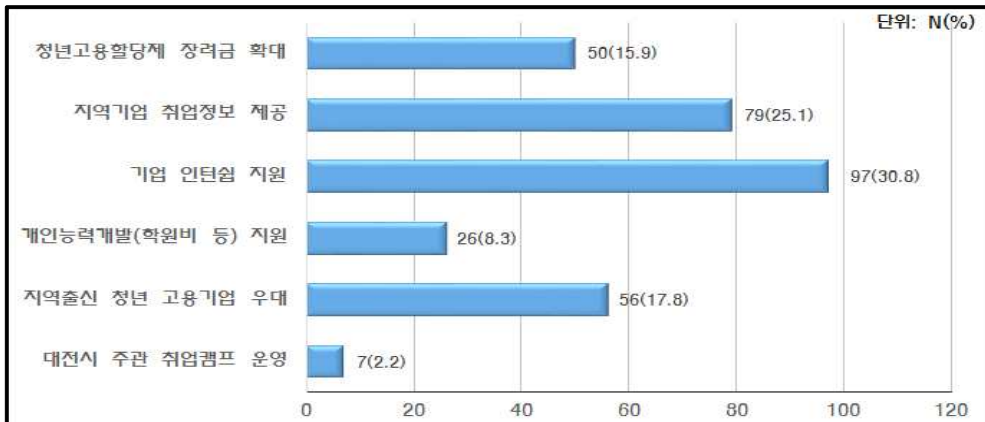
[그림 IV-13]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의 지역대학 졸업생 취업 제고를 위한 역할

### 3) 대전시가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할 것

특별히 대전시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원해줘야 할 것은 앞선 질문들과 비슷하게 기업 인턴쉽 지원(30.8%, 97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업난 자체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일할 기회가 부족해지면서 생겨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쉽이나 현장실습과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지역 기업 취업정보 제공(25.1%, 79명)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앞서 취업난의 원인에 있어 일자리 정보 부족이 취업난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지역 출신 청년 고용기업 우대(17.8%, 56명), 청년고용할당제 장려금 확대(15.9%, 50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서 취업난의 이유로 개인 능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삼은데 반해, 대전시의 지원에 있어서 개인능력개발 지원(8.3%, 26명)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보았다.

<표 IV-11> 특별히 대전시가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

구분	N	%
청년고용할당제 장려금 확대	50	15.9
지역기업 취업정보 제공	79	25.1
기업 인턴쉽 지원	97	30.8
개인능력개발(학원비 등) 지원	26	8.3
지역출신 청년 고용기업 우대	56	17.8
대전시 주관 취업캠프 운영	7	2.2
합계	315	100.0



[그림 IV-14] 특별히 대전시가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

## 2. 지역 대학 및 대학생을 위한 대전시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1) 지역 대학 및 대학생 지원을 위해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둘 영역

지역 대학 및 대학생 지원에 있어 대전시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으로 지역 대학생 취업 기회 확대(29.3%)이 선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와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20.0%), 대학생 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14.1%)이 나타났다. 나머지 영역들은 10% 내외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 앞선 응답들의 결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역 대학과 대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취업난 이며, 이 문제는 대학 자체적인 해결보다는 시와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표 IV-12> 지역 대학 및 대학생 지원을 위해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둘 영역(다중응답)

구분	N	%
시와 대학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122	20.0
캠퍼스의 지역화/지역의 캠퍼스화 추진	75	12.3
대학생 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86	14.1
대학 커뮤니티 커넥트 운영	71	11.6
지역대학생 취업기회 확대	179	29.3
대학생 시정참여 및 행정지원	77	12.6
기타(장학 및 유학제도 활성화)	1	0.2
합계	6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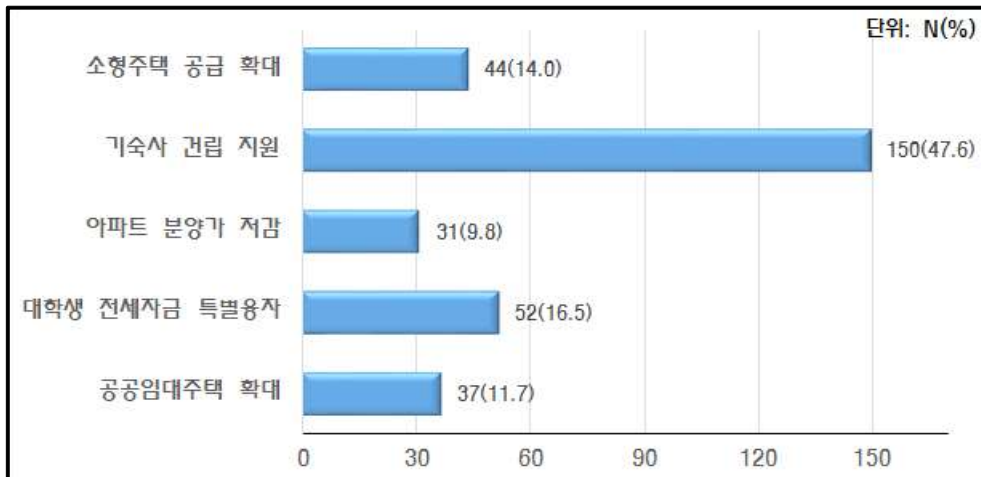
[그림 IV-15] 지역 대학 및 대학생 지원을 위해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둘 영역(다중응답)

## 2) 지역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대학 전반적 상황 및 취업 문제 이외에도 지역 대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물어본 결과 기숙사 건립 지원(47.6%, 15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생 전세자금 특별용자(16.5%, 52명), 소형주택 공급확대(14.0%, 44명), 공공임대 확대(11.7%, 37명), 아파트 분양가 저감(9.8%, 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 중 기숙사 건립 지원이 50%에 가깝게 나타난 것으로 보면, 다수의 시민들이 다른 지원제도들에 비해 기숙사 건립 지원을 주거안정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3〉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구분	N	%
소형주택 공급 확대	44	14.0
기숙사 건립 지원	150	47.6
아파트 분양가 저감	31	9.8
대학생 전세자금 특별용자	52	16.5
공공임대주택 확대	37	11.7
무응답	1	0.3
합계	3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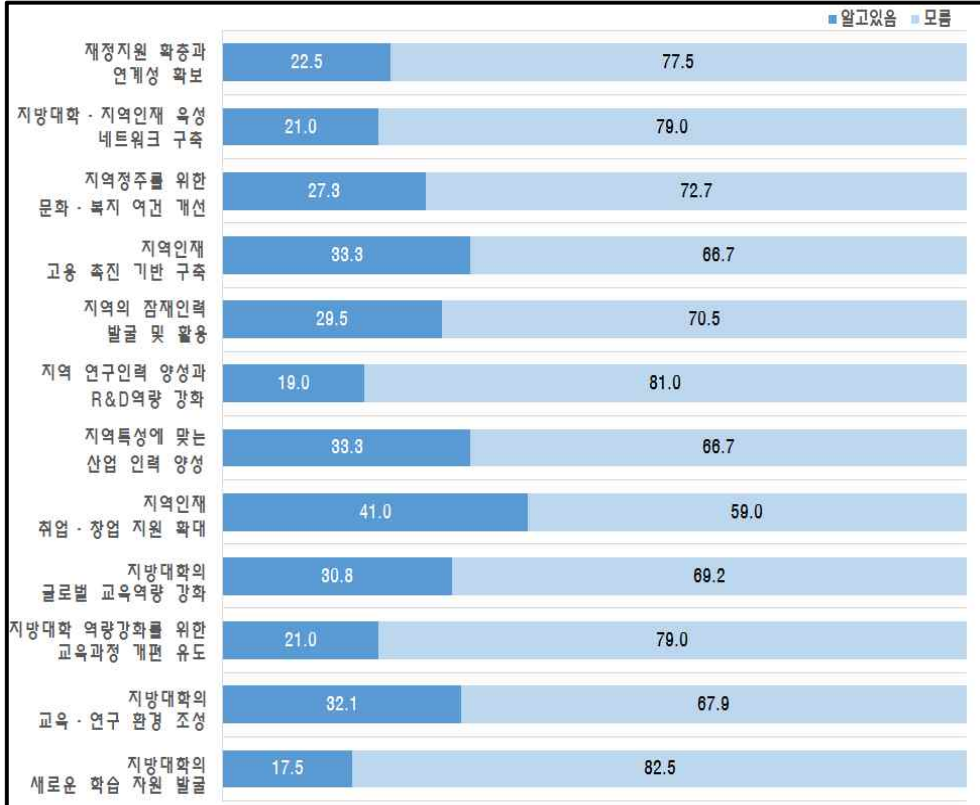
[그림 IV-16]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 3) 2016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지원 사업 인지여부

마지막으로 2016년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12개의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의 평균적인 인지율은 27.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지역인재 취업·창업 지원 확대 사업(41.0%)이었으며, 가장 낮은 인지율을 보인 사업은 지방대학의 새로운 학습 자원 발굴 사업(17.5%)이었다. 12개의 지원사업 중 50%이상의 인지율을 보인 사업은 없었으며, 인지율이 40%~50%인 사업은 1개에 불과했으며, 30%~40% 4개, 20%~30% 5개, 20% 이하는 2개였다. 전반적으로 대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지원사업에 대해 저조한 인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IV-14> 2016년 대전시 대학지원사업 인지여부**

	알고있음	모름	합계
지방대학의 새로운 학습 자원 발굴	55(17.5)	260(82.5)	315(100.0)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환경 조성	101(32.1)	214(67.9)	315(100.0)
지방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유도	66(21.0)	249(79.0)	315(100.0)
지방대학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	97(30.8)	218(69.2)	315(100.0)
지역인재 취업·창업 지원 확대	129(41.0)	186(59.0)	315(100.0)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인력 양성	105(33.3)	210(66.7)	315(100.0)
지역 연구인력 양성과 R&D역량 강화	60(19.0)	255(81.0)	315(100.0)
지역의 잠재인력 발굴 및 활용	93(29.5)	222(70.5)	315(100.0)
지역인재 고용 촉진 기반 구축	105(33.3)	210(66.7)	315(100.0)
지역정주를 위한 문화·복지 여건 개선	86(27.3)	229(72.7)	315(100.0)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	66(21.0)	249(79.0)	315(100.0)
재정지원 확충과 연계성 확보	71(22.5)	244(77.5)	315(100.0)
합계	1,034(27.4)	2,746(72.6)	3,780(100.0)



[그림 IV-17] 2016년 대전시 대학지원사업 인지여부

#### 4) 2016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지원 사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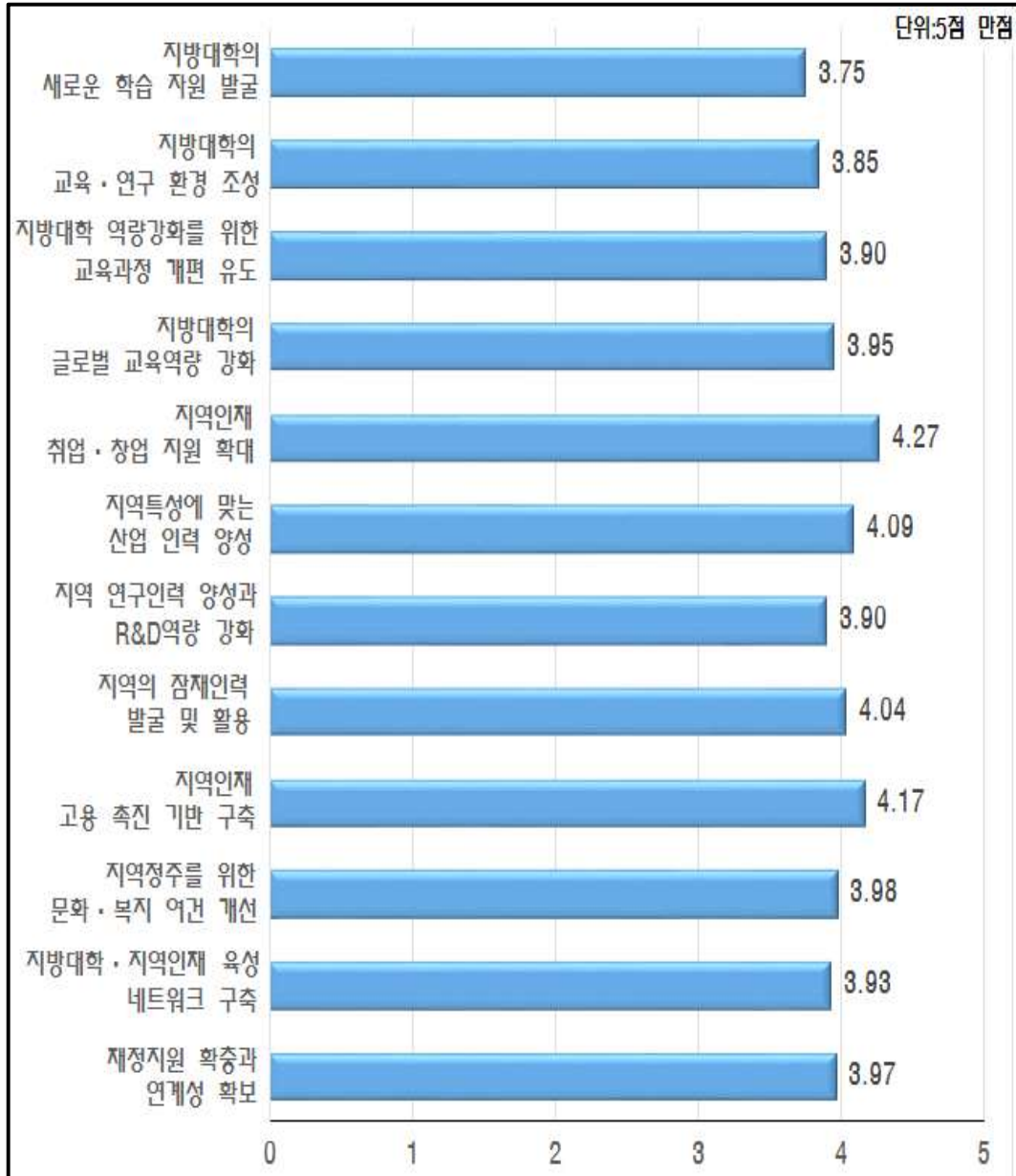
대전시 추진하고 있는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저조한 인지율과는 달리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인 대학지원사업의 합계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6.3%인데 반해, 필요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2%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인 대학지원사업에 필요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9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2개의 지원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난 사업은 지역인재 취업 · 창업 지원 확대 사업으로 평균 점수가 4.27점이었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7%였다. 그 다음으로 지역인재 고용 촉진 기반 구축 사업(4.17점),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인력 양성 사업(4.09점), 지역의 잠재인력 발굴 및 활용 사업(4.04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탄 사업은 지방대학의 새로운 학습 자원 발굴 사업으로 3.75점이었지만,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7.3%로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앞선 응답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사업은 주로 지역 대학생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 정주를 위한 조건 개선, 재정지원, 대학 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사업 이었다.

**<표 IV-15> 2016년 대전시 대학지원사업의 필요성**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그저 그러함	필요함	반드시 필요	합계	평균 점수
지방대학의 새로운 학습 자원 발굴	1 (0.3)	13 (4.1)	89 (28.3)	173 (54.9)	39 (12.4)	315 (100.0)	3.75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환경 조성	1 (0.3)	17 (5.4)	63 (20.0)	180 (57.1)	54 (17.1)	315 (100.0)	3.85
지방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유도	1 (0.3)	13 (4.1)	68 (21.6)	169 (53.7)	64 (20.3)	315 (100.0)	3.90
지방대학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	1 (0.3)	7 (2.2)	65 (20.6)	175 (55.6)	67 (21.3)	315 (100.0)	3.95
지역인재 취업·창업 지원 확대	1 (0.3)	3 (1.0)	41 (13.0)	134 (42.5)	136 (43.2)	315 (100.0)	4.27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인력 양성	0 (0.0)	7 (2.2)	56 (17.8)	155 (49.2)	97 (30.8)	315 (100.0)	4.09
지역 연구인력 양성 과 R&D역량 강화	3 (1.0)	7 (2.2)	76 (24.1)	162 (51.4)	67 (21.3)	315 (100.0)	3.90
지역의 잠재인력 발굴 및 활용	2 (0.6)	10 (3.2)	49 (15.6)	166 (52.7)	88 (27.9)	315 (100.0)	4.04
지역인재 고용 촉진 기반 구축	0 (0.0)	9 (2.9)	46 (14.6)	143 (45.4)	117 (37.1)	315 (100.0)	4.17
지역정주를 위한 문화·복지 여건 개선	0 (0.0)	11 (3.5)	70 (22.2)	149 (47.3)	85 (27.0)	315 (100.0)	3.98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	1 (0.3)	10 (3.2)	73 (23.2)	157 (49.8)	74 (23.5)	315 (100.0)	3.93
재정지원 확충과 연계성 확보	1 (0.3)	1 (0.3)	81 (25.7)	157 (49.8)	75 (23.8)	315 (100.0)	3.97
합계	12 (0.3)	108 (2.9)	777 (20.6)	1,920 (50.8)	963 (25.5)	3,780 (100.0)	3.98



[그림 IV-18] 2016년 대전시 대학지원사업의 필요성



## 제 5 장

###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대학지원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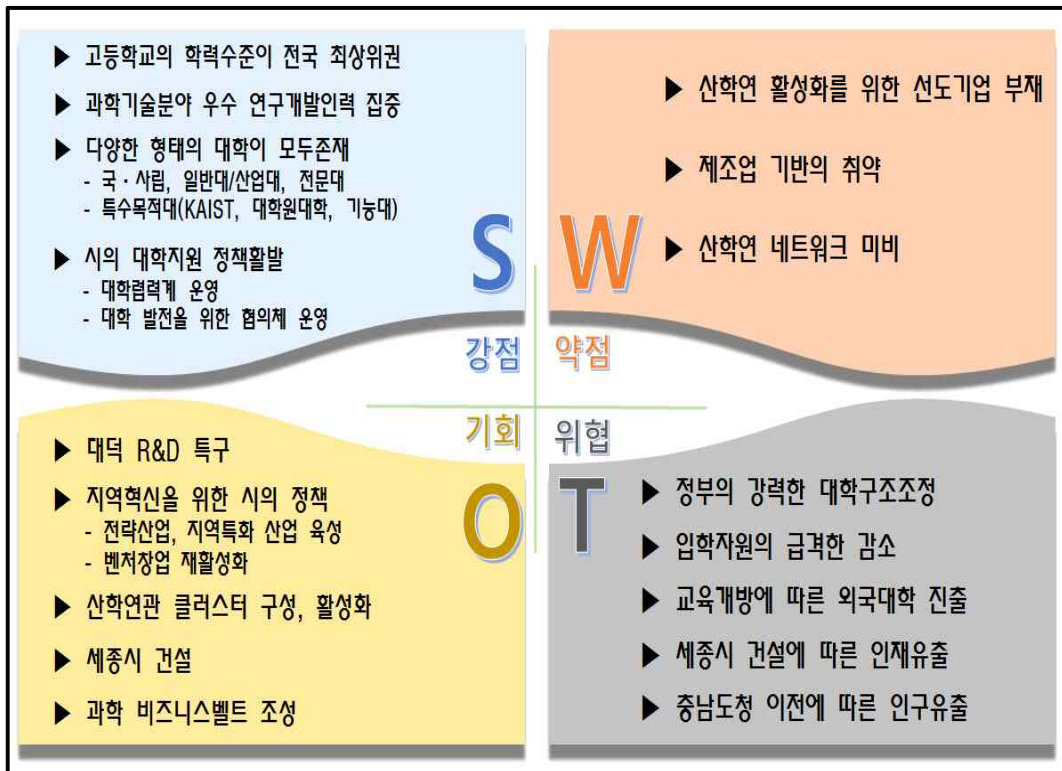
제3절 대학협력 세부실천 과제



# 제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대전시의 대학협력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지역 대학교육 여건의 상대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논의한 내용에 세 파악한 대전시 대학의 여건,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등을 요약 제시해보도록 한다.



[그림 v-1]대전시 인재관리 SWOT 분석

## 1. 현황분석 종합 및 시사점

### 강점 요인과 과제

대전에는 총 21개의 대학교가 존재하며, 이는 서울, 부산에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대전은 일반종합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신학대학, 사이버대학, 과학기술대학, 전문대학원대학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존재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충족 및 사회문제들에 대한 해결, 새로운 가치 창출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재학생의 중도탈락율은 4.7%로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 7.9%로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전국 및 광역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전임교원 1인 당 연구비(일반대학만)를 보이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되는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또한 전국 및 광역시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일반대학만)

뛰어난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 지원건수는 전국 지자체 중 3번째, 지원액은 2번째로 높다.

기초과학, 건설교통 분야의 높은 특성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 대학의 경우 사회봉사 교과목에 대한 이수율이 90% 수준으로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교과목 외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도 약 164명으로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국 및 광역시 평균에 비해 높은 취업률(68.5%)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인천 다음으로 높았으며, 최근 4년 간 비교적 취업률이 안정되어 있다(평균 68% 내외).

전국 및 광역시 평균에 비해 높은 진학률(8.6%), 높은 진학률은 고급인력에 대한 양성과 배출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조례’ 제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한 점을 강점으로 볼 수 있다

## 약점 요인과 과제

중도탈락율, 전임교원 확보, 교육비 지원, 연구비 지원 등 많은 분야에 있어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가 심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대학 신입생 경쟁률이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반대학의 신입생 90% 이상 충원율을 보인 학교는 84.6%로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는 90% 이상 충원율이 100%로 나타나 일반대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문대학은 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전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광역시 중 4번째로 중하위권이며, 전문대학의 경우 광역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은 학생 1인당 교육비. 광역시 중 6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일반대학의 대학생 장학금 수혜액은 전국과 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전국과 광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지자체 차원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일반대학의 경우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으나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은 전국과 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되는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또한 전국 및 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국 및 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은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특화교육시스템, 공공서비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특성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으며, 일반대학들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 참여율과 참여인원 수를 보인 것에 반해, 전문대학은 사회봉사 참여율과 참여인원 수가 전국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대학 졸업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내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 기회 요인과 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인재활용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시는 기존과 같이 연구개발 단계의 참여는 물론 벤처 창업, 기술 이전, 기술 및 지식의 경영관리 등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그 결과로서 활성화되는 산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산학협력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 공급 및 재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맥을 같이하여, 대전시가 대전의 새로운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전시는 연구, 교육, 산학협력 등의 분야에서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산학연관 클러스터에 구성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전시 인근 세종시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와의 상생방안 전략을 세종시에서 당분간 취약한 분야인 교육, 복지, 문화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의 정주환경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 위협 요인과 과제

지역사회에 인재양성 기관의 대표격인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 시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 위기상황을 접하고 있는 바, 그 결과가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학정원의 의무적 감축, 대학간 통폐합 유도, 신입생 충원률, 교원확보율 등의 실적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 등의 대학 정책은 대전의 대학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학도 산업이다’ 라는 말로 대표되는 대학 정책 방향은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 2. 사례분석 요약 및 시사점

국내외 사례 분석결과 최근 국내외 다양한 도시들 속에서 대학과 지방정부 간의 연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은 단순 지역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재생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정의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다.

성공적인 국내외 사례들은 협의회와 같은 특정 네트워크 체계를 바탕으로 대학과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의사소통 및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코하마시, 핀란드, 서울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 회의를 하는 공간 이상으로 평소에 대학생들과 지역주민들과 자유롭게 이용하고 서로 간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은 대학생들이 단순히 캠퍼스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교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연계 협력체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본의 요코하마시의 경우 시 차원에서 연계 협력 부서를 신설하여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USCD는 CONNECT라는 비영리 자립조직이 주도적인 역할 수행하며, 유럽은 선도 기업들이 네트워크 체계를 유지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시 또한 단순 연계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향후 연계 협력체계를 이끌어 나갈 기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양한 지역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대전도 일반종합대학, 전문대학, 과학기술대학, 신학대학 등 다양한 종류의 대학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사업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효과적인 연계협력은 제도 마련과 협력체계 구성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다양한 대학의 참여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조화롭게 나타나야 한다.

서대문구의 사례처럼 보다 성공적인 연계 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연계 협력은 다양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도 지역사회 연계형 수업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지역 연계형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은 자연히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코하마시의 사례처럼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하고 있는 사례들을 지역 구성원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간하거나 MAP을 구성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전형 ‘지역과 대학이 연결되는 거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설문조사 요약 및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연계 협력을 위해 연계협력체계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대전이 대학생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대전의 지역대학들이 놓인 환경과 상황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시민들이 ‘살기좋은’ 도시이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감소하고 있는 도시로 대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들은 지역대학의 중요한 역할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재 배출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 지역대학의 인재와 기술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선 사례 중 서대문구의 사례는 지역대학 인재의 지역 사회 기여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도쿄도의 지적재산활용 제품화 지원사업은 기술활용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와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은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의 심각한 청년난을 보여주는 한 측면인 만큼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좋은 일자리 발굴, 지역대학생과 지역기업 간의 매칭, 인턴십,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90%가 넘게 동의하였으며, 과반수 넘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 연계 협력은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계 협력이 필요함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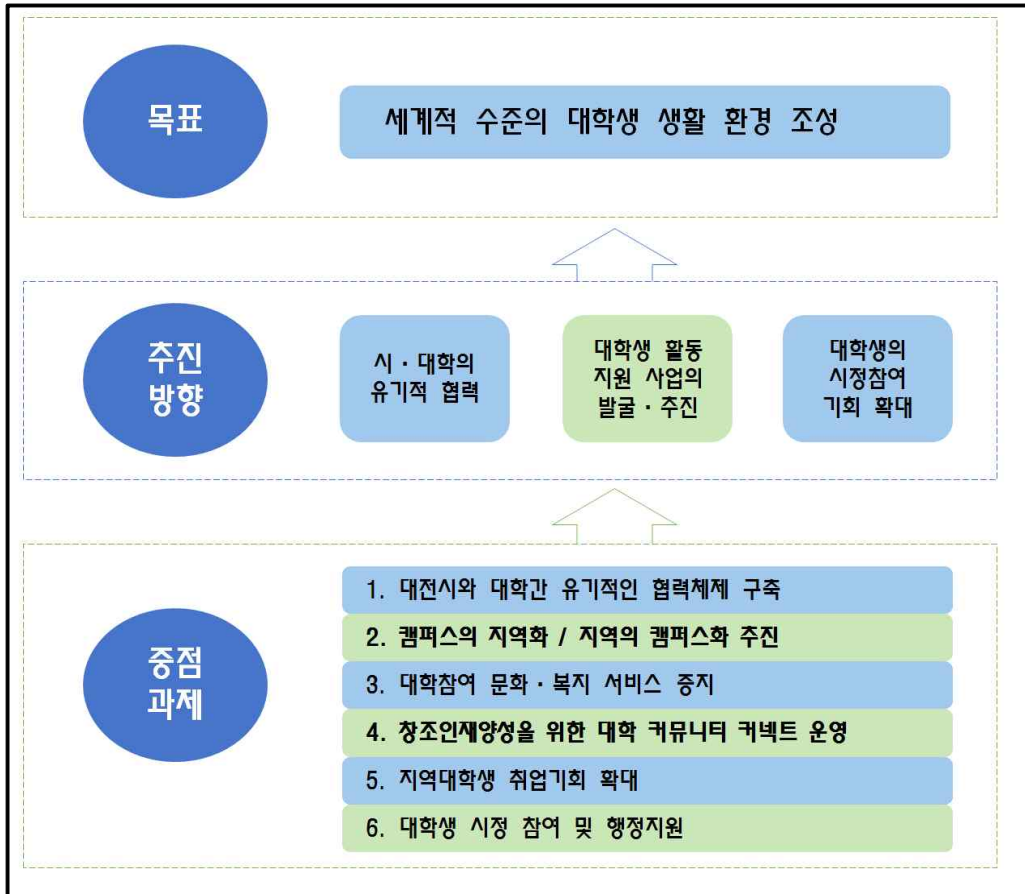
최근의 전세 난 속에서 지역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과반수에 가까운 시민들이 기숙사 건립 지원을 가장 효과적인 주거 안정 지원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2016년 대전시 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율은 27.4%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낮은 인지율로 인해 지원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원사업 인지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학생들의 정보 습득 경로 중 SNS, 휴대폰 어플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대전시도 이를 적극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대학지원사업 중 지역 인재 취업과 창업 지원, 지역에 맞는 인재 양성, 지역 인재 고용 촉진 기반 구축, 지역 잠재인력 활용 등과 같이 지역 인재와 관련된 사업들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대전시민들이 현재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 협력은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제2절 정책제언

### 1. 대학협력의 목표 및 추진방향



[그림 V-2] 대학협력의 목표 및 추진방향

대전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재정 상태나 지원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한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연계 협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전문대학이 연계 협력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담당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대전의 연구비 지원이외에 교육비나 장학금 지원에서 지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전 지역대학들의 우수한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보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앞서 각 참여 주체들 간의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확실한 역할 정립 없이 연계 협력 체계가 구성될 경우 효과적인 연계 협력이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해야한다. 예를 들어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을 설정해야 하며, 시의 역할은 조정자와 지원자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대학은 대학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협의체 구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대전의 성공적인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협의체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단순 네트워크 구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선도기업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대전에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기업이 부재하며, 새로운 선도기업을 육성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대전시 상황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 선도 기업보다는 미국 USCD의 CONNECT와 같은 연결조직을 구성하거나, 요코하마시처럼 시가 별도의 조정과를 구성하여 포괄적인 연계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염두에 두고, 향후 추진해야 할 대학협력 사업의 전략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지역대학과 지역의 경제, 문화, 복지가 상호 수평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방향 및 영역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학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지역대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각 대도시와 대학생의 삶의 질에서 비교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할 필요는 없으나, 성과목표를 뚜렷이

하여 대학도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정책의 기대효과를 설정토록 한다.

대규모 단기 가시적 사업보다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기획하여 추진토록 한다. 대학생 의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를 정하고, 정해진 범위내에서 가장 시급하고,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실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체감도 증진을 위한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대학간, 대학과 지역사회간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2. 대전시와 대학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대학협력시책을 6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대전시와 대학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지식기반사회 경쟁력 창출의 중심인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발전 선도의 주체로서 지역대학생과 동반자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우선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는 것이다.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는 대전권 대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담회 형식을 정례화하여 2004년 발족하였다. 이후에도 상설협의체로 정기회 및 임시회를 수시 개최토록 하였으나 실무협의의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각 대학 기획처장 중심의 실무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학총학생회장단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지원사업의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학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하여 운영 하며, 대학협력계에서 대전시정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정기회 및 임시회를 수시 개최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전지역의 대학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대학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의사통

로로서의 주도적 역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전발전연구원 주관하에 대학생활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하는 방법도 고려해 두어야 한다.

또한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중 생활이 어려운 학생, 학업우수대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사업에 대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 추가 확보, 사업 홍보강화,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연합홍보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한다. 대전소재 여러 대학들의 학사운영, 시설정보, 행사알림 정보 등을 市홈페이지에 접속, one-stop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대전소재 대학의 홍보담당자, 홍보위원 연합회를 결성하여 홈페이지의 자율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생에게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대학생의 상호교류, 복리증진 및 대학생 대상 시정홍보사이트로 적극 활용한다.

### **3. 캠퍼스의 지역화 / 지역의 캠퍼스화 추진**

다음은 지역인재양성 및 활용을 위한 대학생 활동 공간과 편의기반을 확충하고, 대학이 보유한 지식기반의 지역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원도심 및 시가 운영하는 공공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진흥 일환으로, 일상생활공간에서 대학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한다.

다음으로는 대학부설 문화·체육공간의 시민 활용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사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의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등을 대학과 협의, 인근 주민에게 개방, 시민체력단련, 여가선용 및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또한 대학생 주도의 (가칭) 대전 fringe festival 개최를 지원한다. 대학의 예비예술

인 중심의 독립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정기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의 동아리 경진대회를 겸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외에도 대학생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버스, 지하철 이용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건전한 문화여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각종 대외활동의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대학참여 문화·복지서비스 증진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 문화·복지 향상에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대학생의 현장실습 기회를 최대한 제공 하고 직업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케 하도록 대학 참여 문화·복지서비스를 대폭 증진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참여 복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사회복지 전공 관련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소득층,노인, 장애인복지사업을 시와 공동으로 전개 한다. (교수, 학생, 동아리 등 참여) 대전시에서 재료비 등 일부를 지원하며, 전체적인 공모 및 관리는 대전복지재단에서 주관하여 추진한다.

대학생 대전시티즌 사랑운동 전개 또한 고려해 볼 만한 사업이다. 대전시민 프로 축구 구단의 지속적인 후원자로서 대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긍심,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학생 voluntainment movement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즐겁고 여가와 뜻 깊은 봉사활동을 결합한 즐겁고 신나는 복지제도의 정착을 유도 한다.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봉사단을 구성하여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연간,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한다.

다문화가족 아동 멘토링에 대학생을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아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찾아가는 가정학습을 구현한다. 대학 인재를 mentor로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의 인식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아동의 한국사회 적응을 유도한다.

아울러 책읽는 문화 조성에 대학생의 참여를 증진토록 한다. 대전을 책읽는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대학생 책나누어 읽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대학생 문학동아리 발표회 개최를 지원하고, 지하철에서의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 시화전 개최를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생 다독왕 선발대회, 독서감상문 공모에 따른 포상제를 실시한다.

## 5. 대학 커뮤니티 커넥트 운영

현황 분석에 나타나 있듯이 지역대학은 산학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 핵심사업과 연계한 대학특성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커뮤니티 커넥트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강점과 특성, 지역의 발전역량을 접목시킨 대학추진 지역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협력토록 한다.

또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위한 대학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업 필요 애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산업화 등에 지역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여러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고무참여하고 타지방과 차별화 전략사업이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은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이외에도 대전권 대학생 및 대전출신 외지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대전의 역사, 문화 바로 알아가기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매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연합교양대학사업과 연계하여 본 행사를 추진토록 지원한다.

문화 예술에 대한 성과물로서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대학생 예술 동호회와 아틀리에의 발표의 장으로 활용토록 지원한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대전역, 버스터미널, 관공서, 지하철역, 공원 등)에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아트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는 대학생에게 아트 아틀리에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틀리에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도시의 유희시설, 혐오시설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한다. 회화, 조각 등의 조형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의 무대예술, 그 외의 사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 간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을 유도, 이를 위한 공간으로는 유희시설, 혐오시설 등을 활용한다.(예 : 화장장, 교도소, 공단, 폐교, 창고 등)

중구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창조화랑(Art Stage)을 조성하고, 대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한다. 대학생 문화활동 전개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을 활성화한다.

문화활동 동아리를 육성토록 한다. 문화의 다양한 영역별로 2030세대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on-line 및 off-line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정보 제공기관과 영역별 동호회 연계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각 영역별 최신 공연물, 최근 현황 등등에 대한 평론 연재물을 게재하며, 문화산업 인력수급, 일자리 현황을 소개하여 미래 취업에 대비하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6. 지역대학생 취업기회 확대

가장 현실적이며, 절실한 지역대학생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기업의 수요중심 필요인력 양성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전 청년 Job Bank 및 Work-net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대전광역시 및 충청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장기구의 정보를 수합하여 지역대학에게 제공하는 정보채널로 운용하며, 구인, 구직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구직의 요건과 자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으로는 가칭 대전 대학생 Job Bank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구직, 구인, 교육훈련, 창업지원과 관련된 종합채널로 구직하려는 청년층과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토록 한다. 관내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종합고용센터, 관내 인력은행과 연결해서 노동시장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한다. 기업체의 직무수행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요중심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체와 대학이 협약으로 학과실설 등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며, 기업의 취업예약 장학금 등 인재를 유입하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기업체의 직무수행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요중심형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체와 대학이 협약으로 학과신설 등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취업예약 장학금” 등 인재를 유입하는 여건을 조성토록 한다.

그리고 대전시 (가칭)인재 양성 및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우리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중 우수한 학생의 지역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타지역 또는 외국의 우수 학생들을 대전 지역 대학에 많이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전지역 대학들이 좋은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 그리고 선진화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 대학에 대한 대전지역 대학들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해외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인 대학은 이들을 지역의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인데, 이를 위해 대전 지역의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대덕 R&D특구의 출범과 더불어 대전 지역 대학들은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와 첨단문화 분야만큼은 한국에서 최고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대학 공동의 특성화를 기하여, 타지역 또는 외국의 우수 학생이나 연구기관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두번째는 대학-연구기관-산업체-지자체로 구성되는 산·학·연·관 클러스터가 전국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는 모델을 만드는 데 지역 대학이 모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대전의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이다. 대전지역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적자원의 수요처는 기존 전통산업분야, 새로 지정된 4대 전략산업, 4대 신성장 산업 분야, 첨단문화산업 등 지역의 특화산업과 서비스 산업 분야, 연구소나 대학 등의 연구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우수한 인적 자원의 지역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우리 지역

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각종 효과적인 제도 도입·시행과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는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 방안이다. 지역 대학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역대학생 채용우수 지역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전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좀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창업활동 유도를 통하여 대학생의 취업기회를 증진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청년창업프로젝트 500사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창업환경이 가장 우수한 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시장을 국내를 넘어서 해외 취업 지원을 대전시 차원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기업들과 시와의 협약을 통하여 대학생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며,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을 취업과 직접연계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여 추진한다. 해외자매도시, 해외진출 대전시민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대학생에게 제공한다.

대전시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산업체의 기반이 약한 대신에 연구개발 분야의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에 맞게 연구 개발인력의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하며, 이러한 면은 대덕 R&D 특구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부 등 중앙부처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도 지역의 연구역량 확대에 보다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려면 산업체 인력 양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대전시)가 직접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030세대의 주요 관심이 문화에 있으며, 문화소비와 문화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문화세대로서의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지식기반의 핵심사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코자 문화산업의 주력으로 2030세대를 양성토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

으로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을 통하여 3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역내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한 정보기술소프트웨어분야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고, 대전연합교양대학에 문화산업인력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문화산업분야 전략화 수범인력 집중 양성 하고 취업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 7. 대학생 시정참여 및 행정지원

대학생의 시정 이해 증진과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의 행정적 건의 및 숙원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으로는 대학새내기 대전탐방을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대학입학·유학을 통해 대전에서 처음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 외지전입 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대전을 홍보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문화에 익숙한 대학생에 대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다. 대학생들의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사항을 공모하고, 시정 연구논문을 공모하여 포상한다.

수요자 기반 행정인턴제를 확대 시행한다. 공직 진출희망 대학생에게 공직체험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턴쉽의 실제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교육기능을 강화 한다.



## 참고문헌 & 부록





## ■ 참고문헌

### 1. 문헌자료

- 교육부(2015).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016~202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프로그램 USCD CONNECT.
- 김지은 (2010).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연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3호 2010. 9. P.69~86
- 김정민(2010). “지식기반시대에 항구도시, 목포의 발전방안-목포대학이 목포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섬)학회. 22(2). p. 35~52
- 김형주(2005). “미국 대학과 기업간 연계의 발전과정”.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1). p. 51~70
- 대전발전연구원(2008). 창조도시 대전만들기. 대전광역시.
- 대전발전연구원(2011). 대전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대전광역시.
-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2008). 대전지역 창조인재 양성방안.
- 류진석 (2007). 지역복지 거버넌스와 지역대학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여름호, p.27~47.
- 류연택 · 정희선(2007).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과 지역사회 개발: 미국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89~105
- 문남철 (2010).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취업이동과 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 제44권, 4호, p.581~593.
- 민철구, 박기범, 정기철, 조현태(2011).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역할정립과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노동(2012). 대전시와 대학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 연구원
- 박영한 조영국 안영진 (2005). 대학과 지역발전. 한올아카데미
- 서울시 보도자료(2014). “생활권 단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5곳 첫 선정”. 서울시청. 보도일자 2014. 12. 27
- 서울연구원(2015).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364, 368, 370.
- (2016).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374.
- 손승호 (2007). 일본의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과 도시 재활성화, 한국도시지리학회, 제10권 2호, p. 105~117
- 오대영(2011). “일본 대학들의 활발한 지역 사회공헌”. 대학교육. 170.
- 안영진(2005). “대학과 지역의 교류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p. 171~191
- (2010). ‘대학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독일 대학의 사례분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4). p. 529~546

- 윤영채(2004).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방대학과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사회과학연구. 15. p. 173~188
- 이기중, 박병무(2010). “광역경제권역별 선도산업 육성과 대학의 산학협력 특성화 분석”. 국가정책연구. 24(1). p.113~133
- 이태희, 박소은, 김태현(2016). 일본대학-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시 시립대학교 간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1). p. 57~75
- 이명훈(2011).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일본 도시재생사례. 도시문제. 515. p. 33~39
- 이성근(19996). “대학 연구단지의 개발모형과 전략: 경산 ‘테크노파크’를 사례로”.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8(2). p.121~134
- 이용환, 송상훈, 김진덕(2008), “대학유치 및 지원정책 방향”. 정책연구. 2008(5). p. 1~134
- 이현우(2014). 북유럽 주요 ICT 혁신 클러스터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원창(2015). “일본 대학 벤처비즈니스 현황 소개”. 대학교육. 190.
- 정재욱(2004). “지역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과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 26(2). p. 185~207
- 한상훈(2001).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지역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영남지역발전 연구. 28. p. 129~152
- 홍형득(2010). “대학의 과학기술지식 생산 및 유통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사례분석”. 사회 과학연구. 49(2). p. 319~352

## 2. 인터넷 자료

-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 대구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 대전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sdm.go.kr/index.do>
- 요코하마시 홈페이지. <http://www.city.yokohama.lg.jp/>
- 이노시티 홈페이지. <http://innocity.molit.go.kr/>
- 와세다대 홈페이지. [www.waseda.jp](http://www.waseda.jp)
-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inu.ac.kr>
-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http://icidcc.modoo.at/>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 KU스토리 홈페이지. <http://www.korea.ac.kr/kustory>



■ 부록: 설문지

--	--	--	--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관한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을 보다 적실성 있게 구안하고, 효율적인 실행에 이를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시 대학교육발전 사업의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각 문항마다 성심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0월

대전발전연구원장

설문지를 작성하시는 중에 의문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연구 책임자 : 박노동(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전화: 042-530-3523/ E-mail: [labourbak@didi.re.kr](mailto:labourbak@didi.re.kr)

※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거나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대전의 대학입지 여건 및 정책지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 1] 타도시에 비하여 대전은 대학생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아주 그렇다                      \_\_\_ ② 그런 것 같다                      \_\_\_ ③ 모르겠다  
 \_\_\_ ④ 그렇지 않은 것 같다            \_\_\_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 2] 다음에 제시된 지역대학의 상황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응답 해주십시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전지역 인재의 수도권 및 타지역 유출이 심화됨					
2	대전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하락되고 있음					
3	지역대학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4	대전시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정책이 실효 성 있게 추진되고 있음					
5	대전지역 지방대학들의 교육·연구여건이 우수함					
6	대전지역 대학들은 학생 1인당 시설·설비 현황이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역할 인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 3]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  
 \_\_\_ ②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 배출(지역혁신을 위한 지도자 양성)  
 \_\_\_ ③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적 풍토 조성  
 \_\_\_ ④ 지역발전비전의 제시  
 \_\_\_ ⑤ 기타 \_\_\_\_\_

문 4] 지역대학 육성을 위하여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방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
- ②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 ③ 지역내 대학간의 협력체제 구축
- ④ 대학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 ⑤ 교육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확대
- ⑥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체의 지역대학 지원 강화
- ⑦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⑧ 기타 \_\_\_\_\_

문 5]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교간의 협력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필요                       ② 어느 정도 필요
- ③ 별로 생각한 적 없음                   ④ 필요성 없음

문 6] 지역의 대학이 지역주민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②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체육행사
- ③ 공무원 재교육
- ④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프로그램
- ⑤ 지역주민에 대한 대학시설의 개방
- ⑥ 기타 \_\_\_\_\_

※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 7] 우리 지역의 대학 졸업생이 취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좋은 일자리 부족
- ② 개인 능력 부족
- ③ 학력 부족
- ④ 지방학교 출신 차별
- ⑤ 일자리 정보 부족
- ⑥ 기타 \_\_\_\_\_

문 8】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가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재정적 지원
- \_\_\_ ② 교육 인프라 구축
- \_\_\_ ③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 제공
- \_\_\_ ④ 시설제공 및 공동연구
- \_\_\_ ⑤ 기타 \_\_\_\_\_

문 9】 특별히 대전시가 대학졸업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청년고용할당제 장려금 확대
- \_\_\_ ② 지역기업 취업정보 제공
- \_\_\_ ③ 기업 인턴쉽 지원
- \_\_\_ ④ 개인능력개발(학원비 등) 지원
- \_\_\_ ⑤ 지역출신 청년 고용기업 우대
- \_\_\_ ⑥ 대전시 주관 취업캠프 운영
- \_\_\_ ⑦ 기타 \_\_\_\_\_

문10】 지역대학 및 대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전시가 아래 과제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_\_\_ ① 시와 대학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_\_\_ ② 캠퍼스의 지역화 / 지역의 캠퍼스화 추진
- \_\_\_ ③ 대학생 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 \_\_\_ ④ 대학 커뮤니티 커넥트 운영
- \_\_\_ ⑤ 지역대학생 취업기회 확대
- \_\_\_ ⑥ 대학생 시정참여 및 행정지원
- \_\_\_ ⑦ 기타 \_\_\_\_\_

문11】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소형주택 공급 확대
- \_\_\_ ② 기숙사 건립 지원
- \_\_\_ ③ 아파트 분양가 저감
- \_\_\_ ④ 대학생 전세자금 특별융자
- \_\_\_ ⑤ 공공임대주택 확대
- \_\_\_ ⑥ 기타 \_\_\_\_\_

문12】 아래는 2016년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지원사업들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인지여부와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해주세요.

과제명	인지여부		사업의 필요성				
	알고 있음	모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그저 그러함	필요함	반드시 필요
지방대학의 새로운 학습 지원 발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환경 조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방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유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방대학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인재 취업·창업 지원 확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인력 양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 연구인력 양성과 R&D역량 강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의 잠재인력 발굴 및 활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인재 고용 촉진 기반 구축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역정주를 위한 문화·복지 여건 개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재정지원 확충과 연계성 확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 13】 응답자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시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성별 : \_\_\_ ① 남성      \_\_\_ ② 여성

연령 : 만 (\_\_\_\_\_ 세)

거주지 : \_\_\_ ① 동구    \_\_\_ ② 중구    \_\_\_ ③ 서구    \_\_\_ ④ 유성구 \_\_\_ ⑤ 대덕구

대전시 거주기간 : \_\_\_ ① 1년 미만    \_\_\_ ② 1년-5년 미만    \_\_\_ ③ 5년-10년 미만  
                         \_\_\_ ④ 10-15년 미만 \_\_\_ ④ 15-20년 미만    \_\_\_ ④ 20년 이상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본연구보고서 2016-05

---

---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연계·협력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

발행인 유재일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2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

인쇄: ○○○○○ TEL 042-○-○ FAX 042-○-○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